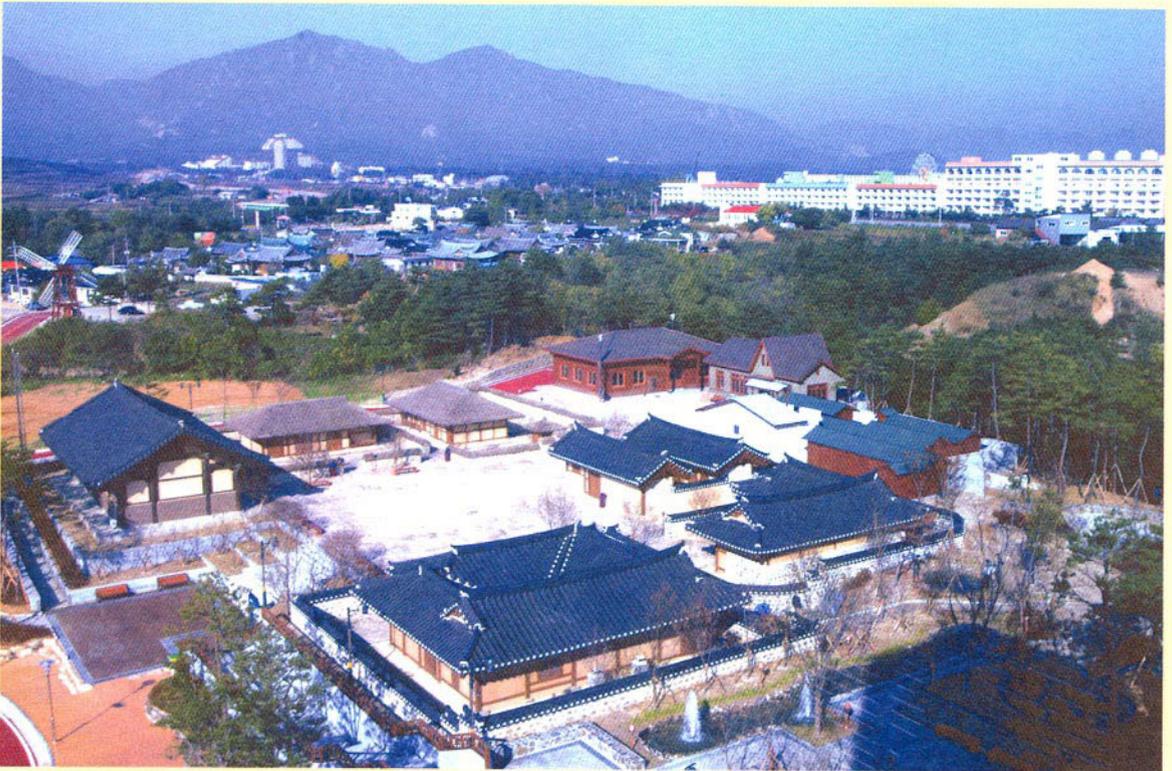


2005 • 제21호

ANNUALLY

속초문화

THE SOKCHO CULTURE JOURNAL



40th

설악문화제
SEORAK CULTURE FESTIVAL

경축! 설악문화제 40돌

설악의 북계 타고르는 단풍과
청명한 10월의 가을하늘 아래
설악골소곡초에선 토요일의 영원아름은
이올림의 자치가 신명나게 펼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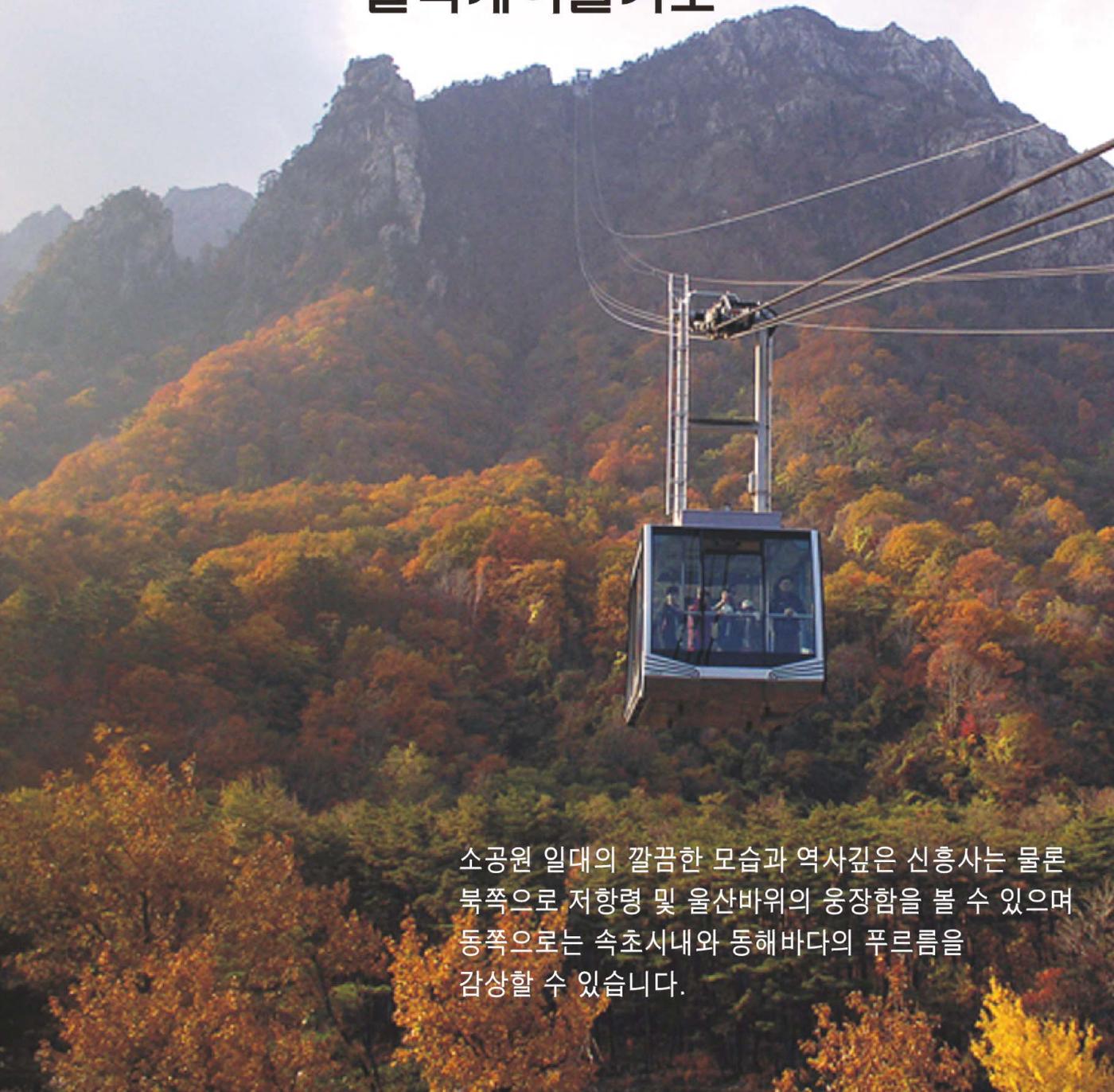
설악문화제 2005

2005. 10. 14(금)~10. 16(일), 3일간

설악문화제위원회
T.(033)632-1231, 639-2439

장소 • 천호호유원지및 설악산 일원 주최 • 설악문화제위원회 · 속초시
후원 • 각급기관 · 단체, 기업체, 학교 등 협찬 • JINRO (사)세종예능음악협회

설악의 사계와 동해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설악케이블카로 ...



소공원 일대의 깔끔한 모습과 역사깊은 신흥사는 물론 북쪽으로 저항령 및 울산바위의 웅장함을 볼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속초시내와 동해바다의 푸르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설악케이블카 (주)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46-2
www.sorakcablecar.co.kr

Tel : 033) 636-4300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ANNUALLY · 2005 제21호

속초문화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217-010

전화 (033)632-1231 / 전송 (033)632-1241

http://www.sokcho-cultur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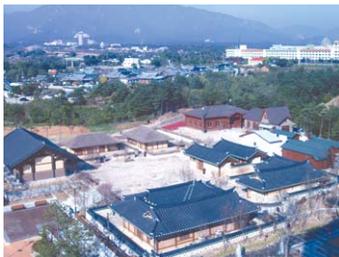
E-mail : sc2439@sokcho.org

■ 펴낸곳 / 속초문화원

발행인 / 노광복

편집인 / 한정규

CONTENTS



cover story

지난 11월 4일 개관한 속초시박물관, 실향민문화촌 속초의 역사와 어촌, 산촌, 실향민의 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고유의 향토민속예술과 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향토문화 체험장으로서 속초의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청구문화 장학재단	4
■ 권두시 / 미시령 편지	이상국 · 5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도시 속초	6
■ 발간사 / 속초문화 40년	노광복 · 7
■ 문예중흥선언	8
■ 속초시민현장	9
■ 속초시가	10
■ 속초시 문화행사	11
- 속초해맞이축제	12
- 화랑영랑축제	13
- 2005 대한민국음악축제	14
- 2005 속초해양페스티벌	16
■ 2005 문화원 동정	17
- 문화원장 이취임식	18
- 2005 효행 청소년 시상	20
- 2005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21
- 한국문화학교	23
- 청소년 국악전수교육	24
- 제10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26
- 백두대간 영도제	27
- 제9회 강원도 여름청소년 풍물학교	28
- 청소년 여름방학교실	29
-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30
- 도민의 날	32
- 대한민국음악축제와 함께하는 설악미니콘서트	33
- 설악문화제	36
- 전국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46
- 졸업생을 위한 강연회 및 공연	47
-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48
-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복청사자놀음 전수	50
- 속초도문메나리농요 보존회 결성	51
- 2005 통합복권기금 지원 사업	52

발행일 / 2005년 12월 30일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속초문화》는 보조금 및 강원문화예술진흥 지원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 사진제공 : 속초시문화공보과 남동광, 속초시 관광과, 옛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등.

- 2005 문화강좌	54
■ 인조잔디 축구장 준공	55
■ 목우재 터널 개통식	56
■ 특집 문화논단	57
■ 속초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방향과 전략	장정룡 • 58
■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신 매곡선생에 대하여	양언석 • 84
■ 속초만의 것을 살리는 관광연출	이재선 • 87
■ 잠들지 않는 관광도시 속초를 꿈꾸며	조성진 • 93
■ 광복 60주년을 맞이한 남과 북	허춘권 • 96
■ 애국지사 이석범	한정규 • 98
■ 일본속의 한국문화와 한국어의 일본어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오윤근 • 100
■ 영랑정 정자 복원	김수산 • 108
■ 속초시박물관 개관	정종천 • 112
■ 불혹을 맞이한 설악문화제	노광복 • 118
■ 러시아 모스크바와 성페테르부르그를 다녀와서	한정규 • 120
■ 중국 내 조선민족의 통소 역사 검토	동선본 • 126
■ 제17회 속초시문화상	132
■ 2005 속초예총 주요사업	136
■ 2005 속초민예총 주요사업	149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153

내 고장의 인재 양성을 위한 청구문화 장학재단



우리 청구문화 장학재단은 내 고장의 인재 양성에 일조(一助)한다는 사명의식으로 1967년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찾아 장학금을 전달하며 언제 어디서나 향학열과 함께 애숙각초(愛束覺草)의 정신을 불어넣기 38여 년의 세월을 묵묵히 선산(先山)의 노송(老松)처럼 지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구문화 장학재단



5대 이사장 김 용 현

우)217-030 속초시 중앙동 468-20 (조수웅 법무사 사무실)

☎ 033-631-9222 / 033-632-8907



미시령 편지 -설악의 겨울은 길고 높아서-

이 상 국

설악의 겨울은 길고 높아서
한 해 겨울 열 번도 넘게 눈에 길이 묻히는데
그럴 때마다 동네 언덕배기를 올라가는 차들이 비명을 지르든 말든
세상을 눈 속에 세워놓고
집에 들어앉아 바라보면
생이 굴속 같이 따뜻해진다
그런 날은 미시령도 짐승처럼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겨울이 한창이던 어느 날
나무들의 잘 차려입은 얼음웃이 햇빛에 검처럼 빛나고
바람이 소리소리 지르며 눈을 몰고 다니는 영 길에서
나는 산신을 만났다
그는 날렵한 노루의 몸을 하고 뛰어들었는데
나는 차창을 내려 그를 보고
그도 처음 보는 짐승인 나를 바라보며 한참을 가다가
터널 같은 눈길을 훌쩍 뛰어넘어 숲 속으로 사라졌다
검은 눈동자만큼이나 새카만 콧잔등과 이쁜 궁둥이를 하고
그는 산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미시령 속에는 그런 겨울이 수도 없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李 相 國

1946 양양 출생

1976 『심상』으로 등단

시집 『동해별곡』 『집은 아직 따뜻하다』 『어느 농사꾼의 별에서』 외
민족예술상 백석문학상 등 수상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미래 도시 속초

심볼 마크



속초의 다양한 청정 관광자원을 상징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따뜻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아늑하고 즐거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설악산, 일출, 속초의 청정한 바다, 자연 그대로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상징화하여 다채로운 관광소재를 구상하였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뚜렷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릭터



속초시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머리, 이어지는 시선 끝에 일출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을 담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때문지 않은 동심이 묻어나는 속초캐릭터의 얼굴에서 우리는 속초시의 푸른 자연, 그 영속성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시목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 넓게 퍼지는 가지는 지역발전을 의미하고 시가 오래도록 보존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시화



국화

국화는 번식력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우리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희구하는 시민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시조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된 단결을 대변하는 속초시의 염원을 담고 있다.

속초문화 40년, 21C를 선도하는 문화 연구기관으로...



속초문화원장 노 광 복

속초문화의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시민 및 문화가족에게 문화향수권 확대 신장으로 이제 속초문화 40년이라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종합적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속초문화」지의 21호 작업이 모 든이들의 참여속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속초문화원은 1965년 개원한 이래 지역의 크고 작은 문화 재현상을 발굴하고 향유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전개하여 속초의 향토문화 연구와 계승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었음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그동안 역대 원장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회원들에 의해 속초문화원의 위상 정립에 노력하심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1여년 문화발전상에 즈음하는 중 합문화지를 조심스레 꺼내 봅니다.

더하여 본원의 역할과 위상을 더 높이 강화시키고, 지역색에 맞는 향토적 이미지를 정립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다시금 옮겨 이 시대 21세기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면모를 확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열린 향토문화 정립체계로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지역의 지식기반사회 즉, 강원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외 문화향수권 확대와 더불어 변화에 발맞춘 민족문화 계승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에 평화와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文藝中興宣言文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を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를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信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시 민 헌 장

동해의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려한 기상을 안고 옛부터 미풍양속을 지녀온 우리 속초시민은 동족 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번영된 속초시를 이룩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위업을 거울삼아 우리는 스스로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열성을 바친다.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누구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시민 다수에 의한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체육보건 복지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배양하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의 육성 없이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우리 모두 선진도시 문화창조의 역군이 되자.

1990년 10월 11일

속 초 시 민 일 동

속초시가

♩ = 92 - 96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1. 설 - 악 산 큰 뜻 받 아 가슴에 새 - 기 고
2. 해 - 안 선 굽이 굽이 아침해 떠 오르 고
3. 신 - 흥 사 종 소 리 에 새벽잠 깨 - 이 어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리 에 펼 - 치 네
천 - 불 등 은 골 - 짜 기 에 흰 구름 몸을 묻 네
이 슬 젖 은 발 - 길 로 바닷가 거닐 어 라



정 성 과 보 - 람 으 로 다 저 온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 대 - 어 마 등 령 바라 보 니
갈 매 기 높 - 이 - 어 우리 꿈 손 짓 하 니



우 뚝 솟 아 빛 - 나 네 하늘 아래 제 일 이 라
장 - 하 다 우 리 녀 이 그 - 욱 히 깊 어 지 네
항 - 구 에 뮤 인 배 가 대 양 으 로 차 비 하 네



가 자 배 를 젖 - 자 산으로 바다 향 - 해



우 리 일 기 - 든 곳 여기가 내 고 - 향

2005

속초시문화

행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새아침, 새희망!

2005! 첫 해오름에 희망을 실어 날려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한해를 정리하며,
자! 다시한번 힘찬 걸음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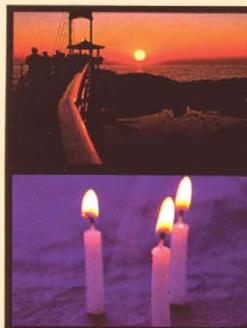
2005 속초 해맞이 축제

· 일시: 2005. 1. 1(토요일)/06: 00~08: 00 · 장소: 속초해수욕장(주행사장) 및 설악해맞이공원(보조행사장) · 주관: 속초문화원

을유년 새해 아침 6시! 속초시에서 힘찬 새출발을....

속초해수욕장 (2005.1.1(토)06:00~08:00)

- **여명을 알리는 울림**
담 울음과 힘찬 대북공연(갯마당)
- **전통무용공연**
어둠속에 펼쳐지는 힘찬 춤사위(양속희무용단)
- **어선 선상머레이드**
힘찬 뱃고동과 환희의 집어등
- **공감음악회**
60년대~2004년까지 추억어린 주요행사들의 영상과 노래 (KBS합창단·무용단)
- **테마가 있는 불꽃놀이**
화려한 불꽃과 장엄한 폭포 연출
- **함께하는 세상**
어린이합창단·초대가수공연
- **의망 촛불나무 만들기**
소망을 한데 모은 대형 촛불 나무
- **해오름과 함께 출발**
함성과 소망메세지를 미래로....
- ※ **담뱃가죽 가운 써주기 · 한애 은세물이**



설악해맞이공원 (2005.1.1(토)06:00~08:00)

- **촛불기도**
자신을 불사르며,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속에 한해의 소망을 기원
- **해오름 함성**
우렁찬 함성속에 소망메세지를 풍선에 담아 드높은 하늘로 날리며....



지역특산물 무료시식회(속초해수욕장)

- 속초시: 떡국 · 설악산들바람김치: 포기·맛김치 등
- 학사평 콩꽃마을 순두부축제위원회: 순두부(제2회 학사평 콩꽃마을 순두부축제 보은행사)

SUNRISE FESTIVAL



화랑영랑축제

2005년 제1회



활기 넘치는 새봄, 화랑의 정기와 향기로운 벚꽃의 한다당 어울림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 2005년 4월 16일(토)~4월 17일(일) 장소: 속초시 영랑호일원 주최: 속초시 문의: 속초시청 문화공보과(T. 033-639-2474)

행사일정

	1일차 (4월 16일 · 토)	2일차 (4월 17일 · 일)
화랑도체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랑기사대회(10:00~14:00) ■ 모자 사생 · 백일장(10:00~14:00) ■ 화랑도및전통놀이문화체험 · 이벤트행사(14:00~18:00) 	
영랑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편어링(13: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악인라인마라톤대회(09:00~11:00) ■ 설악하프마라톤대회(09:00~14:00)
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춘음악회(19:00~21:00) 	
잔디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랑도및전통놀이문화체험 · 이벤트 · 인라인강좌(10:00~18:00)

화랑도 체험행사

- 기간: 2005. 4. 16(토)~4. 17(일)[2일간]
- 장소: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범바위 잔디광장
※ 4.16(토) ⇒ 화랑도 체험장 / 4.17(일) ⇒ 범바위 잔디광장
- 내용: 승마, 활쏘기, 격구 및 투석기 등 병장기 체험 등

모자(마동) 사생대회 및 백일장

- 일시: 2005. 4. 16(토) 10시
- 장소: 화랑도 체험 관광지 일대
- 주제: 영랑화랑축제를 체험하면서 자유로운 주제 선택
- 참가문의: 속초 민예총 (033)636-5060
- 시상·전시: · 시상 / 2005. 4.23(토) 15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
· 전시 / 2005. 4.23~4.26(4일간),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新春)음악회”

- 일시: 2005. 4. 16(토) 19시
- 장소: 문화회관 대강당
- 내용: · 합창공연: 속초시립합창단, 설악엔젤스합창단
· 초청공연: 성악가(소프라노 박상영, 바리톤 변승욱) 및 대중가수(녹색지대, 편승엽, 정수라)
- 관람료: 무료

2005년 제1회 화랑영랑축제

2005년 제1회 화랑영랑축제

2005년 제1회 화랑영랑축제

신나는 음악제! 설악 판타지아 2005!

대한민국 음악축제

KOREA MUSIC FESTIVAL

2005.8.1(월)~8.8(월)

2005

IN SOKCHO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한여름밤 음악축제!
속초에서 만나요!

○ 기 간 : 2005.8.1(월) ~ 8.8(월)

○ 장 소 : 속초시 · 설악

(청초호 엑스포장, 속초종합운동장, 영랑호잔디광장, 설악동C지구)

○ 주 최 : 속초시 · MBC

○ 후 원 : 문화관광부 · 강원도

○ 협 찬 : **SS**(주)신한 **미지엔** **SK** 네트워크

○ 문 의 : 속초시청 문화공보과 T.(033)639-2972~5

<http://mfestival.imbc.com>


SOKCHO


MBC

2005 대한민국 음악 축제 공연일정

■기간: 2005.8.1(월)~8.8(월)

날짜	8.1 월	8.2 화	8.3 수	8.4 목	8.5 금	8.6 토	8.7 일	8.8 월	
청춘호혜 스포장	남진 2005 (남과 함께!) 공연시간 오후8시~10시 출연 남진, 주영리, 크라잉넛	이미자 [同感 II] 공연시간 오후8시~10시 출연 이미자, 성시경, 장윤정	조수미 (동해판타지) 공연시간 오후8시~10시 출연 조수미 외	트로트축제 공연시간 오후8시~10시 MC: 이상벽 출연 현철, 태진아, 송대관, 김수희, 장윤정 외	2005	신중현 연정공연 공연시간 오후8시~10시 MC: 배철수 출연: 신중현, 신다행밴드, 한영애, 인순이, 김중서, 김건모, 윤도현밴드, 김조한, 박미야, 성시경, 린, 시베리안호스키	빅스타 만남 3인콘서트 공연시간 오후8시~10시 출연 안숙선, 임용균, 인순이	정음의축제 여름안에서 공연시간 오후6시~8시 MC: 이효리 출연 보아, 동방신기, 버즈, MC몽, 은지원, 노브레 인, SS501, 길건	
소치중앙아트홀	족메스티벌 공연시간 오후8시~10시 MC: 이성우 출연 K2, 서문탁, 노브 레인, 이한철밴 드, W, 브런치, 퍼필	입합메스티벌 공연시간 오후8시~10시 MC: 데프콘 출연 타이거JK, 은지 원, 윤미래, 데프 콘, 45rpm, 배치 기, 스토니스커크	족메스티벌 공연시간 오후8시~10시 MC: 노홍철 출연 부활, 김중서, 김경호, 마야						
영랑호재디광장	발라드축제 공연시간 오후8시~10시 MC: 데니(god) 출연 테이, 성시경, 김 조한, 김현정, 유 미, 모세, 김우주	통기타축제 공연시간 오후8시~10시 MC: 최은경 출연: 최성수, 김 종환, 박정운, 신 효범, 나무자전 거, 녹색지대, 솔 리스트	국악·재즈축제 공연시간 오후8시~10시 MC: 박나림 출연: 김영원, 신 영희, 전제덕밴드, 말로, 서영은, 임태 경, 뿌리파, SOME, 어린이명인						
설악동C지구									

• 입장은 공연시작 30분전에 완료.

• 위 공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초호 엑스포상징탑 광장에서
오후8시부터 공연합니다.

- 7.26 : 비나리(빈순애) / 도문메나리 농요 / 강원도립예술단
- 7.27 : 타악그룹(광명 두두락) / 철가방프로젝트
- 7.28 : 정선아리랑예술단 / 사물놀이, 판국(갯마당)
- 7.29 : 일렉퓨전 F.Sharp / 초청가수(JK김동욱) / 색소폰(최경복)
- 7.30 : 두두리주부패 / 상상놀이단 / 통기타 공연
- 7.31 : 고구려예술단 / 초청가수(안치환) / 색소폰(최경복)
- 8. 3 : 초청가수(최평심) / 퍼니밴드 / 락 공연
- 8. 7 : 설악팝스 / 갯마당 공연



2005 속초해양 Festival



가자! 즐거움이 넘치는 특별한 이벤트 속으로....

• 기 간: 2005년 8월 9일 ~ 8월 15일 • 주 최: 속초시
 • 장 소: 속초해수욕장 • 문의전화: (033)639-2365



행사일정표 | 속초바다와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

	8/9(화)	8/10(수)	8/11(목)	8/12(금)	8/13(토)	8/14(일)	8/15(월)
11:00~							
12:00~							
13:00~			황토체험장, 골프, 서핑, 머드위를 달려라, 배낚시체험				
14:00~							
15:00~				무대 레크리에이션(기고만장, 고리던지기, 텀보)		해양인드서핑대회	
16:00~	Beach Ball						
17:00~				황토체험장, 골프, 서핑, 머드위를 달려라, 배낚시체험			
18:00~							
19:00~	레크리에이션			무대 레크리에이션(속초OX, 장기자랑)			
20:00~							
21:00~	개막공연	화합! 이미테이션	한여름밤의 음악대향연	젊음! ROCK FESTIVAL	도전! 해변가요제	사랑! Jazz concert	
22:00~		레이브파티			해변영화제!		

* 장사항오징어맨손잡기축제: 7월27일(수)~7월31일 * 전국인드서핑대회: 8월14일(일)~8월15일(월)

공연행사

❖ 화합! 이미테이션 / 8.10(수) 20:00
 이미테이션 프로댄스팀

❖ 한여름밤의 음악 대향연 / 8.11(목) 20:00

❖ 젊음! Rock festival / 8.12(금) 20:00
 인디밴드공연

❖ 도전! 해변가요제 / 8.13(토) 20:00
 개그맨이 MC진행을 하고 예선후 15팀 참가

❖ 사랑! Jazz Concert / 8.14(일) 20:00
 뉴얼리언스급, 웨이브클럽 공연



부대행사

❖ 밤이면 밤마다 레이브파티
 / 8.9(화) ~ 8.11(목) 공연행사 이후 늦은시간
 공연프로그램 일정이 끝난 후 락카페 분위기 연출

❖ 사진공모전, 행사후기 공모전 / 행사 후 인터넷게재

❖ 해변영화제 / 8.12(금) ~ 8.14(일) 23:00~24:00
 아름다운 속초 바닷가에서 영화속으로....

❖ 그래피티 / 8.10(수) ~ 8.14(일)
 관광객들이 직접 해변 일대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체험

❖ TATOO Service / 8.10(수) ~ 8.14(일) 13:00~17:00
 관광객들에게 속초의 상징물이 새겨진 타투 서비스 제공



사진으로 / 보는

2005 문화원 / 동경





속초문화원

제10대, 제11대 문화원장 이·취임식

지난 2월 25일 11시,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제10대 최용문 문화원장 이임식과 제11대 노광복 문화원장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문화가족을 비롯 동문성 속초시장, 김정한 의회의장, 이대근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장, 정호돈 강릉문화원장, 고경재 양양문화원장 등 각급기관단체장 및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취임식장은 그동안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최용문 원장께 공로패와 감사패, 회원들이 준비한 기념품 등의 전달과 함께 아쉬움을 더했다.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노광복 문화원장은 이임식에 비중을 두어 떠나시는 전임원장의 뜻을 더하는 자리가 마련돼 참석한 모든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40년의 문화발전에 한 획을 긋는 문화원장 취임식으로 기억되었다.



- 일 시 : 2005년 2월 25일(11:00)
- 장 소 : 속초문화회관 소강당
- 제10대, 제11대 문화원장 이·취임식
 - 제10대 속초문화원장 최용문 이임
 - 제11대 속초문화원장 노광복 취임
 - ▷ 이임식
(전임원장 주요공적소개, 감사패 전달, 꽃다발 증정, 이임사)
 - ▷ 취임식
(경과보고, 신임원장 약력소개, 꽃다발증정, 문화원기 전달, 취임사)
 - ▷ 축사(속초시장, 속초시의회의장)

2월 각 학교 졸업식장에서 시상

2005년 효행청소년 시상



본원에서는 지난 2월 각 학교 졸업식장에서 관내 15개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탁월한 학생을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사회봉사 실적이 뛰어난 청소년 15명에 대하여 효행 청소년 시상을 수여하여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에 기여하였다.

효행청소년 명단

학 교	표창대상자	학 교	표창대상자
교동초등학교	안 수 민	중앙초등학교	서 하 닉
대포초등학교	김 진 해	청대초등학교	홍 지 영
설악초등학교	정 예 술	청호초등학교	김 범
소야초등학교	한 송 이	설악여자중학교	김 윤 정
속초초등학교	김 유 리	속초여자중학교	박 선 아
영랑초등학교	이 유 나	설악중학교	정 승 익
온정초등학교	이 대 섭	속초중학교	최 지 현
조양초등학교	하 연 주		



제25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우리민족 최대의 세시풍속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이 지난 2월 23일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에서 1만여 시민 및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민속놀이 한마당은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속초·고성·양양새마을금고연합회, 속초시수협, 속초신협, 속초·양양축협, 설악한화리조트,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갯마당 공동주관으로 우리 민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한마당 잔치로 장식했다.

또한 체험과 더불어 행사장을 찾은이들에게 한해 운수풀이와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서예교실 수강생들이 가훈씨주기 행사를 개최하여 더욱 발전된 행사로 개최되었다.



행 사 내 용

행사종목	경 연 부 문	주 관
연날리기	방패연, 가오리연 날리기, 제작부문	속초시 수협
제기차기	농고차기, 들고차기 합계	설악한화리조트
널 뛰 기	단체전(3인 1조) 널뛰기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웃 놀 이	단체전(3인 1조), 성별 제한 없음.	속초신협
투 호	단체전(3인 1조), 여자경기	속초양양축협
떡메치기	동대항전 경기	새마을금고 연 합 회
지신밟기	횃불행진, 농악공연 등	갯 마 당
가훈씨주기	행사장에 찾아온 시민 및 관광객 대상	속초문화원
한해운수보기	행사장에 찾아온 시민 및 관광객 대상	속초문화원
액집태우기	액집 태우기 1개소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부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지정된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문화학교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2005년 제13기생

- 입교식 2005년 3월 14일
- 수료식 2005년 12월 2일



운영과목

장구교실(초급)	월, 목 / 10:00~12:00	강사 : 김태희
사물놀이	월, 목 / 13:00~15:00	강사 : 주동진
전통요리	수 / 10:00~12:00	강사 : 김병학
서예교실	화, 금 / 10:00~12:00	강사 : 지응준
노래교실	화, 금 / 13:30~15:30	강사 : 최봉하, 이근순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속초시 영랑동 570-5
 문의전화 632-1231/639-2439
 전자우편 sc2439@sokcho.org



2005 청소년 전통국악전수교육

청소년 전통국악전수교육은 2000년부터 매년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 전통민속문화 관람 및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 회복과 지역 향토사랑의 기회로 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되고 학교교육에서도 풍물 및 전통예술 과목이 활성화 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문화적 감성보다 주입식 입시 교육과 과외 공부에 억눌려 풍부한 문화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국악전수교육은 우리 전통문화를 보고, 느끼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관람을 통한 그 생활 속에 우리문화의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화한마당으로서 뜻을 다하고 있다.



- 사업기간 : 2005년 3 ~ 12월
- 주 최 : 속초시·속초문화원
- 후 원 : 강원문화재단
- 사업장소 : 관내 18개 학교
- 내 용 :
 - 교육주기 및 횟수 : 주1회, 24회 이상
 - 교육장소 : 공연, 놀이-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전시관람-향토사료관
 - 교육시간 : 일일 3시간 이상
 - 회당 교육인원 : 회 200명 내외
 - 민속놀이 : 제기차기, 굴렁쇠, 팽이치기, 투호, 줄넘기, 널뛰기
 - 전통음악 감상 및 배우기
 - ▷ 풍물놀이 시연 - 사물놀이, 상모판굿
 - ▷ 전통춤 배우기 - 소고춤, 봉산탈춤





제10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속초문화원 사물놀이 주부풍물단 은상 수상



지난 7월 6일 오후 1시,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하고 정선문화원이 주관한 제10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도내 18개문화원에서 운영중인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로 그 의미를 더했다.

속초문화원 사물놀이 주부풍물단은 매년 새로 구성하여 참가해 대상, 최우수상, 은상, 동상 등 각종 상을 수상

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장구초급에서 갓 올라간 주부들로 구성, 그 실력을 입증 받아 은상에 머물렀지만 향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대회라는 의미보다 강원도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그 뜻을 더하며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6·25 동란 원혼 천도 및 백두대간 산불방지를 위한 축원굿 한마당

2005년 6월 25일 오후5시 속초시 설악해맞이공원 야외무대에서 속초문화원과 전통예술신문이 주최하고 이상희 축제굿연구회에서 주관한 6·25동란 원혼 천도 및 백두대간 산불방지를 위한 축원굿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속초라는 특성상 6·25 동란 중 아픔을 당한 영가천도 및 백두대간 산불방지 국운 융성을 위한 천도제 행사로 종교성이나 의식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공동체화 하는 축제로 문을 열어 그 의미를 더했다.



2005 제9회 강원도 청소년 여름풍물학교

기간 : 2005년 7월 25일~7월 30일

장소 : 속초시 청소년수련관

주최 : 속초문화원

주관 :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후원 : 속초시, 강원문화재단



■ 강좌 및 내용

□ 일반강좌

- | | | |
|-------|-----|-------------------------|
| 풍물기초반 | 김소희 | 악기의 기본타법 및 가락의 구성과 실기 |
| 사물놀이반 | 주동진 | 사물놀이의 구성원리 및 장단운용의 실제 |
| 설장구반 | 전성호 | 설장구가락익히기 및 장단의 변형과 운용 |
| 판굿반 | 김동연 | 기본 너름새 익히기, 판굿 구성의 기본원리 |
| 상모반 | 김태희 | 기본너름새와 발마치, 소고놀이 기본 |
| 상모판굿반 | 박치영 | 기본너름새와 발마치, 진풀이와 개인놀이 |
| 취타반 | 장홍렬 | 대취타 배우기(진법, 곡연주) |
| 소금반 | 이동준 | 운지법 및 곡연주 |
| 가야금 | 윤중림 | 운지법 및 곡연주 |

□ 공통강좌

- | | | |
|---------|-----|--------------------------|
| 단소/민요 | 김소희 | 단소 운지법과 소리내기, 곡연주 |
| 탈춤 및 택견 | 박현기 | 기본 몸풀기, 탈춤 기본무, 택견 기본 품새 |

2005 어린이 방학 문화프로그램

2005. 8. 1 ~ 8. 12 (2주간) 속초문화원



2005 청소년 여름방학교실

신나는 여름방학 기간 중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여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역 문화에 대한 애착심과 전통민속문화를 보고 느끼는 자리로 마련되어 또다른 향토문화의 맥을 잇는 장이 되었다.

- 사업기간 : 2005년 8월 1일 ~ 12일
- 사업주최 : 속초시 · 속초문화원
- 사업장소 : 속초문화회관 소강당 및 문화사랑방
- 내 용 :
 - 문화프로그램운영
 - 어린이 장구초급 교실, 단소교실, 전통 춤 배우기, 풍선아트, 문화답사
 - 어린이 문화교육단 1기 30명



2005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

2005. 7. 9 ~ 8. 20

장소 : 설악해맞이공연 야외공연장

주최 : 속초시

주관 : 속초문화원

후원 : 강원문화재단

협찬 : (주)화진화장품

작은음악회

Mini Concert

설악해맞이공원

날	짜	시 간	행사내용 및 출연
7.9	토	19:30~22:00	전통상설공연 전통무용 색소폰 · 락그룹
7.23	토	19:30~22:00	힙합댄스 · 색소폰 주부풍물단 통기타 전통상설공연
7.24	일	19:30~22:00	전통상설공연 힙합댄스 · 색소폰 통기타 · 품바 공연
7.28	목	19:30~22:00	전통상설공연 힙합댄스 22사단군악대 품바공연
7.30	토	19:30~22:00	전통상설공연 고구려예술단 통기타 공연 · 품바 공연
7.31	일	19:30~22:00	전통상설댄스 힙합댄스 · 주부풍물패 색소폰공연 · 통기타 공연 품바 공연
8.1	월	19:30~22:00	전통상설공연 힙합댄스 · 색소폰 공연 초청가수(안치환) 통기타 공연
8.9	화	19:30~22:00	전통무용 · 주부풍물단 락 공연 · 지역가수(최평심) 전통상설공연
8.11	목	19:30~22:00	전통상설공연 힙합댄스 · 색소폰 공연 통기타 공연 · 품바 공연
8.13	토	19:30~22:00	전통무용 색소폰 · 통기타 공연 락그룹 전통상설공연
8.14	일	19:30~22:00	주부풍물단 힙합댄스 · 색소폰 공연 통기타 · 지역가수(최평심) 전통상설 공연
8.20	토	19:30~22:00	전통상설 공연 힙합댄스 · 색소폰 공연 통기타 공연 품바 공연



▲ 갯마당 전통상설공연



▲ 힙합댄스



▲ 통기타와 함께



▲ 락그룹 공연

제11회 강원도민의 날

속초시민 화합한마당



평화와 통일
그리고 관광의 중심

2005. 7. 16(토) 오후 7:30

청초호 유원지내 상징탑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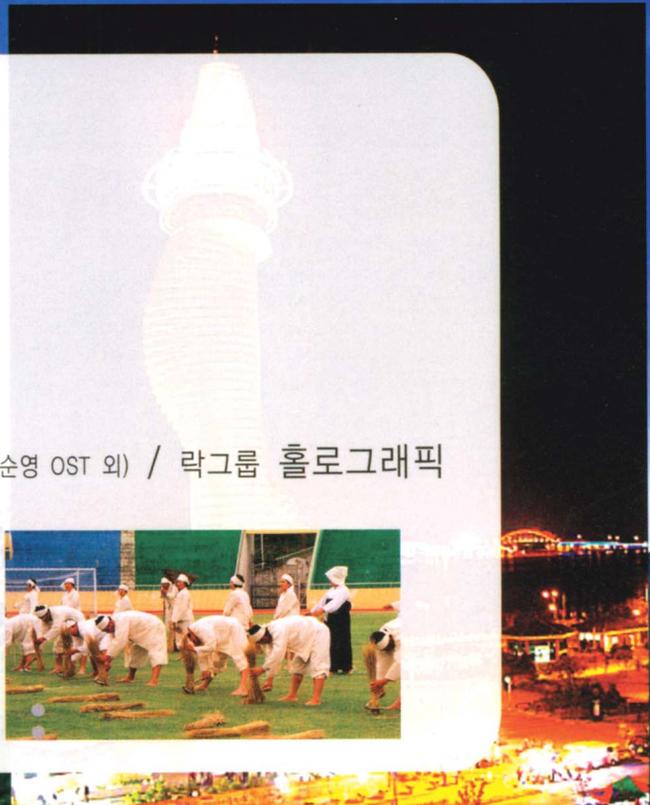
속초

출/연/진

강원의 소리를 찾아서
● 도문메나리농요 보존회

국악공연
● 고구려예술단/갯마당

초청가수공연
● BMK(꽃피는 봄이 오면 외) / 김길중(오! 필승 봉순영 OST 외) / 락그룹 홀로그래픽



■ 주최 :  속초시 ■ 주관 :  속초문화원 ■ 후원 :  강원도
■ 문의처 : 632-1231/639-2439 (속초문화원)

신나는 음악세상!
음악 판타지아 2005!

대한민국 음악축제

KOREA MUSIC FESTIVAL

2005.8.1(월)~8.8(월)

2005

IN SOKCHO



청초호 엑스포상징탑 광장에서
오후8시부터 공연합니다.

- 7.26 : 비나리(빈순애) / 도문메나리 농요 / 강원도립예술단
- 7.27 : 타악그룹(광명 두두락) / **철가방프로젝트**
- 7.28 : 정선아리랑예술단 / 사물놀이, 판굿(갯마당)
- 7.29 : 일렉퓨전 F,Sharp / **초청가수(JK김동욱)** / 색소폰(최경복)
- 7.30 : 두드리주부패 / 상상놀이단 / 통기타 공연
- 7.31 : 고구려예술단 / **초청가수(안치환)** / 색소폰(최경복)
- 8. 3 : 초청가수(최평심) / 퍼니밴드 / **락 공연**
- 8. 7 : 설악팝스 / 갯마당 공연



대한민국 음악축제 2005 설악미니콘서트 &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 비나리



▲ 강원도립예술단



▲ 정선아리랑



▲ 초청가수 안치환

▼ 고구려예술단



■ 상상놀이단



40th
설악문화제

경축! 설악문화제 40돌

설악의 북계 타고르는 단풍과
청명한 10월의 가을하늘 아래
설악공룡초와 선돌의 일의 임원아는
여울림의 잔치가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설악문화제

2005

2005. 10. 14(금)~10. 16(일), 3일간

설악문화제위원회
T.(033)632-1231, 639-2439

장소 • 청호습유원지 및 설악산 일원 주최 • 설악문화제위원회 · 속초시
후원 • 각급 기관 · 단체, 기업체, 학교 등 협찬 • JINRO (사)세종예술훈음악협회



용왕제 용왕제는 풍어굿을 겸하는 데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풍어제와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사고 없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례로 잊혀져 가는 우리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행사입니다.

통일대제 (2005.10.14/11:00~12:00)

- 내 용 : 하늘에 통일을 기원하는 제례
- 장 소 : 권금성 봉화대
- 제 관 : 삼헌(초헌, 아헌, 종헌관)

산신제 (2005.10.14/13:30~14:30)

- 내 용 : 산악인의 무사고와 시민의 안녕기원
- 장 소 : 설악산소공원(산신제단)
- 제 관 : 삼헌(초헌, 아헌, 종헌관)

용왕제 (2005.10.14/15:30~16:30)

- 내 용 : 어민의 무사고와 풍어기원
- 장 소 : 설악해맞이공원
- 제 관 : 삼헌(초헌, 아헌, 종헌관)

위패봉송 (2005.10.14/16:30~18:30)

- 내 용 : 설악산신 및 용왕신 위패봉송
- 소공원 → 해맞이공원 → 행사장(굿당):차량봉송
- 성황신(조양동)위패봉송:조양동 성황당 → 행사장(굿당)

망향제 (2005.10.14/17:00~18:00)

- 내 용 :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시민의 안녕기원
- 장 소 : 동명동 수복기념탑
- 제 관 : 삼헌(초헌, 아헌, 종헌관)

제등행렬 (2005.10.14/18:00~19:00)

- 구 간 : 수복탑광장~행사장
- 참여학교: 여학생 400명, 군악대, 제관 및 무속인, 속초초교취타대, 마상무예단, 도리원농악대, 영랑초등학교악부, 조양초등학교악대, 속초상고관악부, 행사장 도착 후 개회식 및 통일여원의 밤 행사관람

삼신합동제 (2005.10.14/18:30~19:00)

- 구 간 : 설악산신, 동해용왕신, 조양동 성황신 봉안 제례
- 장 소 : 행사장 제례당
- 제 관 : 삼헌(초헌, 아헌, 종헌관)

조전제 (2005.10.15~10.16/09:00~09:30)

- 내 용 : 봉안 삼신 조전의식
- 장 소 : 행사장 제례당
- 제 관 : 단헌

송신제 (2005.10.16/18:30~19:00)

- 내 용 : 송신제
- 장 소 : 행사장 제례당
- 제 관 : 삼헌(초헌, 아헌, 종헌관)

제례굿 (2005.10.14~10.16)

- 내 용 :
- 10.14/14:00~산신맞이굿, 동해안별신굿 등
- 10.15~16/09:00~20:00 동해안별신굿17마당
- 장 소 : 행사장 굿당



통일염원제전

민족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안고 축제 첫날에는 김금성 봉화대에서 통일염원대제가 개최되며 제례 후 야간에는 청초호유원지 행사장에서 인기가수와 통일을 향한 사계 영상물과 함께하는 통일염원의 밤이 개최되어 실향민의 애환을 달랜다. 둘째날에는 행사장에서 실향민의 애환을 상징하는 갯배 끄기대회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되며, 축제기간중에는 8도음식과 6.25전쟁 회상음식 만드는 방법을 배우며 시식하는 실향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통일염원의 밤 (2005.10.14/19:00~22:00)

- 내 용 : - 식전행사(19:00~19:30) : 평양민족예술단
- 개회식(19:30~20:00)
- 통일염원의 밤 행사(20:00~22:00)
속초의 수려한 사계절의 자연환경과 통일염원을 주제로 구성
김혜영, 남일해, 신형원, 이선희
테너 우영훈, 메조소프라노 김문수 (반주 : 정인혜)
설악엔젤스 합창단, 출연자 모두와 함께
(전야 불꽃놀이 21:30~21:35 500여발, 청초호변)
- 장 소 : 청초호유원지상설 이벤트장

갯배끄기대회

실향민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며 축제의 흥을 돋구는 체험행사이며 KBS 인기드라마인 가을동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갯배를 누가 먼저 가장 빨리 끄는지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갯배끄기대회 (2005.10.15~10.16/13:00~14:30)

- 방 법 : 10.15 동대항 토너먼트(10명 1조)
10.16 속초거주 7도 청년회 대항경기 및 관람객 체험
- 내 용 : 모형 갯배 2대로 경연 및 체험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관 : 통일염원제전추진위원회

8도음식시식 (2005.10.15~10.16/11:00~18:00)

- 내 용 : 8도 음식 전시 및 시식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통일풍선나눠주기 (2005.10.15~10.16/11:00~18:00)

- 내 용 : 통일기원 풍선, 아트풍선 나눠주기,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설악산악제전

축제 둘째날, 설악산 소공원 산악인의 문 앞에서는 설악산에서 숨겨진 산악인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가 자유분방으로 이루어지며, 축제 마지막날에는 시민·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통일영원을 담은 단풍 등산축제가 단풍이 절정에 이른 오색으로부터 설악산 대청봉, 천불동계곡, 소공원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되며, 등산축제가 끝난 후 설악산야영장에서는 모두 모인 가운데 산악인 한마음잔치가 흥겹게 펼쳐진다.

산악인추모제 (2005.10.15~10.16)

- 내 용 : 추모분향 및 헌화
- 장 소 : 소공원 산악인의 문
- 방 법 : 자유분향

등산단풍축제 (2005.10.16/06:30~19:00)

- 내 용 : 자연사랑 산행 병행
- 장 소 : 출발 - 오색매표소, 도착 - 설악동 야영장
- 참 가 : 전국산악회 및 개인
- 집 수 : 설악산악연맹
- 코 스 : 오색-대청봉-희운각산장-천불동계곡-소공원-야영장

한마음큰잔치 (2005.10.16/19:00~20:00)

- 장 소 : 설악산 야영장

산악인 한마음잔치 산을 즐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설악의 웅장한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이며 신명나는 레크레이션과 사물놀이가 산행에 지친 산악인들의 몸과 마음에 활을 더해줍니다.



해양문화제전

해양문화제전은 푸른 동해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생업활동을 경기화하여 재미를 더한 행사이다. 속초수협과 어촌계에서 범선노젓기, 로프던지기, 오징어할복경기가 행사장에서 펼쳐지며 속초지역에서 나는 해산물과 건어물의 시식과 판매센터가 만들어진다. 행사기간중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어선에 무료승선하여 어민의 삶을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되며, 시민·관광객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다.



어선승선무료체험

고기잡이배를 타고 선상에서 설악산과 청초호를 유람할 수 있는 체험행사로 속초어민들의 애환과 삶을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해양문화제전중의 하나입니다.

범선경기 (2005.10.15/13:00~14:00)

- 내 용 : 범선을 이용 출발점에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
- 장 소 : 청초호
- 선 수 : 각 어촌계별 2명씩 출전
- 범 선 : 각 어촌계별 1척(범선 8척)

로프던지기 (2005.10.15~10.16)

- 내 용 : 반지름 1m 원안에서 2회 투척하여 거리를 합산
10.15 14:00~15:00 어촌계별 던지기대회(어촌계별 2명)
10.16 10:00~12:00 동대항 던지기대회(동별 2명)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든대질놀이 (2005.10.15/15:10~16:00)

- 내 용 : 준비한 범선에 2명의 선수를 태우고 든대를 이용 15m 거리를 빨리 이동하는 경기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선 수 : 각 어촌계별 6명씩 출전

오징어할복경기 (2005.10.15/16:10~17:00)

- 내 용 : 오징어를 할복 및 건조(건조대에 건조완료)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선 수 : 각 어촌계별 2명씩 출전

어선승선무료체험 (2005.10.15~10.16/11:00~15:30)

- 내 용 : 어선5척에 6~7명씩 태우고 청초호내 선회
※1일 어선 한척당 10회 이내 운영
- 장 소 : 청초호(승선:분수광장 뒤편)



설악예술축전

거리 시화전, 속초지역 사진작가 및 훈춘시 촬영가협회 초청 사진전, 분재전시회, 꽃꽃이전시회, 우리꽃전시회, 설악서예백일장, 설악가요제, 설악아동화거리 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행사로 개최되며, 야생화 꽃누루미로 열쇠고리를 직접 제작해 보는 시민 참여행사의 장도 마련된다. 행사장 무대에서는 중국 훈춘 해당화예술단의 공연과 흥겨운 국악초청공연이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이다.



거리 시·화전 (2005.10.14~10.16/09:30~20:00)

- 출품인원 및 작품 : 출품작 40점 전시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전시장

2005 설악가요제 왕중왕전 (2005.10.15/20:00~21:30)

- 내 용 :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예심을 통해 본선 경연대회

설악아동화거리축제 (2005.10.14~10.16/10:00~21:00)

- 전시물 : 전시품선 그림그리기 및 점토놀이 교실운영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전시장

설악서예백일장 (2005.10.15/14:00~18:00)

- 참가범위 : 초등부 1/4절, 중등부 1/2절, 성인 1/2절
- 참가부문 : 한글, 한문, 사군자부
- 장 소 : 속초중학교 체육관

속초사진협회전 (2005.10.14~10.16/09:00~19:00)

- 내 용 : 향토사진작가의 작품전시
- 전시물 : 출품자 15명 내외 출품작 40점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전시장

훈춘 촬영가협회 사진전 (2005.10.15~10.16)

- 전시물 : 중국 훈춘시 자매도시 출품작 40점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전시장

도자기체험교실 (2005.10.14~10.16)

- 내 용 : 도자기 공예 시연·체험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전시장



훈춘시 해당화예술단 초청공연

(2005.10.15~10.16)

- 공연일정 : 10.15 / 19:00~20:00,
10.16 / 20:30~21:30
- 공연내용 : 무용, 여성독창, 트럼펫연주,
여성중창, 기악합주 등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분재전시회

(2005.10.14~10.16/10:00~20:00)

- 내 용 : 분재작품 전시 및 안내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개장식(2005.10.14/11:00)

꽃꽂이전시회

(2005.10.15~10.16/10:00~19:00)

- 내 용 : 꽃 예술작품 전시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제8회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2005.10.14~10.16)

- 내 용 : 우리 꽃 우수작품전 및
우리 꽃 모종 무료배부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전시장

꽃누르미체험및전시

(2005.10.15~10.16/10:00~20:00)

- 내 용 : 압화 체험 및 전시
(출품작 200여점 전시)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디지털(가족)사진 무료촬영

(2005.10.15~10.16/10:30~17:30)

- 대 상 : 희망관광객 및
시민에게 무료 사진촬영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전통국악인 초청공연

(2005.10.16/19:00~20:00)

- 내 용 : 농악 및 타악 퍼포먼스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전통오색한지공예 전시및체험

(2005.10.15~10.16/11:00~20:00)

- 내 용 : 전통 오색 한지공예 전시 및
체험(한국공예진흥원)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설악예술축전



청소년문화축전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우리민족의 전통음악인 사물놀이와 농악 경연대회인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 한마당이 상설공연장에서 저마다의 기량을 펼쳐보이며, 강원도청소년댄싱경연대회도 개최되어 흥겨운 음악과 함께 청소년들의 어울마당이 신명나게 펼쳐진다.

2005 전국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2005.10.15~10.16)

- 내 용 : 전국 청소년 대상 풍물겨루기 대회
- 일 정 : 10.15 /11:00~17:00 사물경연, 10.16 /10:00~14:00 농악경연
- 대 상 : 전국 초·중·고교생, 만19세 이하 청소년
- 부 문 : 사물놀이(앉은반, 선반-15명 내외), 농악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보조이벤트장(야구장)

2005 강원도청소년 댄싱경연대회 (2005.10.16/14:00~18:00)

- 내 용 : 도내 청소년 대상 댄싱 경연대회
- 대 상 : 강원도 내 중, 고교생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보조이벤트장(야구장)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2005.2005.10.15~10.16/13:00~17:00)

- 내 용 : 지역 청소년 대상 길거리 농구대회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농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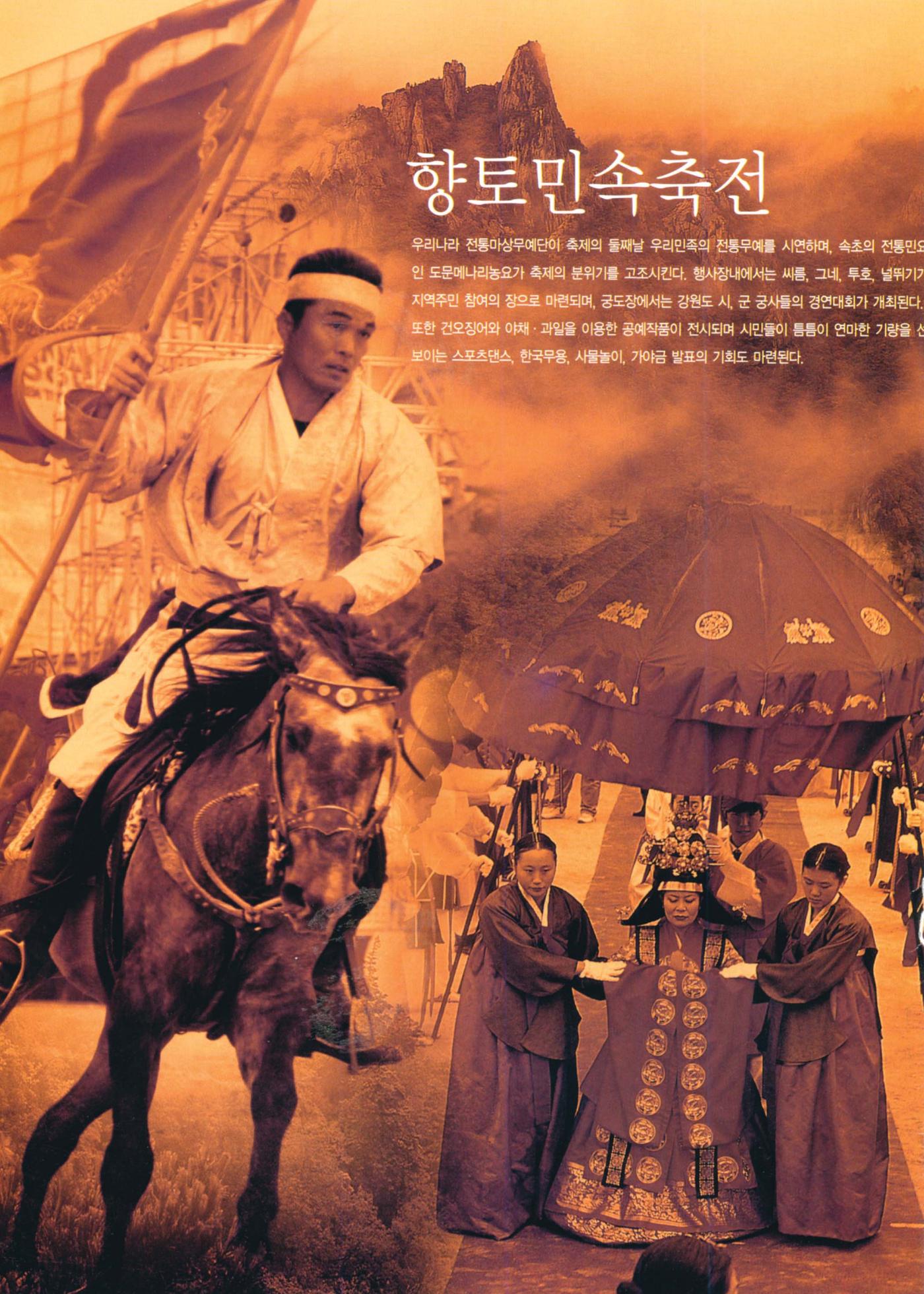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한마당

우리의 문화를 가꾸고 보존해 나갈 주역인 청소년들이 신명나는 풍물겨루기한마당으로 우리고유의 문화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토민속축전

우리나라 전통마상무예단이 축제의 둘째날 우리민족의 전통무예를 시연하며, 속초의 전통민요인 도문메나리농요가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행사장내에서는 씨름, 그네, 투호, 널뛰기 등 지역주민 참여의 장으로 마련되며, 궁도장에서는 강원도 시, 군 공사들의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또한 견오징어와 야채·과일을 이용한 공예작품이 전시되며 시민들이 틈틈이 연마한 기량을 선보이는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사물놀이, 가야금 발표의 기회도 마련된다.





도문메나리농요시연

속초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전통 민속 경기로 애향심과 우정을 다지는 다양한 민속경기와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문화관광부상 수상작인 도문메나리농요시연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축제의 흥겨움을 더해 줍니다.

마상무예시연 (2005.10.15/10:00~10:30)

- 내 용 : 전통 마상무예단 초청 전통무예 시연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관 : 마상무예협회

도문메나리농요시연 (2005.10.15/10:30~11:00)

- 내 용 : 속초지역의 전통 노동요 발굴과 전승으로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후 지역의 문화재로 전승유지 및 활동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관 : 도문메나리농요보존회

그네 (2005.10.15/10:00~17:00)

- 내 용 : 동별 예선전(단체전) 8개동 토너먼트(4경기) 단체 결승전(2경기), 단체 결승전(2경기), 개인전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관 : 여성단체협의회

널뛰기 (2005.10.15/14:00~15:00 예선, 16:00~17:00 결승)

- 내 용 : 동대항 단체, 개인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관 : 속초농협

씨름 (2005.10.15~10.16/10:00~15:00)

- 내 용 : 1일차 - 단체예선, 2일차 - 결승전 및 개인전 - 단체 및 개인전(남여 각 3명)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관 : 속초씨름협회

궁도대회 (2005.10.15/09:00~19:00)

- 내 용 : 강원도 남, 녀 궁도대회(단체전, 개인전)
- 장 소 : 종합경기장 내 설악정 • 주 관 : 속초시 궁도협회

진오징어·과일·야채공예전시회

(2005.10.15~10.16/09:00~21:00)

- 내 용 : 오징어 상품화 및 과일, 야채조각 전시회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불꽃놀이 (2005.10.16/21:30~21:35)

- 연화 1,500발 • 장 소 : 청초호변

판줄 공연 (2005.10.16/ 10:30~11:00)

- 내 용 : 줄타기 공연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관 : 줄타기보존회

시민강좌발표회 (2005.10.16/11:00~14:30)

- 내 용 : 3개기관 8종목 수강생 발표회
- 주민자치센터 : 스포츠댄스(4개동), 기체조, 장구(민요)
- 여성교육문화센터 : 스포츠댄스, 장구춤, 통기타, 가야금
- 속초문화원 : 장구, 설장구
- 11:00~12:00 스포츠댄스, 장구춤, 기체조, 장구(민요)
- 13:00~14:30 스포츠댄스, 기체조, 통기타, 가야금, 장구, 설장구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게이트볼대회 (2005.10.15~10.16/09:00~17:00)

- 내 용 : 동 대항전(10.15-예선, 10.16-결선)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B구장
- 주 관 : 속초시생활체육협의회

자통놀이 (2005.10.16/13:00~14:00)

- 내 용 : 자치기와 톱질을 합친 동대항 경기
- 참여인원 : 동별 6인1조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관 : 해병전우회

줄다리기 (2005.10.16/14:00~15:00)

- 내 용 : 동대항 토너먼트(동별 남20, 여10명)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투호 (2005.10.15/11:00~13:00예선, 16:00~17:00결승)

- 내 용 : 동대항 단체전(여자5명)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관 :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전통떡매치기 (2005.10.16/15:00~17:00)

- 내 용 : 주어진 시간에 찹쌀을 찌고 메를 쳐서 떡을 고르게 만드는 경기(동대항 떡매치기 경연대회 후 체험행사 운영)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관 : 새마을금고연합회

전통통과의례상차림 (2005.10.15~10.16/09:00~21:00)

- 내 용 : 전통 통과의례 상차림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제40회 설악문화제 기념

2005 전국청소년 풍물겨루기 학마당

일시 : 2005년 10월 15~16일 (10. 15 - 사물놀이, 10. 16 - 농악경연)

장소 :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상징탑광장

주최 : 설악문화제위원회, 속초문화원

주관 : 한국국악협회 속초시지부, 갯마당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속초교육청, 동국대학교

구분	훈격	수상구분		
		초등부	중·고등부	농악부문
종합대상	강원도지사상			구미오상고등학교
장 원	동국대학교총장			문산제일고등학교
장 원	강원도교육청	청주덕성초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차 상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속사초등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영서고등학교
차 하	강원도속초교육청			성산초등학교
차 하	속초시장	원통초등학교	속초여자중학교	
장 려	전국문화원연합회장	공현진초등학교	강현중학교	공현진초등학교
특별상	설악문화제위원장	용대초등학교	속초상업고등학교	
			속초고등학교	
특별상	속초문화원장	거성초등학교	나전중학교	
		조양초등학교	속초중학교	
지도상	강원도교육청	오상고등학교(장인현)		
계		21개교		



2005 졸업생을 위한 특강 “친구랑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

지난 12월 12일 10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속초문화원이 주최하고 속초시와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2005 졸업생을 위한 특강 “친구랑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이 펼쳐졌다.

본 행사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여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답소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학진학 진로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관내 3개고교 예비졸업생 9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윤근 속초문화원 부원장의 「일본속의 한국문화와 한국어의 일본어에 미친 영향」이란 주제의 특강에 이어 갯마당의 판굿과 락그룹 ‘시베리안 허스키’ 초청공연, 속초시에서 마련한 금관합주단 ‘퍼니밴드’ 공연으로 이어져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속에 수준 높은 행사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에게 지역문화사랑의 기회를 심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2005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2005년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제13기 수료식이 12월 2일 속초시립박물관 강당에서 동문성 속초시장과 김정한 속초시의회의장을 비롯해 회원 및 수료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서예교실 수강생들의 작품 35여점이 전시된 기획 전시실에서 개전식을 갖고 이어 수료식은 문화관광부장관 명의 수료증과 우수수강생 표창, 5개 강좌 장구, 사물, 노래, 서예, 전통요리 교실 수강생 1~2차 400여명을 시상했다. 또한 수료식 이후 장구, 노래, 사물놀이 교실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박물관 로비에서는 요리교실 수강생들이 배운 요리중에서 40여가지를 전시하여 풍성한 배움의 자리로 마련됐다.

속초문화원 부설 문화학교는 1993년 향토문화학교로 문을 열어 장구와 사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개설,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1998년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로 지정받고 13여년간 3,200여명의 수료생을, 또한 2만여명 문화가족에게 문화향수권을 제공한 명문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慶祝

한국문화학교 제13기생 수료식 및 발표회

기간 : 2005. 12. 2(11:00) 장소 : 속초시박물관 강당 주최 : 속초문화원 후원 : 문화관광부, 속초시

급이실려
초물놀이
장사노래
전통





북청사자놀음 전수 받고 있어요.

지역의 문화정통성을 되찾고 민속문화 전승지의 의미를 되새겨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을 전수 받고 있다.

북청사자놀음 전수는 1차 정규 전수단을 문화원 회원, 함경도속초지구청년회, 갯마당단원 등 30여명으로 선발, 전수교육을 받았으며, 추후 뜻을 같이하는 회원 및 일반시민을 지속적 모집하여 전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서울의 북청사자놀음 보존회와 협의 후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사자탈 제작 과정부터 북청사자놀음 전과장 전수까지 추진하여 일부 전수를 마치고 2006년까지 전과장을 전수받을 계획이다.

북청사자놀음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민이 유입되면서 1950년대 말부터 함경남도 사람들에게 의해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오던 전통문화로 전승지가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 의미를 되새겨 지역문화 되찾기 전승계획에 의거 추진한 사업으로 그 뜻을 더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 풍류극장에서 통소연구회와 함께 그동안 전수받은 과정을 공동연주 발표하고 있다.





도문메나리농요 보존회 결성, 본격 활동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지속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노력으로 인해 지난 4월 도문메나리농요보존회(회장 오순석)가 구성되었다.

7월 5일 오전 11시 30분 상도문 마을회관에서 도문메나리농요 보존회 현판식 및 학무정 운동장에서 발표회를 가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60여명의 상도문리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도문메나리농요보존회는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놀이 발굴로 지역의 향토민속예술

의 보존과 전승차원에서 뜻깊은 의의를 지니며, 매주 2회 마을회관에 모여 꾸준히 도문메나리농요 전수에 힘을 쏟고 있다. 메나리농요 전수에 참가하는 마을주민들은 무엇보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소리를 잊혀지지 않게 내가 배우고 후손들에게 전해 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땀방울을 흘리며 전수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속초도문메나리농요는 지난 2003년 제20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서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강원도 대표로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속초문화원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문화원연합회와 국무총리복권위원회로부터 통합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우리문화를 찾아 떠나는 문화여행”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문화적 감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산재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방문화에 대한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장이 되었다.

2005년도 속초문화원 통합복권기금 지원 사업 “우리문화를 찾아 떠나는 문화여행”





1차 국민기초수급대상 문화유적답사

- 기간 : 2005. 7. 23 09:30~18:00
- 장소 : 영월(장릉, 청령포, 김삿갓전시관)
- 참가인원 : 84명

2차 소년소녀가장대상 문화여행

- 기간 : 2005. 8. 12~13(1박 2일)
- 내용 :
 - 8. 12 : 우리 지역의 문화를 찾아서 석봉도자기, 영랑호화랑도체험관, 청호동아바이마을, 상도문마을회관
 - 8. 13 : 함께 떠나요. 문화답사 강릉오죽헌, 삼척 강원종합박물관, 환선굴 탐사
- 참가인원 : 45명





지난 11월 22일 오후 2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속초문화원이 주최하고 설악동우회가 후원한 박광수 초청 문화강좌 “손으로, 색으로 치유한다.” 행사를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강연, 2시간 시연으로 개최했다.

2005 속초문화원 문화강좌 개최

“손으로 몸을 알고, 색으로 병을 고친다.”





속초시 인조잔디 축구장 준공



속초시는 지난 22일 공설운동장내 인조잔디축구장에서 속초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주요기관·단체장, 체육·교육계 관계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조잔디 축구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인조잔디 축구장은 주변정비를 포함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앙동 현 공설운동장내에 인조잔디 축구장 1면, 풋살 경기장 1면, 반코트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등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지난 5월 10일 착공이래 7개월여만에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속초시는 웰빙문화 확산과 함께 스포츠 활동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시민의 여가선용 등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합운동장 일대에 스포츠 타운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40여억원 들여 약 700평 규모의 종합다목적체육 시설인 국민종합체육센터를 종합운동장 인근에 시설하기로 하고 부지확보 및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 시설들이 준공되면 시민을 비롯한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전지훈련장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우재터널 개통식

속초시는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으로 지난 2003년 3월 18일 착공한 목우재 터널공사가 마무리돼 12월 2일 오후 2시 강원도지사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민 등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있었다.

총연장 980m(터널 610m, 접속도로 370m)에 노폭 9.5m의 2차선도로로 개설된 목우재 터널은 총 14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당초 2006년 5월 1일 완공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로 관광객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야간 2교대로 공사를 강행한 끝에 완공을 5개월여 앞당겨 조기 개통하게 되었다.

목우재 도로는 옛날부터 노학동 일대에서 생산된 양곡을 신흥사로 운반할 때 이 고개를 넘다가 우마에게 풀을 뜯게하며 휴식을 취했다하여 목우재로 유래됐다는 설이 있는 이 도로는 1976년 노임취로사업을 시작으로 비포장도로로 개설하게 되었으며, 그후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원 사업으로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 공사를 하여 현재까지 이용하여 왔다.

특 집

문 / 화 / 논 / 단

- 속초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방향과 전략
-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신 매곡선생에 대하여
- 속초만의 것을 살리는 관광연출
- 잠들지 않는 관광도시 속초를 꿈꾸며
- 광복 60주년을 맞이한 남과 북
- 애국지사 이석범
- 일본속의 한국문화와 한국어의 일본어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 불혹을 맞이한 설악문화제
- 영랑정 정자 복원
- 속초시립박물관 개관
- 러시아 모스크바와 성페테르부르그를 다녀와서
- 중국 내 조선민족의 통소 역사 검토

속초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방향과 전략



강릉대 교수 · 강원도문화재위원
장 정 룡

- I. 머리말
- II. 속초전통문화의 자원화 논하기
 - 1. 전통문화의 개념과 자원화
 - 2. 전통문화 관광자원화의 목표
 - 3. 관광자원화 진단과 방향
- III. 속초전통문화의 자원화 틀짜기
 - 1. 자연자원의 상품화
 - 2. 실향민문화의 창조화
 - 3. 축제자원의 활성화
 - 4. 전통문화의 산업화
 - 5. 향토예술의 가치화
- IV. 속초전통문화의 자원화 만들기
 - 1. 영랑호 · 청초호 호수유람권
 - 2. 대포동 · 장사동 해양체험권
 - 3. 설악산 지역 산악휴양권
 - 4. 신흥사 일대 불교탐방권
 - 5. 속초시립박물관 관광타운권
- V. 속초전통문화의 자원화 이끌기
 - 1. 사업집행계획
 - 2. 특별추진사업
 - 3. 이벤트활성화
- VI. 맺음말



I. 머리말

속초시는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관광문화촌의 개관으로 명실상부한 환동해권 국제도시의 중심에 놓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역에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자원을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체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가야 하겠다.

속초에서 금강산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바닷길이 이어지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되었다. 머잖아 속초에서 기차를 타고 설악산을 거쳐 금강산과 백두산, 중국, 러시아를 통과하는 환상의 교통로가 개설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였고,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강원도를 찾는 내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자연경관관광이 지속됨으로 대부분 관광의 맛을 잃고 식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가 하면 외국인들도 중국, 홍콩 등 동남아로 행선지를 정해가고 있다.

설악권의 공동화 내지 폐허화로 자연환경을 점차 훼손되고 금강산과 백두산을 찾는 국내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속초시 전체 관광수익이 줄어들면서 인구의 역외유출이 발생하고 따라서 관광경기에 좌우되는 지역발전은 어려운 형편에 놓이고 있다. 천혜의 설악산과 온천, 바다, 호수를 끼고 있으며 실향민문화라는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속초시로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각계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의 체계적인 청사진은 몇 차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각론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총체적, 혁신적, 전략적 차원에서 속초지역 발전을 창출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속초에 무슨 문화가 있느냐?”고 반문하던 사람들이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관광문화촌을 다녀와서 수 천년된 조양동 유적의 돌도끼를 보고, 6·25때 헤어진 형제를 다시 찾은 듯 반색하며 추억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실향민촌에서는 이북 5도의 집안에 전시된 자료들을 어루만지며 북에 두고 온 형제들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그리고 놀이마당에서는 도문메나리, 도리원 농악풍물단의 흥겨운 가락과 북청사자춤과 통소소리에 신명을 돋우기도 한다.

이제 속초는 문화가 밥 먹여주는 새로운 문화관광 교역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도문동 메나리가 강원도 민속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고 전국에 선을 보였는가 하면 도리원농악, 북청사자춤이 복원되어 춤과 노래, 농악이 속초의 신명을 돋우고 있다. 속초8경에 속했으나 사라졌던 청대산 소나무 3그루가 다시 심어져 푸른 기상을 보여주고, 설악동은 새로운 관광발전

특구로 지정되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설악-금강 연계관광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염두해 두면서 부분적으로 활성화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발전시키며, 지역잘살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장기적 추진사항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몇 년 전에 이러한 방향으로 썼던 글을 다시 검토하면서 그간 착실하게 실천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더 매진해야 할 것도 있기에 재론해보기로 한다.

Ⅱ. 속초전통문화 자원화 논하기

1. 전통문화의 개념과 자원화

1) 전통문화의 개념

- 전통문화는 오랫동안 형성된 생활문화로 경제생활, 사회생활, 종교생활 등 다양한 기층문화
- 전통문화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문화유형의 총체로서 현대사회에 계승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고유한 것으로 한정됨.
- 전통문화의 모두가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승되는 것은 아니고, 보존되거나 생활속에 융합되기도 함.
- 전통문화 중에서 지역문화로 정착된 것은 지역발전의 선도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동시에 주민에게는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고양시킴.
- 전통문화 가운데 주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굴 육성하여 재창조하는 일은 문화의 세기에 중요한 화두임.

2) 관광자원화 개념

-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는 정비하고 강화/強化(Reinforcement)할 것, 복원발굴 또는 보존하여 재생/再生(Regeneration)할 것, 재창조하여 도입/導入(Introduction)할 것으로 나눔.
- 속초전통문화관광의 새로운 선택으로 초이스/선택 개념 부각
- 관광객의 입장에서 에이스 선호도 측면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자원화 도모
- 관광은 빛을 보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가려진 것, 알려지지 않은 것, 모르는 것, 인식되지 않은 것 등을 캐내고 만들고 틀을 짜서 자원으로 활용



- 문화는 토지, 노동, 자본, 기술과 더불어 제5의 생산요사이므로 문화관광자원 창출
- 속초8경 등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전통문화와 접맥 연계하여 문화도 살리고 관광도 사는 윈윈(Win-Win) 전략 구사
- 관광자원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무엇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가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자원 제시

2. 전통문화 관광자원화의 목표

1) 국제문화관광도시화 추구

- 환동해권 국제교류와 교역의 중심도시로 국제적 감각의 문화관광도시 기반 조성
- 국제문화관광을 위한 다양한 준비와 세심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 자연관광 중심에서 문화중심의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거점화 추진

2) 문화향유권 확보와 생활문화정착

- 실향민의 고장, 어항, 관광소비의 도시, 一過性 관광지 면모 탈피
-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학습과 여가보장, 참여마당 확대
- 생활 속에 문화를 정착시켜 개성있는 지역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
- 지역문화의 특성화, 문화인프라 구축, 문화의 자원화를 통한 지역의 힘 결집

3. 관광자원화 진단과 방향

1) 설악권 관광의 분석

- 설악권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SWOT 분석 즉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에 대한 조사 실시

↑ 내부적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외부적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설악권 전통문화 관광자원화의 내외부적 제반 요소

- 강점 : 독특한 산악, 해양, 호수문화, 온천 등 휴양문화 상존, 관광도시 특성화 부각
- 약점 : 특징적인 소재의 발굴 미흡, 창의적인 이벤트 부족, 전통문화요소 부족, 예산 및 인적자원 부족, 자원마케팅 전략 약화
- 기회 : 국제관광엑스포 성공으로 공간확보, 新실크로드 북방교역 개척으로 관광수요 급증, 국제관광시범도시 지정가능성
- 위협 : 전통문화의 소멸, 재원확보의 어려움, 전통인식의 약화, 위락관광위주의 편향성

Ⅲ. 속초시 문화관광자원의 틀짜기

1. 자연자원의 상품화

1) 속초8경의 루트화를 통한 활용방안 극대화

○관동8경에 들었던 청초호를 비롯하여 유명한 지역자원을 연계화한 관광홍보를 극대화한다. 영금정 속초등대전망대, 영랑호 범바위, 청대리 청대산, 청초호, 속초해수욕장 조도, 대포 외옹치, 내물치 설악해맞이공원, 상도문 학무정을 다양하게 활용함.

○소야8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상품화 추진. 맑은호수, 고깃배, 저녁불빛, 아침 안개, 일출, 병풍산, 밝은달, 오얏나무꽃 등의 자연을 살리고 아껴서 볼거리화.(도천면 면세일반, 1926년 소야팔경 참조)

- 제1경 청호마경(靑湖磨鏡) : 청초호수가 거울을 닦은 것처럼 맑은 모습(호수)
- 제2경 속초귀범(束草歸帆) : 속초항으로 들어오는 고깃배(배)
- 제3경 주교야화(舟橋夜火) : 부월리 아래에서 게를 잡는 저녁불빛(불빛)
- 제4경 온정조하(溫井朝霞) : 온정리의 더운 수증기로 인한 아침 물안개(안개)
- 제5경 논산조양(論山朝陽) : 논산리에서 맞이하는 아침 태양(태양)
- 제6경 청대화병(靑垔畫屏) : 청대산(해발 230m)의 한 폭 병풍같은 모습(산)
- 제7경 노동명월(蘆洞明月) : 노학동의 야산에 뜨는 밝은 달(달)
- 제8경 이동백설(梨洞白雪) : 도리원의 흰 눈같은 오얏나무꽃(꽃)



2) 속초 '초이스투어' 카드발행-숙박, 교통, 입장료 할인

- 속초지역의 관광권을 연계한 투어카드 발행으로 고정적 입장객 확보
- 카드 발행을 통한 기금확보와 각종 예약문화 정착

3) 속초와 설악권 관광지 연계환승 공중열차(Air train) 건설로 체류형 관광 유도

- 속초 콘도단지과 시내, 대포, 설악권을 연결하는 환승 열차 건설
- 설악산 진입로의 교통 혼잡 예방 및 속초권과 설악권 상호 연계관광 유도 가능

2. 실향민문화의 창조화

1) 실향민문화축제 개최

- 속초 엑스포공연장을 활용하여 실향민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북 5도민회와 함께 통일을 기원하는 구심체로서 천만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잊혀져 가는 북한 문화를 체험함.

2) 실향민문화거리 조성

- 문화거리는 역사성이나 문화유적지의 의미가 강한 가로가 많으며, 관주도형 개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행사가 이루어진 곳을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미 사람들에게 장소한 곳이 유리하다.

- 우리나라의 문화거리는 거리환경의 독창성과 독특한 분위기 연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강원도는 강릉, 춘천에 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영월에서도 단종문화거리를 만들었음.

- 현재 청호동은 실향민 집단마을로 속칭 아바이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난민촌으로 형성 되어 있어 실향민문화거리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청호동 갯배 선착장에서 신수로 개설까지 100m거리를 지정하고 주변 건물을 정비하여 함흥냉면집

등 북한음식점, 북한상품가게, 피난민생활관, 북청사자놀이 거리공연 등 다양한 실향민문화체험 이벤트가 가능하도록 함.

○문화거리 조성방향

- 1단계:지역주민 의견 수렴하여 기본적인 계획안 수립
- 2단계:문화거리 조성 조례제정 및 운영위원회 설치
- 3단계:문화거리 조성기금 확보, 시비, 도비, 국비의 확보,
- 4단계:금융기관 용자 알선, 임대입주자 용자지원
- 5단계:민간에 의한 관리운영 방향으로 유도
- 6단계:정례적 문화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도

3. 축제자원의 활성화

○속초시의 축제와 이벤트는 6가지이다. 그러나 축제성격의 불명확함과 주제선정이 미흡하고, 행사주최의 기획부족으로 국제적인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설악문화제는 종합전통문화축제로서 성격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라 때부터 전승된 산악제의를 고증대로 충실하게 재현하고, 동해용왕제, 거리축제를 다양하게 구성한다. 아울러 속초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새천년 통일기원제, 환동해권 한민족·한핏줄 만남축제, 실향민문화축제 등을 별도의 계획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행해지는 행사는 다음과 같음

- 1월 설악눈꽃축제:설악산 설경과 어우러진 환상의 눈꽃축제
- 6월 설악의 우리꽃전시:에델바이스, 금강초롱 등 설악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전시
- 7월 설악트라이애슬론:사이클, 수영,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 7~8월 여름해변축제:속초해수욕장에서 각종 공연
- 9월 설악국제첼린저대회:설악일대에서 마라톤과 하이킹
- 10월 설악문화제:설악산신제, 풍어제 등 다양한 전통문화예술 행사



4. 전통문화의 산업화

1) 향토지적재산 특허신청 및 상표등록 추진

- 향토지적재산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상품화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전통문화와 고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현대적 기술이 가미된 창작물을 향토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함.
- 지적재산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생겨난 유·무형의 기술, 정보, 창작물, 신상품 등 상표도 포함된다. 향토지적재산을 특허출원, 상표등록, 의장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재산권화하지 않을 경우 먼저 등록한 자가 재산권을 행사함.
- 전통문화자원을 고부가가치의 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것의 권리화가 중요하다. 향토지적재산은 성격상 공유성이 많이 소유권 귀속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권리를 가지고 생산자단체에 권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향토지적재산개발 담당자를 지정하고 구체적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향토지적재산은 특성에 따라 특허권, 의장·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의 방식으로 재산권화함.
- 강원도 타시군을 보면 영월군의 경우 김삿갓 34종과 동강 19종 등 모두 59종의 캐릭터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에 상표와 의장등록을 출원하여 재산권보호와 동시에 본격적인 상품 판매에 들어가고 있는데, 넥타이, 손수건, 모자 등으로 다양하고 강릉시도 홍길동 캐릭터 상품 19종을 등록하고, 초당두부를 상표등록하여 판매하고 있다. 지역특산물 상표출원은 순창전통고추장, 지리산청수, 춘천꼬꼬닭갈비, 진주단감 등으로 지역성을 살리고 있음.

2) 전통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 전통문화자원의 상품화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추진한다.
 - 전통문화자원을 일상용품으로 디자인한 특별한 상품개발
 - 토산품보다 기념품이나 일상용품 위주의 상품에 로고를 삽입한 상품개발

- 휴대하기 간편하게 소형화한 팬시형 상품개발
- 판매나 홍보에 유리한 식음료위주의 상품개발

○개발된 상품은 그 지역에서만 판매토록 하는 정책추진을 추진하고 상품개발 전문기관 설립하여 추진한다. 수복탑 모자상 저금통, 청호동 갯배 모형장난감, 금강산으로 걸어가는 울산바위, 향기나는 에텔바이스 조화, 권금성의 권장사와 김장사 모형장식품, 신흥사 경관인쇄 티셔츠와 손수건, 조양동 출토 부채모양 토기 목걸이, 고배술잔, 고인돌, 청초호와 영랑호 쌍룡인형, 영랑 화랑도 꽃마차 장난감, 속초 청호동 햇떡이식혜, 함경도 오징어순대, 노학동 설악산 장뇌산삼음료 등을 집중 개발

○속초시는 지난 1998년 개발하여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설악의 향기 향수, 미용비누 판매 대행사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으나 지역홍보와 관광 다변화 차원에서 확대해야함.

3) 속초시 동별 자원의 관광상품화 추진

- 영랑동-신라 화랑도 영랑 인형, 고려시대 안축시비 축소기념품
- 동명동-영금정 거문고 소리나는 재떨이, 영금정 해돋이정자모형, 수복탑 모자상, 영금정 일출. 동명활어판매장, 속초등대전망대 모형손전등과 자명종,
- 중앙동-중앙시장 활어, 건어물판매
- 노학동-온천장, 순두부집, 황태요리
- 조양동-선사유적 출토품 부채모양 토기목걸이, 고배술잔, 고인돌모양 기념품
- 청호동-갯배모형, 북청사자놀이 사자탈, 속초국제관광상징탑, 햇떡이 식혜, 오징어순대
- 대포동-외옹치 장승, 솟대 모형, 내물치 해맞이공원 조각품
- 도문동-벼락바위 전설 인형극, 상도문 학무정모형
- 설악동-권금성 권장사 김장사 인형, 설악산 반달곰, 에텔바이스 향수, 에텔바이스 자연생태관, 설악장뇌산삼음료, 금강초롱종, 날다람쥐 인형, 금강산으로 걸어가는 울산바위저금통, 신흥사 경관 문양 티셔츠 및 손수건, 신흥사 범패와 승무공연, 움직이는 흔들바위 장난감, 향성사지 삼층석탑 모형
- 장사동-뱃소리테이프, 돛단배모형



5. 향토예술의 가치화

1) 문화원 향토학교, 문화학교, 각급단체 적극적 지원

- 각종 문화관련 시설을 문화예술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
- 생활문화복지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한 탈춤반, 전통무용반, 전통악기반 등 운영 지원
- 도리원 농악대, 도문동 메나리, 북청사자놀이 보존회 결성 및 예산지원

2) 속초시립박물관 자료수집 확대,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속초시의 선사문화, 실향민문화, 전통문화, 문화재를 수집, 총괄적으로 관리
- 실향민관광문화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공간 확보
- 실향민관광문화촌을 활용한 이북5도 음식전, 풍물전 등의 기획전 개최

3) 환동해권 전통예술교류공연 실시

- 한중일, 러시아, 북한 등 자매도시 교류 추진 및 국제문화촌 조성
- 동아시아관광포럼권인 9개국 지방정부와 문화예술 벨트조성의 선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중국, 몽골, 홍콩, 태국)

4) 실향민관광문화촌 공연활성화 추진

-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15호인 북청사자놀이 속초지역에서 체계적 전수 공연
- 자생단체인 갯마당 사물놀이의 예산지원을 통한 공연문화활성화
- 울산바위 등 지역설화의 연극적 형상화를 위한 연극단체의 기금 지원확대
- 속초지역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예술전수회관 건립

Ⅳ. 속초전통문화의 자원화 만들기

□ 주개념 : '속초' (Sok cho)-초이스(Choice)-에이스(Ace)

1. 영랑호 · 청초호 호수유람권

[조건]

- 속초는 다른 지역에 비교우위를 가지는 자연호수인 석호를 두 개 가지고 있음.
- 이중환의 택리지에 관동팔경의 하나로 언급된 청호마경(靑湖磨鏡:물이 맑아 거울을 닦은 것 과 같음)의 청초호와 신라 화랑 영랑의 유적이 섞인 영랑호는 사색의 코스로 유람의 공간으로, 화랑도 체험단지로 활용될 수 있음.
- 청초호 유원지에는 12만 3천여평의 강원국제관광엑스포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제관과 상징탑이 있으므로 호수와 어울린 다양한 행사개최 가능

[주요자원]

○영랑호 신라 화랑문화유적

-영랑호는 삼국통일의 꿈을 품고 명산대천을 수련한 사선중의 한 분인 영랑 화랑이 머물렀던 곳에서 유래되어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하는 유적지다. 삼국통일을 성취한 화랑도의 풍류도 정신을 남북통일의 화해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정신교육체험관광지로 재창조 할 수 있다.

○영랑호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호수 주위가 30여 리로 물가가 굽이쳐 돌아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옛 정자터가 있으니 이것이 영랑 신선 무리가 놀며 구경하던 곳이라 한다.(신증 동국여지승람,1530년)

-주위가 20리다. 물굽이가 산골짜기로 들어와 있다. 돌아드는 개천과 굽은 모래벌은 볼 수 없고, 암석이 뒤섞여 있다. 물 속에는 고립된 돌과 점석이 있고, 동쪽 산밑에는 모래 언덕 가까이에 송림이 있어 해를 가리고 백 여명이 앉을 수 있다. 옛날부터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영랑이 유람 왔기 때문에 영랑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온다.(간성군 읍지, 1633년)



○영랑호 청룡·황룡 나룻배싸움놀이

-옛날에 청초호에는 숫룡이 살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았다고 한다. 암수의 용은 서로 땅속으로 통한 물길을 따라 오가며 지냈는데, 어느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 불이 나서 청초호 주변의 솔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청초호 숫룡이 불에 타서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 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별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로 어민들은 정월대보름날을 기해 무당을 청하고 정성껏 기우제와 용왕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숫룡의 죽음을 위로했다고 한다. 이때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를 거행했다고 한다. 이 나룻배싸움놀이에서 진 마을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이긴 마을은 풍어를 거둔다고 믿었으며, 나룻배를 타고 하루종일 가무를 하며 놀았다고 한다.(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1992, 79쪽 참조)

○논뒤편 야간불꽃놀이와 꽃 배 띄우기

-청초호의 옛이름은 논뒤편이라 했는데 문헌에는 쌍성호라 하였다. 택리지에 관동팔경의 하나로 넣을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다. 논뒤편은 논산리를 뜻하고 논뒤편은 논산리 앞의 호수를 지칭한다. 삼연 김창흡 선생이 지었다는 소야8경에는 논산조양(論山朝陽:논산의 아침 햇살)과 논산조연(論山朝煙:논산의 아침 안개)가 들어있다. 불꽃놀이는 한자로 낙화유(落火遊)라고 하는데 청초호에서는 조선조 숙종 때 이 고을로 오는 수령을 위해 주민들이 경축행사의 하나로 논뒤편에 꽃배를 띄우고 관기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3일동안 밤을 새워 축하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때 널빤지에 숯불을 피워 호수에 띄웠는데 주민들은 호수 주위에 초롱불을 밝혀 기쁘게 했다고 한다. 이러한 불꽃놀이를 할 때 구경나온 주민들도 주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러한 축하연의 선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소박한 뜻이 담긴 것으로 조선조 말엽에 중단되었다.(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1992, 78쪽 참조)

[활용방안]

1)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단지 홍보 강화 및 활성화

□ 배경

- 21세기 강원문화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향토문화자원의 보호와 가치제고 차원에서 추진
- 구체적으로 유적명소전설의 터 조성 사업,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 강원도 사적공원

조성사업추진과 연계한 강원문화의 관광화 계획

□ 목적

-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새천년 남북통일의 전진기지로 속초시가 중심이 되는 차원
- 삼국통일의 정신을 되살려 화랑의 얼을 계승하고 이를 지역문화자원으로 활용
- 속초시의 특별이벤트 자원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화랑체험관광지로 새롭게 변모, 청소년 교육 및 관광객 유치, 지역자긍심 제고

□ 개발방안 및 활용

- 정적인 문화공간 : 탐조공간, 낚시공간, 시비와 조각감상공간, 도보사색공간, 영랑캐릭터공간, 야외음악당, 야외영화관
- 동적인 문화공간 : 화랑홀터, 승마장, 영랑꽃마차 운행, 영랑화랑연극공연장, 청룡황룡나룻배 싸움놀이, 한·중·일 용카누대회
- 체험의 문화공간 : 화랑무예감상공간, 택견시범공간, 영랑화랑선발대회, 청소년화랑교육장, 영랑화랑행차 재현참여

2) 여름축제로 영랑호 청룡·황룡 용선나룻배싸움놀이와 한·중·일 용선젓기대회 유치

- 영랑호의 용선 나룻배싸움놀이를 어촌계 중심으로 편성하여 민속놀이화
- 한·중·일 용카누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호수축제 중심연회화

3) 속초실향민관광문화촌내 전통민속공연관 개관

□ 배경

-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으로 동남아 중심의 외국관광객 수요 급증
- 속초-러시아간의 국제훼리 및 크루즈항 개항으로 체재형 보따리 무역상 급증
- 설악-금강 연계 관광개발 및 관광특구 조성으로 차별화된 공연문화 요구
- 속초 전통민속문화예술의 공연으로 관광상품의 다양화 욕구 증대
- 외국인 관광객의 night life의 장(場) 설치 욕구 증대



□ 목적

- 외국인 관광객 및 고급 내국인 관광객의 night life 수요에 대응함.
- 고부가가치의 관광상품인 전통민속무용 민요 및 설화극 공연 무대의 개발
- 국제 컨벤션시설의 확보

□ 개발기본방침

- 전통민속 중심의 다기능 복합건물(multifunctional complex building) 설치
- 속초의 CI를 표현할 수 있도록 외형이 설계된 건물
- 속초시의 세계화에 대응한 시설, 경영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도입

□ 개발 내용

- 극장식당 : 400명이 동시에 식사와 관람이 가능한 규모
- Duty free shop(소규모 백화점)
- 카지노 : 외국인 전용

4) 설악문화제 행사시 논외호 야간불꽃놀이와 호수영상레이저쇼

- 청초호(논외호) 야간불꽃놀이는 전통적 방식으로 호수 주변에 초롱불을 밝히고 중앙에 배를 띄워 숯불을 피움.
- 야간에는 호수위에 청룡과 황룡놀이 영상레이저쇼 공연

5) 청초호 일주 관광유람선 운행

- 청초호를 일주하는 주야간 유람선 운행으로 설악산의 비경 조망 및 야간관광 활성화
- 설악산권과 동해안권으로 물리는 관광객의 분산효과 및 관광수입 증대가 가능.
- 유람선을 속초시와 민간투자의 합작방식으로 도입하여 운영

2. 대포동 · 장사동 해양체험권

[조건]

○속초시는 아름다운 동해안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삶의 애환과 낭만이 깃든 동명항, 건강한 여름의 레저중심인 속초해수욕장, 활어회와 작은 고깃배가 정박한 대포항과 물치항 등으로 생생한 어촌문화체험과 활어회의 싱싱한 맛보기 체험이 가능.

[주요자원]

- 대포동 풍어제 및 용왕굿 참여, 뱃소리 배우기
- 어촌의 생활습속과 어로행위 교육자원화
- 배, 바다낚시, 든대질하기 해양문화체험관광
- 청호동 실향민 어로마을 답사 및 피난민 생활체험
- 오징어 배가르기, 명태말리기, 명태포만들기, 오징어찜기 체험

[활용방안]

- 1) 실향민관광문화촌 및 실향민 문화거리 조성

[배경]

- 청호동 실향민이 집단 거주하는 아바이 마을은 분단한국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 하고 살아 온 실향민 문화를 배경으로 한 역사문화적 환경인 동시에 정착한 주민들의 생활 무대임.
- 속초가 현재의 속초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전기는 바로 이 청호동을 중심으로한 이북의 실향민들이 이 곳에 정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음.
- 현대의 변화무쌍한 시대적 영향을 받으면서 속초의 다른 지역들이 국내 유수의 관광지로 발전 변모했는데 반하여 이곳 아바이 마을은 아직도 북한지역의 문화가 정착초기의 상황으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음.
- 이러한 역사성과 풍토성을 기반으로 건조물, 예능, 음식, 놀이, 민속, 전통산업, 생활문화,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지역적 특성은 관광자원의 소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음.



[존재형식]

- 청호동 아바이 마을의 입지조건, 환경의 특질을 보면 관광리조트 도시 내의 한지점형 (one point type) 문화마을로 평가된다.

[계획과제]

- 국내 유일의 실향민 정착촌으로서 생활문화의 보존과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 도시계획상 수로 입구 아치형 다리의 신설로 생활환경의 개선 효과 증대
- 향토산업(북한 음식점, 지역특산물-공예품 포함)의 개발, 북한의 장날 풍경 재현, 기타 지역의 문화 및 편익시설을 도입하여 관광루트화 방안 마련
- 실향민관광문화촌을 통한 실향민의 메카화 -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
- 청소년의 통일교육 산실로 활용
- 북한 지방의 옛날 장터 구축 및 장날 정경 구현
- 실향민관광문화촌내 이북 5도의 음식점가 구축
- 청호동에 이북 5도의 문화 거리 조성
- 천만 이산 가족의 만남과 교류의 장 마련

1) 청호동 갯배의 상품화와 별신굿 공연마당

- 청호동 갯배는 독특한 나룻배로 속초피난민의 역사 반영
- 갯배모형 기념품 제작 및 민예총 제작의 갯배 영화 상영
- 실향민문화촌내에 북청사지놀음과 동해안 별신굿마당 공연

2) 대포동 장승과 솥대 답사참여, 기념품 제작 및 체험 강화

- 횃집으로 널리 알려진 대포동을 찾는 관광객의 외용치 장승과 솥대찾기 답사
-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개최되는 마을제때 관광객 참여로 문화체험 유도
- 강릉의 강문진또배기 조각품처럼 외용치 장승과 솥대의 조각품 제작, 솥대깎기 체험 실시

3) 대포동 어촌체험민숙관 개관으로 어로 습속의 정비와 복원

- 대포동에 어항의 명성을 지닌 속초어업의 과거와 현재를 엿볼 수 있는 체험민숙관 건립

- 대포동 어로체험민속관에는 어선, 어구를 전시하고 관광객들이 그물이나 낚시로 오징어 등 고기를 직접 잡고 산대로 고기를 거둬들이는 특별 체험 제공

4) 장사동 뱃소리 채록 및 계승활동

- 실향민관광민속촌에서 속초 고유의 뱃소리 공연의 상시화
- 속초뱃소리인 지어소리(노젓는소리), 다리어소리(그물당기는소리), 산대소리, 베끼소리, 가래 소리의 조사 채록 및 CD작업으로 상품화 실시
- 속초 뱃소리의 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강원도 기능보유자 지정 신청

3. 설악산 지역 산악휴양권

[조건]

- 속초시는 세계적인 명산인 설악산 대청봉(1708m)를 가지고 있음.
- 설악산은 금강산과 연계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남북관광특구지정 추진중
- 설악산은 신흥사, 권금성 등의 문화재와 케이블카 및 각종 산림휴양시설이 확보됨.
- 설악산은 천연보호구로 반달곰, 산양,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함.

[주요자원]

- 산악인 각종 대회, 산신제
- 산삼, 칩, 소나무, 생수, 관솔, 자수정, 토종꿀, 산나물, 버섯류
- 폭포, 사찰, 성곽, 전설, 문화재, 문화유적
- 에델바이스, 금강초롱, 반달곰 캐릭터

[활용방안]

1) 설악산 소공원의 주제가 있는 테마 휴식공원화

- 소공원을 테마형 휴식공간,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 권금성 설화 형상화를 통한 소공원의 조형물 정비 및 홍보 강화
- 산상 음악제 및 전국청소년무용제 추진

2) 전국 산악마라톤 개선 및 단풍축제 활성화



- 전국산악인대회 및 단풍미인선발대회
- 단풍을 국기에 새긴 캐나다와 교류

3) 울산바위와 동자승 전설의 연극 및 인형극 공연개발

- 초·중·고·대학에 울산바위 주제 연극 및 인형극 공연개발
- 매년 지역전설의 연극 및 인형극 발표경연대회 개최

4) 설악산 야생화 에텔바이스 공원 조성

- 설악산 소공원을 활용한 에텔바이스 공원 및 야생화 전시
- 에텔바이스의 공예상품화 기회제공 및 기념품 개발

5) 설악산 반달곰 캐릭터, 심메마니 산삼음료개발

- 설악산 상징 반달곰 사육 및 캐릭터 개발
- 설악산 산삼의 명품화 계획 및 식음료 개발

6) 속초설악산-북한금강산-중국백두산 연계 3국·3각·명산루트화

- 강원도로부터 국제교류시범도시로 지정받아 3국, 3각 명산루트화 계획 실천
- 동북아 교류 및 무역중심으로 속초시 관광 및 경제의 활성화 추진

4. 신흥사 일대 불교탐방권

[조건]

- 설악산 신흥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널리 알려짐.
- 신흥사는 보물 1점과 지정문화재 3점, 동산문화재 등으로 문화유산이 풍부함.

○계조암, 내원암, 안양암, 부도군 등의 연계와 양양 낙산사, 고성 건봉사와 연계관광가능

[주요자원]

○보물 443호(향성사지 삼층석탑), 순조께서 하사한 청동시루, 극락보전(지정문화재14호) 경판(지정문화재 15호), 보제루(지정문화재 104호)

○승무, 탑돌이, 불교의식 등 공연물

[활용방안]

1) 불교유적 탐방코스 개발

○동해안의 양양 낙산사, 고성 건봉사와 연계한 불교유적 탐방코스 개발

○신흥사, 계조암 등의 템프스테이 홍보 및 활동 강화

○신흥사 산상 불교강좌 개최 및 전국 불자시인 대회 개최

2) 신흥사 승무 공연 및 경판의 판각

○전국 사찰에서 신흥사는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음.

○승무와 탑돌이 공연의 실시로 불자 및 관광객의 관심 유도

○문화재인 경판의 판각제품 및 상품개발

5. 속초시립박물관 관광타운권

[조건]

○속초시는 실향민관광문화촌, 시립박물관, 국제관광엑스포장이 있어 관광소요를 집중화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됨.

○관광의 분산과 결집을 통해 다양한 관광체험이 가능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야간관광, 집중관광, 특별체험관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타운이 필요함.



[주요자원]

- 속초 시립박물관, 실향민관광문화촌, 노학동 먹거리촌
- 청호호변 국제관광엑스포장
- 청호동 실향민 집단거주마을
- 설악산 소공원 및 속초팔경지역
- 영랑호 수변공원

[활용방안]

1) 전국 북한지역 실향민문화엑스포 개최

□ 배경

- 분단 반세기를 맞으면서 천 만 이산가족들의 모여서 서로 공감하고 나누고 함께 하며 교류하는 장의 마련 요구 (이북5도청 및 이산가족)
- 속초시 실향민관광문화촌과 청호동을 실향민의 메카로 만드는 시발점(starting point)으로 활용
-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화해 정책의 중요한 시점으로 활용(국가차원)
- 한반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의 역할과 설악-금강 연계 관광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이벤트가 요구(강원도 차원)
- 속초시 문화관광자원의 다양화 요구(문화관광의 차원)

□ 목적

- 실향민 문화의 정착과 보전
- 실향민 문화의 재조명을 통한 통일환경의 조성
- 통일교육의 장 마련
- 천만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마련
- 남북교류의 촉매작용
- 통일과 남북교류에서 강원문화의 중심화

□ 동원대책

- 이산가족 150만명 유치
- 관광객 50만명(내·외국인) 유치

□ 실시장소·규모·시기

- 장소 : 속초시 실향민관광문화촌
- 규모 : 관광객 등 200만명
- 시기 : 가을 설악제와 연계한 9월 중순이후

□ 주최·협찬·후원

- 주최 : 속초시, 강원도
- 협찬 : 이북 5도청, 천만 이산가족 찾기 단체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대북투자기업

□ 개최테마: “실향민 문화EXPO”

- 1) “失郷民 : 고향을 잃은 사람” - 주로 타의에 의해 고향을 떠나게 되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협의적으로는 6. 25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해서 타향에서 사는 천만 이산가족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조상의 살던 땅에 살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로서 해외동포들까지 포함
- 2) “문화EXPO : 문화관련 이벤트들이 총집결체” - 음악, 연극, 연극, 회화, 예술, 세미나, 민속, 놀이, 문화강연회, 심포지움, 문학, 공예, 음식 등과 관련된 테마
- 3) “실향민 문화EXPO : 실향민 문화와 관련된 모든 부문들의 총집결된 행사
-축제, 잔치, 만남, 정보, 교류, 공감, 공유의 마당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만나고, 나누고, 느끼고, 만들고, 돕고, 요구하는 시간적·공간적인 시공의 만남으로 구성

□ 추진체제

- 속초시, 실향민 단체로 재구성

□ 예산확보

- 국비, 도비, 속초시비, 이산가족 단체, 대북관련기업의 지원

□ 준비

- 기획서 작성, 추진조직의 구성, 사무국 설치, 이벤트 프로듀서 초빙



□ 실시

○이벤트 계획에 따라 9월 하순경부터 3주간 개최함.

□ 이벤트의 효과

○문화관광부문

-문화관광시즌의 연장 및 지리적 확대, 문화관광진흥의 촉매제 역할

-정태적 관광자원 및 시설의 활성화, 관광자원의 다양화

○통일과 남북관계의 역할

-실향민 문화의 재조명을 통한 통일 환경의 조성, 통일교육의 장 마련

-천만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마련, 통일과 남북교류에서 강원도의 역할 강화

○경제적 효과

-지역상권과의 연계효과

-지역특산품의 판로 개척, 타 부문 및 동일부문의 교류 등 산업교류

-지역경제 승수효과, 지역산업의 활성화

-고용증대 및 지방자치체의 세수효과

○사회문화적 영향

-지역문화의 창달, 지역주민의 단결, 지역정체성확립

-청소년 선도 및 교육

○지역교류의 영향

-개인적 교류 증대, 지역의 단체와 타 지역의 단체와 교류 증대

-국내 타 지역과 교류증대, 국제교류증대

2) 설악문화제의 창조적 전통문화계승 축제화

○설악문화제의 변화를 통한 전통문화 정착과 산업화, 자원화 추진

○설악문화제 핵심내용의 차별화로 인근 지역 축제와 이벤트의 비교우위 확보

○설악산악제례 강화, 설악등반대회 및 산악마라톤대회의 확대, 산악인축제로 특성화

○설악문화제 거리축제 및 해양과 호수축제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이벤트 방향으로 추진,
거리 축제시 오징어탈놀이공연, 해양은 별신굿놀이, 호수는 청초호 용선이벤트, 영랑
호 화랑이벤트, 실향민문화이벤트로 방향모색

○설악문화제의 통일주제는 문화제의 성격상 배제시키고 실향민문화이벤트로 포함시킴.

2) 설악눈꽃축제마당을 소공원으로 이전

- 설악눈꽃축제마당의 문제점 해결로 용평, 태백 등지와 차별화
- 설악산 소공원을 활용하여 속초와 설악의 연계관광화 추진
-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소공원 밖으로 유도하여 공원활용도 높임

3) 속초팔경 찾아가기 프로그램 개발

- 속초관광홍보도우미 선발하여 속초팔경 찾아가기 프로그램 개발
- 수학여행단에게 퀴즈프로그램 제공, 상품마련으로 흥미유도
- 속초팔경 지정장소의 미화작업 및 안내표시 설치

4) 조양동 고분 역사탐방 및 속초시립박물관 학교 활용

- 조양동 고분 지역을 인근 효자각과 연계하고, 청대산과 연계한 역사탐방 코스 개발
- 속초 향토사료관의 유물 구입 확대와 시립박물관 승격으로 찾아오는 박물관으로 활용
- 선사출토유물의 관광기념품화로 수익증대

5) 유적·명소·전설의 터 조성

- 도내에 산재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유적·명소·전설의 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 유래 안내판 및 표석설치, 주변정리로 편의제공, 관광명소화 추진
- 1997년 속초 학무정, 1999년 속초 영랑호 안축시비 조성 완료
- 2000년 영금정, 벼락바위 안내판 설치
- 2001년 영랑호 설화 형상화 작업, 캐릭터 개발
- 2005년 영랑정 건립으로 영랑호 지역 관광자원화

6) 설악에서 금강산 일대 남북관광특구 연계조성

- 민족교류의 시범지로서 설악권은 숙박, 해양, 위락, 쇼핑, 국제회의 중심지화
- 금강권은 산악, 자연생태, 문화유적 위주로 개발하게 되므로 차별화 가능



V. 속초전통문화의 자원화 이끌기

1. 사업집행계획

1)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집행계획

○정비·연계→강화/強化(Reinforcement)대상

- 신히민문화거리, 속초팔경, 영랑호와 청초호 전설이벤트, 전설의 연극화

○복원·발굴·보존→재생/再生(Regeneration)대상

-화랑체험관광단지 조성, 조양동 선사유물단지, 해양축제, 청호동 별신굿, 장사동벚소리, 외옹치 솟대제 장승제,

○개발·조성·재창조→도입/導入(Introduction)대상

-신히민문화엑스포, 전통문화공연장, 어촌민속전시관, 에델바이스공원, 컨벤션센터 건립, 한중일 용카누대회

2. 특별추진사업

1) 속초국제동북아 신실크로드교역상품전

○국제관광페어, 관광상품전, 향토음식콘테스트 등 행사에 적극적인 유치 참여

○신실크로드인 속초-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을 잇는 동북아 골든트라이앵글 교역상품전

2) 2008년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및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유치

○속초관광엑스포의 맥을 잇는 민속축제행사 유치로 전국적인 홍보효과 성취

○강원 18개 시군의 민속예술과 전국의 출연진에게 설악문화제 홍보 및 경제효과

3) 다양한 국제행사의 유치

○2007년 국제관광음식전, 2009년 국제관광정보전, 2011년 국제여행상품전 개최 준비

4) 실향민문화의 원형보존 사업추진

- 속초실향민 1세대를 비롯한 2세대, 3세대의 생존자 원형보존 사업
- 실향민 영상자료 확보 및 기록물, 구연물의 연차적 기록정리사업 추진
- 실향민문화촌 및 문화거리 조성 기초자료 제공 및 통일 후 대비

3. 이벤트 활성화

- 1) 화랑도 체험이벤트 연차적 추진
- 2) 전국 실향민 가요제 등 개최
- 3) 설악산 소공원의 단풍축제, 눈꽃축제 활성화
- 4) 설악문화제 산악제례 및 거리이벤트 다양화
- 5) 대포동 외옹치 솟대와 장승깎기 이벤트
- 6) 청호동 북청사자탈깎기 및 탈놀이 이벤트
- 7) 북한사투리 경연대회 및 북한음식 콘테스트, 민속놀이공연

Ⅵ. 맺음말

지금까지 자원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자연자원의 상품화, 실향민문화의 창조화, 축제자원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산업화, 향토예술의 가치화 등 5개의 과제를 상징해 보았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원화 만들기 작업에는 영랑호·청초호 호수유람권, 대포동·장사동 해양체험권, 설악산 지역 산악휴양권, 신흥사 일대 불교탐방권, 속초시립박물관 주변을 활용한 관광타운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속초시가 수준 높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생각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요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는 가는 풀을 제대로 묶어야 무엇도 쉽게 끊을 수 없게 되는 풀묶음의 도시다. 그것은 各個的 노력보다는 협력적·대동적 화합과 '힘모음'의 기틀이 마련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지속화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화법이기도 하다.



“누워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다”는 臥牛形 지세는 安住와 게으름의 표상일 뿐이다. 풀을 먹고 힘차게 약진하는 勇躍邁進의 황소가 되는 발전적 지세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리적 우수조건인 地勢보다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모임인 人和가 더욱 중요하다. 실향민과 토착민, 인화가 없으면 분열과 갈등으로 발전은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세계화를 위한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속초(sokcho)-초이스(choice)-에이스(ace)’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속초를 선택한 사람들이 후회 없는 관광이 될 수 있게 하는 정책마련, 서비스개선, 질적 수준 높은 관광자원화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궁극적으로 속초시민이 누구나 즐겁게 잘 살게 하는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에이스’의 기반이며 잊지 말아야 할 중점과제이다.

속초는 다양한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이것을 총체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된다.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강원도 최북단 행정중심시로서 북방지향의 정책이 전향적으로 추진되어야 살길이 보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어깨를 짚어 어깨동무로 우정을 쌓아가며 무역과 경제교류, 관광교류를 통한 국제도시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희망일 것이다.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신

매곡선생에 대하여

강원도립대 교수
양 언 석

전통은 물려받는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통은 현재와 미래문화의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산업화라는 사회변화 속에서 우리는 정신보다는 물질의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았다.

특히, 우리의 속초는 급격한 발전과 외부문화의 영향과 변화 속에서 소중한 정신적 중심을 잃고 헤매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만 한다.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에서 우리 지역의 큰 선비이시고, 정신적 중심이셨던 매곡 오윤환(1872-1946)선생의 생가복원과 문집번역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양주지』(양양군)에 의하면 오학자로 통하며 한시의 大豪, 經學의 대가로서 추종할 분이 없다. 성격이 준엄하여 無言의 敎로서 훈도하여 많은 수제자를 냈다고 극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매곡선생은 학무정으로 더 알려져 있다. 조부이신 경암공을 생각하고 정자를 지어 덕을 우러러 사모하며 생활하였다고 문집 속에 기록하고 있다. 학무정은 매곡선생의 사상과 얼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단순히 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곡선생의 얼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우리 지역 선비들의 만남의 장소로 학문토로의 장이었고, 그리고 학문하는 후생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으로 이 지역의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속초는 매곡선생과 학무정이 있기에 더 아름답고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매곡선생은 율곡학파의 마지막 선비로 율곡의 사상과 이론을 추앙하여 우리 고장에 널리 펼친 문사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문집 중 <매곡처사행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마음을 진정하여 깊이 생각하고 좋은 방법을 많이 연구한 후에 이에 감탄하여 말하기를 성인의 문하에 들어가 마땅히 우리나라의 율곡, 사계, 우암, 농암, 화서, 성재, 의암, 금계의 모든 선생의 그을 본받고 모든 성현의 글을 구입하거나 혹은 베꼈다. 더욱 율곡선생의 글을 추모하여 수 년 동안 힘써 연구하여 문집 27권을 한 자 한 획의 잘못 없이 손수 베껴서 짤막한 한마디의 말이라도 익숙하게 읽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눈 속의 차가운 매화의 타고난 성질을 자랑하여 스스로 호를 매곡이라 하여 시를 지을 때, ‘깊은 계곡 찬 매화의 춘심을 막을 수 없고, 많은 꽃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거나 다



투어 즐기지 않는다.’ 이 말은 깊은 계곡에 추울 때, 핀 매화처럼 고고하게 꽃을 피우면 살고 싶다는 선비의 자태와 강개한 선비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매곡선생의 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의 상당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담백한 시어로 읽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학무정의 봄 흥취. 3월21일

거울 같은 맑은 봄 빛 마음으로 들어오니
 고요히 사물의 이치 봄에 절로 나고 나는구나
 복숭아 꽃 흐르는 물 따뜻하여 고기 뛰어놀고
 꽃다운 풀에 연기 자욱하니 송아지 우는구나
 고아한 거문고 연주할 때 사랑스런 곡조이고
 애써 마련한 술자리에 술 사양하지 마오
 돌아가는 길에서 어찌 촛불 잡고 가겠는가
 밝은 달 뜬 것이 더 다정하다네

鏡裏春光入意城
 靜觀物理自生生
 桃花水暖游魚躍
 芳草烟深乳犢鳴
 琴古彈時多愛調
 酒艱酌處莫辭觥
 歸程何必持紅燭
 明月將來儘有情

영랑호에서 놀며 3월 일

영랑이 있고 호수도 있으니
 훌륭한 경치 지도에 실림이 마땅하구나!
 푸른 파도에 마음 고요하니 능형(菱形)의 거울 열려고
 흰 달 빛나니 술 병에 비취네
 나그네 시 지어 화답할 수 있고
 언제나 좋은 시절에 찾아와 술 마시며 즐기네
 바위 아래 차 끓이는 연기에 맑음이 다하려 하는데
 유연히 앉아서 뱃노래 소리 듣는다네

有是永郎有是湖
 宜將勝槩載輿圖
 綠波心靜開菱鏡
 皓月光生擘玉壺
 能令遊子詩相和
 每到良辰酒以娛
 巖下茶煙清欲歆
 悠然坐聽櫂歌呼

신흥사(神興寺)에서 놀다 4월 17일

절 이름은 신흥사로, 흥이 나서 노는데
 지금 옛날을 생각해 보니 몇 명의 명류가 다녀 갔는가
 신선 대(臺)의 달 예스러운데 학은 날고
 평온한 바다에 구름 아득한데 배는 떠있구나
 누가 이런 즐거움이 인간세계 있는 걸 알까
 이 마음 인간 세상 밖에 떠 있게 하지 말라
 남은 술에 차 향기는 굶주림 달랠 수 있으니
 뽕나무 아래서 하루 밤 묵는 게 해롭지 않구나

寺以神興興以遊
 以今視昔幾名流
 仙臺月古飛笙鶴
 慈海雲茫泛石舟
 誰知此樂人間在
 莫使斯心世外浮
 殘醕香茶飢可療
 不妨桑下一宵留

유유자적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느낀 감회를 표현한 매곡선생의 시는 읽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동을 준다. 그리고 정제된 시어는 인간적인 면이 더 부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곡을 한시의 대가라고 한다. 우리 문학사에서 매곡선생처럼 단아하고 평이한 시어로 정제된 시를 쓴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러한 참선비이시고 율곡학파의 마지막 문인으로 율곡의 사상과 삶의 철학을 가지고, 이 지역 후학들의 교육과 삶의 지표가 되셨던 매곡의 선생이 우리 고장의 배경이 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삶의 존재이유를 깨닫게 하고 있다.

매곡선생은 율곡학파의 계보를 절대적으로 지키면서도 불교와 도교사상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매곡선생의 사상적 계보는 율곡학파의 맥을 이은 마지막 선비로서의 학풍과 삶을 우리 지역에서 펼친 교육자로 추앙받고 있는 문사로서, 생가복원과 문집번역을 통하여 새롭게 조명해야만 한다.

매곡선생과 학무정이 속초의 배경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 후손들이 그 분의 사상과 삶을 선양하기 위해 선양사업회를 만들어 학술발표로 속초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야만 한다.

이것이 속초를 선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문화를 사랑하게 하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속초만의 것을 살리는 관광연출

송호대학 교수
이재선

지난여름 내내 속초시사(東草市史)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지금껏 속초시민이라고 하면서도 모르고 지냈던 부분이 많음을 깨닫고 적지 않아 놀란적이 있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의 지명의 유래에서부터 설악산의 8기 8경에 이르기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들 보다 모르고 지내 왔던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음에 많은 반성과 해야할 숙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떼뻗한 속초시민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길이라 믿고 속초의 관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관광산업을 저마다의 기간산업으로 내세우며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은 관광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9년에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5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문화·정보통신과 함께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설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관광의 행태는 어떤가.

기능적 개발과 흉내 내기에 급급해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나같이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대형 이벤트를 펼치고 외국의 어떠한 것을 도입하는 데 바빴을 뿐, 우리의 정신과 개인이 갖고 있는 색깔을 찾는 작업에는 거의 눈길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선진관광지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그들은 대규모 시설중심의 관광지가 이제 더 이상 관광객을 끌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정서, 특별한 자원을 발굴하여 차별된 관광지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즉, 개발중심의 관광전략이었던 하드웨어적 개발에서 벗어나, 역사와 문화적 메시지를 담은 관광지로 포장하는 연출개념을 도입해 소프트웨어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20여종의 축제를 연중 개최해서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시' 라든가,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이벤트로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일본 오이타현의 유후인 만을 등은 우리의 관광개발과는 전혀 다른, 곧 소프트웨어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지금은 관광연출시대에서-송정일)

전문가들은 20세기가 기술이 이끌어 가는 경제적 패러다임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문화가 이끌어 가는 경제적 패러다임의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다.

관광역시 종래의 하드웨어적 발상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로 변모한지 오래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톨프 엔센이 그의 저서에서 예측했던 '고객에게 꿈과 감성을 파는 문화적 상품'이 바로 관광이다. 관광은 21세기가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인 것이다. 선진 관광지들은 이런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준비해 왔고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관광개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접근방법이 잘못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혹 깨닫고 있더라도 그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수행 할 수 있는 실천적 마인드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관광전문가, 관광학자들이고 자처하는 사람들 역시 '이제는 소프트웨어다' 라는 주장을 내세우긴 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무엇을 제시하라 하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현장을 체험하지 못한데서 오는 이론중심의 습관화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총론은 있으나 각론은 없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는 바로 현장감을 모르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고도의 연출영역이다(송정일) 연출은 현장과 논리가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치 단체와 정부의 행태에 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건설하고 또 무엇을 도입하는 것만이 관광개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재선을 의식한 단체장들이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노린 대형프로젝트 또한 개발위주의 관광을 부채질하고 있다. 무형의 자원과 인적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 관광경쟁력인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국가, 또한 한 지역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 되는 역사, 문화, 정신적 요소가 없는 관광지는 이제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그래서 정체성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관광연출개념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실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우리 지역밖에 없는 것을 찾아내 논리적인 체계를 세우고 연출을 시도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하드웨어적 개발을 조화롭게 얹혀 놓아야 한다.

관광산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산업이다. 더불어 관광연출은 불특정 다수를 포용하는 보편성과 대중성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때로는 지성적으로, 때로는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감동을 줄 수 있어



야 한다.

연출의 매력은 감동과 기쁨, 그리고 놀라움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특정주제에 대한 이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차별화된 메시지 투입을 통해 거대한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묘미가 있는 것이다.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하다. 뒷맛이 없는, 곧 메시지가 없는 관광지는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경관중심, 시설중심의 관광으로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제는 속초, 강원도,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에 대해 도면을 대하는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그리고 테마파크로 보자.

거기에 소속된 우리가 때로는 주인공이 되고, 때로는 엑스트라도 되어 보자. 여행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마음껏 느끼고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동적인 연출을 시도하자.

지역특유의 고유성을 활용한 이미지 관광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관광의 한 줄기로 자리잡았다.

지역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 환경 그리고 삶의 모습을 관광에 대입시킴으로써 그 고유성을 확보함은 물론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이미지 관광이다.

이미지 관광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문화적 요소를 그대로 살려간다는 점에서 환경파괴나 지역정서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역기능적 요소가 없음은 물론 소규모의 자본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수 있다.

일본 아이즈 지역의 오쿠아이즈라는 마을은 때문지 않은 ‘오지’의 이미지를 관광상품화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오래된 민간 신앙이나 삶의 방식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 도시인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고유성을 최대한으로 이미지화한 대표적 사례는 오쿠아이즈의 한 마을에 있는 펜션이다. 이 펜션은 이름부터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전설의 고개’란 상호를 내걸고 있다.

‘전설의 고개’에서는 머무는 손님들에게 음식이든 체험이든 간에 옛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한다. 그 지역에서 나는 산나물이나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 산나물을 뜯고 버섯을 따게 하는 등 전래의 시골생활을 그대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진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손님들을 화롯가에 오순도순 둘러앉게 하여, 그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주인집 할머니가 구수하게 들려준다.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흔했던 모습인데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골 풍경이다.

이렇듯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지역의 고유이미지는 바쁘고 복잡한 생활속에 묻혀 사는 도시인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향수가 되고 있다.

속초에도 청호동 ‘아바이 마을’을 보전하면서 그곳에 해안과 어울리는 펜션을 해변을 따라 배치하고 그곳에 숙박하는 관광객들에게 어촌의 체험을 주제로 관광상품을 개발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곳에서의 이북(함경도, 평안도)사투리 체험, 오징어 잡이 체험, 이북음식체험, 오징어 할복체험, 오징어 건조체험(고랑대를 세우고 줄을이어 말리는 전통적인 방식), 전통방식의 고기잡이체험 등을 테마로 속초에 와야만 맛볼 수 있는 청호동 아바이촌에 거주하는 그들만의 삶을 상품화 하여 속초의 문화를 관광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판매 하는 것이다. 옛 시절 그대로의 어촌을 체험케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현재의 속초박물관내에 형성되어 있는 청호동 판자촌의 모습보다는 현재 아바이 마을 위치에 그네들의 삶 자체를 보전하고 보호하여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바이마을의 문화를 속초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고유성을 토대로 한 이미지 관광연출이 불가능할까? 불가능하다면 이를 보는 안목과 연출적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의 고유성을 활용한 이미지 관광은 속초시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지역경제의 30% 이상이 관광에서 얻어지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민들은 아직까지도 관광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니 관광산업을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외면하고 있다. 관광산업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도정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고 있는 것이 속초시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정서이다.

그것은 주민들이 관광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직접 체험하고 있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관광사업에 직접 참여해 안정된 소득이 보장된다면 누가 관광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나의 일처럼 외면하겠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관광객에게 손을 흔들자, 친절하게 맞자 등등의 유치한 캠페인을 펼칠 필요도 없다.

고유성을 활용한 이미지관광만이 주민들 설득하고 속초시 관광이 특화로 무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역의 고유성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 실천적 연출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연중 7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하와이의 이미지는 ‘푸른 낙원’이다. 4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아열대 지역인 이 곳은 가는 곳마다 초록색 잔디가 펼쳐 있어 좀처럼 맨 땅을 볼 수 없고 사시사철 늘 푸르다. 공원마다 오랜 수령을 자랑하는 나무들로 뺨뺨이 둘러싸여 있고, 눈 닿는 곳마다 펼쳐지는 푸른 잔디 위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어, ‘이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느낌이 절로 든다.

그래서인가. 언제부터가 하와이는 푸른 낙원으로 불려지고, 사람들은 ‘하와이’ 하면 ‘푸른 낙원’을 연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푸른 낙원 하와이’는 사실 인위적인 연출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한 작품이다.



하와이를 늘 푸르게 만드는 초록색 잔디는, 어디서나 잔디에 물을 뿌려대는 스프링클러 시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러 대대적으로 심어 정성껏 가꾸는 것이다.

저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은 호주에서 엄청난 모래를 실어다 메워놓은 모래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다.

물 속이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하마우마 해변 역시 인위적으로 산호를 심고 돌을 메워서 오색 물고기 떼를 풀어놓은 곳이다. 하마우마 바다에서는 인간과 물고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물놀이를 한다.

‘푸른 낙원’이라는 하와이의 이미지는 바로 세계 제일의 관광명소를 꿈꾸며 이를 실현한 하와이 사람들의 인위적인 연출작품인 것이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그곳에 가면 인어공주상 하나가 있다. 동화속의 인어공주상 하나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고, 그리스 신화를 표절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전설의 언덕 로렐라이가 연중 1,2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발상의 전환, 창의적 성향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속초가 내세울 수 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와 설악산, 바다 등을 얘기할 것이다. 속초가 갖는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딱 한가지를 추려내기가 어렵다.

민속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문 메나리 농요’를 내 세우고,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전진기지’를 또 일부 사람들은 ‘오징어’를 ‘바다’를 ‘설악산’을 ‘호수’를 주장하기도 하겠지만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어 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관광의 흐름은 기업이 내세우는 브랜드처럼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차별화, 특색화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관광지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관광지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한 가지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를 홍보와 마케팅에 일관성 있게 적용시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속초 역시 한 가지 이미지를 선택해서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필자는 북한의 문화를 선택하고 싶다. 속초문화에 항상 아바이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이 속초의 이미지로 주장하는 ‘오징어’, ‘바다’, ‘통일’에도 아바이가 존재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상태로 남아 있는 조국의 현실을 감안하고 그 분단의 아픔을 고스라이 머금은 채 살아있는 아바이들과 어마이들 그리고 그네들의 삶. 그들로 인해 오징어가 속초를 대표할 수 있었고 바다가 가까이 있었으며 통일을 이야기 할 때면 어김없이 속초가

거론되곤 했다.

이렇듯 아바이는 속초 사람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테마다.

속초의 관광이미지를 아바이로 선택해서 각종 관광홍보물이나 마케팅전략에 일관되게 활용해 나간다면 아바이라는 이미지는 속초관광의 상징으로 각인될 수 있을 것이다.





속초시 수명주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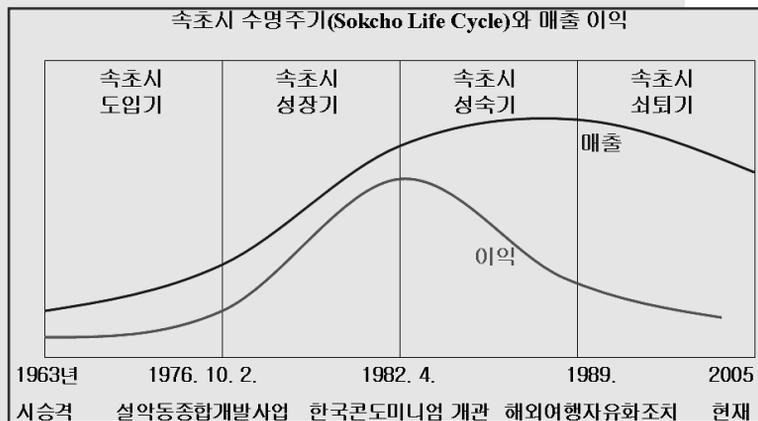
잠들지 않는 관광도시 속초를 꿈꾸며



강원대 최고경영자속초과정 주임교수
조 성 진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Theory)론은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나온 후 성장과 성숙과정을 거쳐 결국은 쇠퇴하여 시장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수명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성숙기와 쇠퇴기 사이에 포화기를 추가하기도 한다.

보통 도입기에는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면서 판매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기간이며, 제품 도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익은 거의 산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성장기에는 시장 수용과 실질적인 이익 증가가 급속하게 증대하는 기간으로 투자가 이때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성숙기는 대다수 잠재 구매자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판매 성장이 둔화되는 기간으로 이익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데, 자사의 제품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의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포화기와 쇠퇴기에는 판매와 이익이 급속하게 하락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된다.



속초시의 수명주기를 살펴보면 속초시의 태동을 도입기로 살펴볼 수 있다. 1962년 11월 21일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1176호가 공포됨에 따라 이듬해인 196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어 새롭게 태어났으며, 기존의 양양군 속초리에서 거주하던 주민과 6·25전쟁으로 이주한 월남민,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이유로 이주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를 속초시 수명주기의 도입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시기는 낮은 속초시 인지도와 기존제품의 소비습관 때문에 완만한 매출증가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시기의 생계유지를 하는 정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속초시 수명주기에서의 성장기로서 속초시의 성장은 1975년 10월 영동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1976년 10월 2일 설악동종합개발사업이 조달청 일괄발주로 진흥기업주식회사와 계약 체결되어 기존의 어업과 농업도시로 알려졌던 속초시를 관광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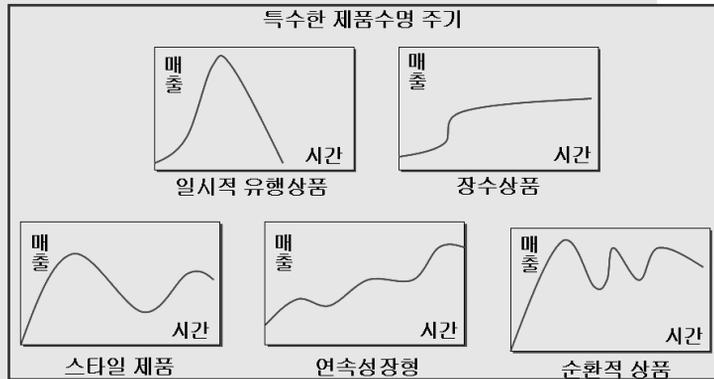
속초시의 성숙기는 1980년 6월 15일 한국콘도미니엄이 삼도종합건설에 의해 시공하여, 1982년 4월 10일 개관했으며, 1981년 국립공원 설악산을 끼고 동양 최대의 종합 관광휴양지를 명성그룹에 의해 속초시 장사동 52만평의 부지에 7월에 본관 768실을 개장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함으로써 관광도시건설과 지역경기 부양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속초시는 설악동종합개발사업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의 성장으로 속초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독점적 우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시작된 해외여행자유화를 통해 해외관광환경이 조성되면서 상당수 국민관광객이 국내관광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되게 되었다. 또한 설악동의 경우는 획일적인 공간 구조 및 시설 노후화로 관광 이미지 및 매력성이 퇴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강원도 대표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핵심역량이 미약한 실정이다. 설악권은 국내 대표 국립공원 관광지로서 효율적 활용모델을 제시가 필요하나 현행 국립공원 이용관리체계의 한계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불가한 실정이다.

제품수명주기론에서 특수한 형태의 제품수명주기가 있는데, 일시적 유행상품, 장수상품, 순환적상품, 스타일상품, 연속성장형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주기형태는 장수상품과 연속성장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쟁과 환경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것만을 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속초시의 경우도 다른 경쟁 관광지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고, 현재의 설악권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즉 블루오션(Blue Ocean)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잠들지 않는 관광도시 속초로 번영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속초시는 어떠한 해야 하는가?

현재 관광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국제적, 정책적 중요도가 확대되면서 기존 대량 관광(Mass Tourism)에 대한 반작용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대에 기초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체험하는 자연친화적 관광형태를 중심으로한 New Tourism이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산업으로서 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개선 등의 효과 등을 기대하는 지자체 급증하고 있어 속초시의 경우 경쟁 관광지 출현에 따른 신제품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속초시의 경우 신제품은 무엇일까?

홍콩은 란타우섬에 홍콩 디즈니랜드와 통충(Tung Chung) 케이블카 사업 등 새로운 국제적 매력물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태관광, 녹색관광, 문화·유적 관광, 그리고 모험 관광 등에 대한 유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매력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신국토구상”에 관광거점 개발 핵심사업 포함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농촌관광·체험 정보시스템” 구축하고자 하며, 해양수산부는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진흥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포기와 선택은 분명해야 한다.

속초시민의 포기와 선택, 속초시의 포기와 선택, 속초지역상인들의 포기와 선택이 잠들지 않는 속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광복60주년을 맞이한 남과북

통일부통일교육위원
적십자속초지구협의회회장
허 춘 권

최근북한 노동신문은 올해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자주통일 운동에 활력을 부여하는 우리민족끼리 가치”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해방60돌과 6·15공동선언발표 5돌을 맞은 올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금강산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상설적인 전 민족적 통일운동연대기구인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북·남·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사실을 거론, “우리민족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모어나갈수있는 민족대단결의 모체,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북한 노동신문은 올해 남북관계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군조선이 주도하자!” 라고 외치고 있으며, 북한 민주조선에 따르면 일본이 대미(對美)군사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은 해외팽창야망 실현이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에 경각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대미지원에 깔린 일본의 검은속심(속셈)’이라는 논평을 통해 일본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과 미사일방어(MD)체제수립등을 거론, “일본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편승, 적극적인 비호 밑에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주되는 수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이어“일본 반동들이 해외팽창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그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일본의 해외침략 전쟁도발이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그에 각성을 높여야할때 “라고 말했다.

이렇듯 북측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긍정적이고 일본의 해외팽창에는 우려를 높이고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2005년 한 해 동안 북측은 뚜렷한 내부적 비전이나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문제만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제시하며 2006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이나 역점부분을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에 역점을 둔 부분과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나 이것은 내부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측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민족공조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공조를 요구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대북적대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을 뿐, 전투적이고 강경한 용어의 구사를 피했다.

이러한 제시된 여러 가지 사료로 가까운 시야에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을 더듬어보면 먼저 정치면에서는 선군사상을 김정일 체제의 이데올로기로 정립해나가기 위해서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적극 활용해 내부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되며 당사업의 주요방향으로 사상교양사업, 경제사업지원,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지도강화를 제시한바 약화된 당의 기능을 더욱 '정상화' 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는 김정일의 혁명적 영군체계확립과 당의 선군혁명노선관철, 국방공업의 강화등 연례적으로 제시되어 온 목표에 덧붙여 '만반의 전투동원 태세확립'이 제시된바 군대에 대한 정치교육과 함께 훈련의 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 증산을 국가적과제로 강조함에 따라 농업문제해결에 군이 대대적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은 국방공업을 군사경제력의 기초로 인식하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군수공업을 더욱강화할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정책 목표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의 결정적 전환을 제시하고 그사업중의 하나로 식량문제해결을 '중대 정치문제'로 설정한것등을 고려할 때, 국정운영에서 전반적으로 경제중시의 온건한 인민배려 노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을 '중대정치사업'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부 협동농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포전담당제'를 활성화하는 등 농업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사회분야에서는 시장경제요소 도입으로인한 사회변화를 경계하고 사상통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서는 형법을 개정하여 외부에서 들어온 비디오, CD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당 조직들은 "우리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셔 버림으로서 반동적인 사상독소와 썩어빠진 부르조아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점에 광복60주년을 맞이한 우리정부의 최근 북한관련전망은 '북핵'이라는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며 지속적인 남북협력사업을 통하여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경제교류협력'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평화번영정책의 구체화를 통하여 설득력 있는 대국민통보와 이해를 강화하고 있다.



광복6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만세를 선도한 애국지사 이석범에 대한 재조명

200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지 60년이 되었다.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점은 한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며,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되찾으려는 혼신의 노력으로 1945년 8월 15일 결국 35년만에 우리의 땅과 민족의 자유를 되찾게 하였다.

그 후 60년 동안 많은 역경을 헤쳐 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안의 경제 강국으로 일어서고, 경제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국민의 힘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우리는 그동안 이뤄낸 민족적 성취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전망하는 60주년을 맞이하여 더 나아가 세계의 흐름속에서 호흡을 고르며 새로운 웅비를 준비해야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겠다.

아직도 갈라져 있는 이 땅을 하나로 잇고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중심 국가로 거듭나야 하며, 평화와 상생의 이념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가로서의 내일을 준비하여 건강한 정신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문화국가로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본원에서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올해, 조국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고(故)이석범에 대해 재조명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

이석범(字는 士一, 號는 雪樵)은 함평인으로 필선양양부사(弼善襄陽府使, 1545년 인종)이춘령의 10대손으로 1859년 유림가문인 양양 임천리(林泉里)에서 태어났다.

일찍 부모를 따라 도천면 중도문리에 이거하여 학문을 닦아 1884년에 고종갑신년에 초시 급제하고 동학란 때에는 반동학군을 조직하여 갑오(甲午)의병장으로 활약한 전통적인 유학의 인물이다. 주로 한학을 공부하여 한학의 대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꽤기만만한 장년시절인 1899년에 중추원의관을 거쳐 1905년 군부주사 겸 군기창기수에 임명되어 국정의 심의에 참여하여 토비(土匪) 평정을 하고 신흥사(神興寺)를 파산에서 복구하였다.

그러나 이석범은 1910년 일제의 잔악무도한 합병통치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인자중(隱忍自重) 하여 오던 중 뜻하는 바 있어 초대 도문면장에 잠정적으로 역임하고 개화의 문물에 눈을 돌려 대포항을 크게 개항하여 물물교역의 경제항으로 발전시

키는데 헌신했다.

그리고 1908년 및 1913년에는 당시 양양 군수 남궁억, 도천면민과 더불어 양양 현산학교와 도문 쌍천서숙을 설립하고 후진의 양성에 힘써 항일정신을 기여하는데 노력하였다.

1919년 3월 1일 망국의 쓰라림 속에서 고종황제의 국장에 참례하고 손병희 등 33인이 창도(唱導)한 기미독립만세운동을 목격하면서 내려올 때 독립선언서 문헌을 버선속에 숨겨 가져왔다.

이에 그 동생 진궁내부주사 이국범(愛族章수여)과 모의하고 장남 능열(재훈, 愛國章수여), 차남 동열(재형) 그리고 족손(族孫)이 되는 이교완, 이교정을 주동자로 하고 문생 중도문 출신으로 김영경, 이종국 등과 양양면 임천리 이교완의 집을 거점으로 하여 최인식 등 50여명을 각면동원 책임자로 정하고 양양 장날인 4월 4일에서 9일까지 연 6일간에 걸쳐 양양읍내, 대포, 물치, 왕도, 기사문 등지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절호한 3·1만세운동을 총지휘하였다.

이 만세운동으로 왜경에게 함흥기 등 12의사를 잃고 동생 국범, 장남, 차남 등 80여명과 함께 투옥되어 혹심한 고초로 4월초 체포되어 함흥 지방법원 원산지청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유죄판결에 공소하여 1919년 1월 26일 경성복심 형사부에서 판결 받고 형(刑)은 면하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일제에 굴하지 않고 1926년 6월 10일 순종 국장에 참례하고 1927년에는 이상재 선생 등과 민족주의 통합체인 신간회를 조직하여 강원도 지부장으로 추임 활약하던 중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2년 9월 1일 정년 74세로 작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지역에서 애국심과 항일 의식을 높이 떨치게 하였으며 양양지역 3·1만세운동은 한국독립사에 기록되어 연연히 빛나는 것도 위대한 선도자로서 지대한 공로이며 또한 민족의 횃불로 추앙하여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선각자로 기억되고 있다.

이제 60여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 일제 식민지시대 항일 애국지사들과 함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들을 애써 표출하면서 그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로 등재시키려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지역 항일운동애국지사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 정리 : 한정규(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일본속의 한국문화와 한국어의 일본어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속초문화원 부원장
오 윤 근

1. 서론

일본은 1867년 왕정복고(王政復古)를 외치는 도막파(倒幕派)의 쿠데타 성공으로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가 폐지되었다. 천황(天皇)을 정점으로 하는 절대주의적 천황제 국가가 완성되어 근대 일본의 성립과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은 구축되었다. 이 정변을 명치유신이라고 칭한다.

일본은 명치유신후 부국강병에 힘써 군을 현대화함으로서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끼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자행하였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36년간 수탈과 압제의 식민지 통치에 시달리는 비운을 겪었다. 그러나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일관계는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일본고대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말하여 준다.

2. 일본 속의 한국문화에 대하여

BC 3세기부터 8세기 초까지의 800 ~ 900년간에 걸친 일본의 고대 문화는 고대 한국인(가야인, 고구려, 백제인, 신라인)들이 일본에 건너가 이룩한 문화임은 학술적으로 고증된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들을 바다 건너 왔다하여 도래인(渡來人)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기간 동안에 도래인이 집단으로 일본으로 망명한 경우가 세 번 있었다.

가) 첫 번째 이동은 BC3세기에서 AD1세기 사이에 있었다. 그 시기는 한반도의 한강이남 지역에서 부족국가들의 연합체인 마한, 진한, 변한 등이 출현한 시기였고 뒤 이어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춘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된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정치 세력 간에 권력 다툼이 있었고 그런 정권투쟁에서 패하여 밀려난 세력들중 일부가 일본에 망명하였다. 대마도를 거쳐 규슈지방에 정착한 도래인들은 벼농사 짓는 법을 비롯한 농경문화와 제사의례, 무속, 농기구등을 일본에 전하였다. 일본에서는 이 농경문화를 야요이문화라고 부른다. 규슈 지방에서 일어난 야요이문화는 400여 년간 발전하면서 일본 전역에 퍼져 나갔다.

나) 두 번째 이동은 4세기 말에 있었다. 서기 391년에 고구려의 19대 왕인 광개토태왕께서 즉위하면서 고구려는 정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북으로는 만주대륙에서 숙신 말갈

등을 북으로 몰아내고 송화강 유역까지 영토를 넓혔고 남으로는 한강 유역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던 백제를 공격하니 백제는 남으로 밀려갔다 그 와중에 전쟁에 진저리를 느낀 왕족 귀족 고관 학자 기술자 등중 일부가 일본에 망명하였다. 이들 도래인들이 일본에 고분(古墳)문화를 일으켰다. 무덤을 웅대하게 꾸미고 그 속에 부장품을 묻고 벽화를 거리는 등의 고분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많은 한문서적이 일본에 전해진 것도 이때이다.

다) 세 번째 이동은 6,7세기 말경에 있었다. 552년에 가락국이 신라에게 망하고 660년에 백제가, 668년에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패하여 멸망하니 신라가 3국을 통일하였다 멸망한 나라의 집군세력중 일부가 학자 승려 의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기술자를 거느리고 일본에 망명하였다. 아마 이들은 일본 동해안의 이즈모에 상륙하여 스루가를 거쳐 야마토 지방에 정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이 일본에 불교문화를 일으켰다. 사찰을 짓고 불상을 만들고 불경을 보급하는 등 불교미술, 불교건축, 불교조각 등이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불교문화를 일본에서는 아스카문화라고 부른다.

라) 백제의 아직기가 일본 오오진천황(應神天皇)의 세자에게 한문을 가르쳤고 백제의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 한권씩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한학을 가르쳤으며 일본의 나라에 있는 호류지의 벽화를 고구려의 승 담징이 그린 것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들이다. 요약하면 야요이문화 고분문화 아스카문화로 이어지는 일본의 고대문화는 도래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3. 한국어가 일본어에 미친 영향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인적교류가 빈번하여지면 그 나라 말이 자국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알 수 있다.

1) 1945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찾아오는 외국인이 드물었다. 따라서 사용되는 외래어도 많지 않았다. 하이칼라(화잇칼라), 바스(버스를 일본어로 바스라 표기함), 잉끼(잉크), 펜, 라디오, 오바 등 몇 마디 되지 않았다.

해방 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6·25 전쟁 때 30만의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외국인과 접촉이 잦아졌다. 근래에는 유학, 어학연수, 관광, 무역 등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졌고, 특히 컴퓨터의 보급으로 외래어가 범람하면서 우리말을 오염시킨다는 우려의 소리마저 들린다.

2) 북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국경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 선봉을 지나 나진(羅津)에서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두만강이다. 두만강 하구(河口)인 나진에서 20km 정도 북으로 가면 서수라(西水羅)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한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의 국경이 합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에는 북한주민의 시베리아 왕래가 잦았다. 특히 시베리아에는 사금(砂金)이 많다고 알려져 일확천금을 꿈꾸는 모험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1904~1905년의 러일전쟁 때에도 러시아인과의 접촉이 있었다. 러일전쟁은 만주와 한반도의 분할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버린 전쟁이었기 때문에 만주와 북한의 압록강과 두만강유역이 전쟁터가 되었다. 오랫동안 부동항(不凍港)을 갈구하여온 러시아는 한반도에 눈독을 드리게 되었고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한국 침략을 획책하니 두 나라가 충돌하게 된다.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두 나라의 전력을 비교하여 본 결과 승리를 낙관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당시 일본 인구는 5천만인데 러시아 인구는 1억3천만, 보유 병력은 일본이 20만, 러시아는 100만, 1년 국가 예산은 일본이 2억5천만엔 러시아는 20억엔, 영국 해군과 러시아 육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일본은 전쟁을 피하고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여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갔다. 이토가 제시한 협상안은 러시아의 만주점유를 일본이 수용하는 대신 러시아는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양해하라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이를 거부하고 만주와 한반도의 북위 39도(원산)이북 까지를 요구하니 협상은 결렬되고 전쟁에 돌입하였다. 러시아는 크로파토킵대장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30만 대군을 투입하였고 일본은 오오야마를 총사령관으로 코타마젠타로를 참모장으로 하여 20만 대군을 4개 군으로 편성하여 출정시켰다. 구로키대장의 제1군은 한반도에 상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유쿠대장의 제2군과 노쓰대장의 제4군은 남만주에 상륙하여 요양의 러시아주력 부대를 공격하고 노기대장의 제3군은 요동반도의 여순 요새를 공격하였다. 일본 육군은 숱한 희생자를 내며 고전하였다. 러시아군이 작전상 후퇴를 하여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이에 도고제독의 일본 태평양 함대가 로제 스트윈스키제독의 발탁함대를 동해 해전에서 대파함으로서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한국 병탄의 마수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토 히로부미를 파한(波韓)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접수하고 헌병을 동원한 분위기 속에서 통감부 설치를 골자로한 5개항의 협약안체결을 강요한다. 조정의 8부 대신 중 5부 대신이 찬성하니 조약이 체결된다. 이 굴욕적인 조약이 을사늑약이다. 이 조약에 조인한 매국적인 5부 대신이 을사오족이다. 이 전쟁 중 북한 주민과 러시아군과의 접촉이 있었다. 스탈린의 피의 숙청이후에도 러시아인과 접촉은 있게 된다. 1917년 11월 레닌 스탈린이 주도한 볼셰비키 공산당 혁명의 승리는 소련을 출현시킨다. 1924년에 테닌이 죽자 소련의 대권은 스탈린에게 넘어 갔다. 대권을 장악한 스탈린이 제일 먼저 한일은 반대 세력에 대한 피의 숙청이었다. 기업과 공장주 지주 등은 부르주아지(유산계급)라는 이유로 처

단되었다. 그 수가 물경 2천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도살장 같은 생지옥에서 어렵게 탈출한자들 중 일부는 프랑스, 독일로 일부는 만주와 함경북도 지방에 정착하였다. 이들을 북한에서는 백계러시아인이라고 불렀다. 이상과 같은 계기로 북한주민의 러시아인과의 접촉이 빈번하여져 로어가 외래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예)

호주머니 - 거르마니

없다 - 니에뜨

성냥 - 베시깨(스베시깨에서)

있다 - 예스치

O. K - 호로쇼

감사합니다 - 스빠씨바

한국인 - 까레이스끼

러시아인 - 루스끼

일본인 - 양뿐스끼

3) 일본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

한국인이 집단을 이루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에 망명하니 한국어가 일어에 영향에 미쳤음은 당연한 현상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어가 외래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어원으로 한 새일어 단어가 생겨났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어가 일본어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라틴어의 85%가 영어에 차용된 것처럼) 이 과정에서 한국어의 종성음중 ㄴ과 ㅅ를 제외한 종성음은 소멸하여 일본어로 바뀌었다. 일어는 종성음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식생활 습관 때문에 일어는 받침이 없는 언어로 되었다고 언어학자들은 설명한다. 6세기초 일왕 천무천황(天武天皇)은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소 돼지 말 등 가축을 도살하여 수육을 먹는 것을 엄금한다. 이를 어기면 엄벌에 처한다.” 이 왕명으로 국민들은 육류를 먹을 수 없게 되자 생선을 먹음으로서 단백질 보충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생선요리법이 발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서 가장 질긴 것이 육류인데 그것을 못 먹고 연한 것만을 먹다보니 식사 때 턱에 힘을 주어서 씹는 동작이 필요 없게 되어 턱관절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음절을 발음할 때에도 턱에 힘을 주어야 낼 수 있는 발음은 할 수 없게 되었다. 가령“기”는 턱에 힘을 주지 않아도 발음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에 종성“口”을 붙여 “김”이라고 발음하려면 턱에 힘을 주어야한다 때문에 일본사람은 “김”은 발음할 수 없다. 그래서 “김치”는 “기무치”로 “합니다. 는“하므니다”로 “그렇습니다. 는 “그러스므니다”로 “용사마”는 “운



사마”로 발음한다. 그러나 종성음 중에도 “ㄴ”과 “ㄷ”은 예외이다. “기”나 “긴”이나 “깃”은 턱에 힘을 가하지 않고도 발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다. 한국어는 다음 법칙에 따라 일어로 변화하였다.

- ◎종성음(받침)의 탈락(소멸)
- ◎음운 변화의 법칙에 따라
- ◎의미(意味)의 변화
- ◎이두(吏讀) 표기를 일본식으로 읽는데 따른 변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동무의 古語 동모에서 とも(도모) (友)
- 가족의 고어 갖바에서 かわ(가와) (友)
- 어데의 고어 어드레에서 いづれ(이즈레)
- 토끼의 고어 오사귀에서 うさぎ(우사기)
- 슬슬(시작하여볼까?)에서 そろそろ(소로소로)
- 턱을 뜻하는 아구통에서 あご(아고)
- 바다 (海)에서 ゆた(와다)
- 귀(耳)에서 듣다의 동사 きく(기꾸)
- 입 (口)에서 말하다의 동사 いう (이우)
- 볼 (視)에서 ほほ(호호) 좌우 두 개이기 때문에 겹쳐서 ほほ라고 함
- 찻 에서 ちち (지찌) 좌우 (두개입으로)
- 바닥치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에서 わたくし(와타구시)
- 살다(거주하다)에서 すむ(스무) (동사)
- 간난이(소녀)에서 かない(카나이) 집사람(남편이 아내를 지칭하는 말)
- 꺼림칙한 또는 하기 싫다는 뜻의 곳은에서 くず(구즈)(쓰레기)와 くそ(쿠소) 변(인분)
- さらば (사라바)는 헤어질 때에 쓰는 안녕, 잘가의 뜻으로 사용되나 이말은 한국어로 험한 세상 죽지 말고 살아남아서 또 보자라는 뜻에서 온 말이다. 일본사람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어 음이 있듯이 한국 사람에게도 발음하기 힘든 일본어 음이 있다. 일본어 글자 し (시)의 탁음(유성음) し를 한국 사람은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여 5 (찌)라고 틀리게 발음한다. 이 발음 때문에 동경에 거주하던 한국인이 수난을 겪어야 했던 슬픈 사연이 있다. 1923년에 동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 관동지방에 대 지진이 일어났다. 관동대진재라고 역사에 기록되어있는데 진도가 높은 강진으로 술한 가옥이 파괴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화재까지 크게 번져 동경일대는 아비규환

의 지옥을 방불케 하였다. 이재민들은 대책이 미흡하다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폭동의 우려마저 있었다. 당황한 당국은 분노를 탄 데로 돌릴 대책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마련된 대책이 한국사람에 대한 모임이었다. “한국사람들이 일본사람을 죽이려고 우물에 독을 타고 방화하며 돌아다닌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한국인 사냥이 시작되었다. 한국 사람은 ㄴ를 5로 잘못 발음한다는 사실이 한국인 색출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한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구절을 읽어 보라고 한다. “じゆう ご えごん ご じゆうせん” (십오원오십전)

한국 사람은 필사적으로 애쓰나 결과는 절망적이다.

“ちゆう ご えごん ご ちつせん”이라고 발음한다.

“ねんだ こ 朝鮮人 じゃねいか”(아니 이 자식 조선인이 아니야?)

그 자리에서 한국인은 몽둥이찜질을 당하여 살해된다. 이와 같이하여 희생된 한국인이 8000명에 이르렀다니 이 보다 더한 만행이 있겠는가. 일본말에 “くだらねいことちいうね”(구다라나이고도오 유나) 라는 말이 있다. “くだらねい”(구다라나이)는 가차 없는, 시시한의 뜻이고 “こと”(고도)는 “일”, “것”이란 뜻이다. “いうね”(유나)는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시시한 소리 하지 말라”고 풀이 된다. 그러나 어원을 따지면 “くだら”(구다라)는 3국 시대 백제를 일본에서는 “くたら”라고 불렀다. (신라는 “しらも”(시라기) 고구려는 “こうらい”(고라이) “こと”(고도)는 “일”, “것”의 뜻이고 “ねい”(나이)는 아닌 의 뜻이다 “いうね”(유나)는 말하지마의 뜻이다. 그래서 “백제 것이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말라”라고 풀이된다. 고대 일본인들은 백제 것을 선호하였음을 뜻한다.

문화는 물과 같은 성질이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고대에 한국문화가 일본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한국문화가 우수한 수준 높은 문화였음을 말하여 준다. 20세기 초 인도 시성(詩聖) 타고(Tagore)는 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영시를 지은바 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었다.)

“The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for the illumination of the East.”

(그 등불은 동방을 비추기 위하여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동방을 비추기 위해 기다리던 때가 드디어 도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은사마 열풍이 일본 열도를 풍미하고 있다. 한류 문화가 동방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우리문화가 더 나아가 세계를 비추기 시작하였으니 만세를 부를 일이 아니겠는가.

4. 문화는 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자랄 수 없다.

이렇게 빛나는 문화를 가졌음에도 지난 날 우리는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보릿고개 넘을 걱정이 태산 같은데, 절대빈곤에 허덕이며 끼니마다 때 끼리를 걱정하여야 하고, 아침에 등교하는 자식의 손에 도시락을 들려 보내지 못하는 처지였으니 문화가 어떻게 예술이 어떻게 하는 말은 서민에겐 배부른 자의 잠꼬대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에서 열한 번째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저승사자 같던 보릿고개도 극복하였다 나름대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되면서 온 국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속초에 박물관이 생겼고 가을에는 설악문화제, 겨울에는 눈꽃축제, 여름에는 해양페스티벌 등을 성대히 치루고 있다. 여러 예술 단체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속초문화원이 있다. 오늘 날 우리나라가 이 만큼이나마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가 무어라 하여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믿고 있다. 최근 종종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잘못된 것들만 끄집어내고 잘한 것은 묻혀지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 정치가를 평가하려면 잘못된 점, 잘 한 점을 모두 끄집어내어 평가하여야 한다.

잘못한 점만을 들추어내어 평가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평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4.19 혁명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립된 민주당 정부를 출범 1년도 못되었는데 총칼로 쓰러뜨린 5.16쿠데타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장기 집권을 피하여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유례없는 악법인 유신헌법을 만들어 인권을 탄압하고 국민의 자유를 속박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일구어낸 그 업적 또한 결코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경제 수치를 비교하면 그 업적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6·25 전쟁이 휴전되던 1953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불이었다. 국민소득 67불이었을 때의 서민생활이 어떠하였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박정권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던 1963년의 1인당 소득은 100불이었다. 10년 사이에 불과 33불의 증가에 그쳤다. 당시 정부는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삼고 온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밤을 낮잠아 죽어라하고 일하였다. 1977년 드디어 국민 소득 1000불 목표를 달성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1034불) 14년 사이에 소득이 10배로 증가하였다. 1989년에 5000불(5418불), 1995년에 처음으로 만 불(11432불)을 돌파하였다. 좀 더 분발하여 2만 불을 달성하면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끼 수 있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1997년 난데없는 IMF로 국민소득이 7천불로 추락하였다. 2004년에야 겨우 14162불에 도달하였다. 선진국들은 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데 빠르면 3~4년 늦어도 5~6년이면 된다는데 우리는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2만 불의 능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만불에 도달하여도 선진국 진입은 물 건너갔다고 한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이었을 때 선진국들은 2만불대였다. 그러나 우리가 만불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선진국들은 4만불에 접근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순위가 세계 200개 국가 중 48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미 2만불을 달성한 나라만도 35개국

에 이른다고 하니 선진국 진입은 아득한 것 같아 안타깝기 만하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초고속 성장으로 한강변에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아시아 네 마리의 용 중에서 으뜸이 라고 세계의 주목을 받던 60~70년대를 그리워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에 향수를 느끼는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발전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설문에 대하여 경제 발전을 택한 응답자가 82%에 달하였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오늘의 위정자들은 깊이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坂の上の雲. 司馬遼太郎着. 文春文庫.
- 2.日本の歴史 井上清着 岩波新書
- 3.日本語の眞相 李寧熙著(재일교포) 文春文庫
- 4.日本の中の朝鮮文化 金達壽著(재일교포)講談社 (東道西器)崔南鉉著 大原出版社.
5. Eastern ways, Western machines



영랑정 정자 복원



속초시 문화공보과장
김 수 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간성군조(杆城郡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영랑호(永郎湖)는 고을 남쪽 55리에 있다. 주위가 30여 리인데 물가가 굽이쳐 들어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가운데로 들어간 작은 봉우리에 옛 정자터가 있으니 이것이 영랑신선(永郎神仙) 무리가 놀며 구경하던 곳이다.” 이러한 근거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정자복원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가지게 한 것 같다.

영랑정 범바위 정자복원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하였다. 그동안 지역의 여론을 들으시고 2004년 정자복원 검토를 지시하였다. 영랑호 범바위정자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시예산 9천만원도 확보하였다.

정자복원 계획이 알려지자 속초문화(2004년도) “그리운 정자 - 옛 문헌을 따라서 가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다.

“문헌상의 기록이나마 아련하게 그려지는 상상의 세계 - 오늘에 되살리고 싶은 정자이다. 어느 세월에 세워졌고 어느 세월에 터 만을 남겼는가. 후세 알 길 없노라지만 늦게나마 속초 시당국이 이 정자를 현양(顯揚)하리라는 소식은 여간 기쁜 게 아니다. 없었던 것도 만드는 세월에 문헌에 생생하게 기록된 정자의 흔적이 아닌 가”

2005년 3월 29일 범바위정자 실시설계를 납품받고 도시과와 건축협약에 들어갔다. 협약에 들어가자 “건축신청 위치가 도시관리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86조와 제8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고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후 정자건립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회신이 왔다. 사업에 있어 예상 밖의 암초였다. 범바위 정상부에서 관광객 휴식공간 및 전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랑호유원지 세부시설 변경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6월 30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가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8월 11일 마침내 건축협약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9월 5일 착공에 이르게 되었고 11월 25일 준공하였다. 복원되는 정자의 명칭은 당초 계획대로 '05년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17일간 시민공모를 하였다. 50건의 정자명칭이 접수되었고 문화원의 고증의견을 참고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영랑정(永郎亭)”으로 결정되었다. 당초에 “영랑정가든”이란 명칭을 영랑정가든에서 상표등록 후 사용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는 가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허청에 문의한 결과 영랑정가든(숯불갈비전문점)은 한식점경영업, 일반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갈비샤브샤브전문점업 지정상품으로 특화되어 사용이 가능하였다. 그 후 지역 서예가의 도움을 받아 영랑정 현판을 제작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경사지에 연산홍, 철쭉 등을 심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했던 주변정비(난간설치, 정자주변 바닥정비)도 시행하였다.

연산홍,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는 늦봄, 속초시민들이 옛 선조 영랑선도들이 놀던 기상대로 새로 지워진 영랑정에서 호수를 보면서 놀며 감상하였으면 한다.



속초역사와 문화의 중심

속초시립박물관 & 실향민문화촌 개관

속초시립박물관 학예담당
정 종 천

1. 건립배경

속초시는 설악산, 동해바다, 영랑호·청초호 그리고 척산온천 등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갖춘 국내 제일의 관광휴양도시로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관광자원 위주의 관광산업과 정책은 명승·경승지의 관람과 더불어 지역의 고유문화를 체험하는 관광패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속초는 청호동 아바이마을로 대표되는 실향민의 도시로 알려져 있듯이 한국전쟁 당시 피난나와 정착한 실향민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실향민문화는 속초를 대표하는 향토문화가 되었



다. 하지만 실향민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향민 1세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그들의 독특한 문화도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속초시는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사라져 가는 실향민문화의 복원과 더불어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한 향토문화체험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을 조성하게 되었다.

2. 건립과정

속초시는 1999년 강원관광엑스포를 통해 명실상부한 한국제일의 관광도시이자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에 속초시는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체험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속초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라는 제목의 학술용역을 강릉대학교에 의뢰하게 되었다.

“속초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용역의 대표적 산물이 속초역사와 더불어 향토민속문화의 연구·보존의 기반이 될 속초시립박물관 건립과 실향민문화의 복원과 전승을 통한 문화체험장이 될 실향민문화촌 조성계획이었다.

이렇게 박물관 건립과 문화촌 조성계획을 수립한 속초시는 2000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에 공공박물관 건립사업을 건의하게 되었고, 강원도에는 실향민문화촌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를 요청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박물관은 2001년 공공박물관 건립사

업으로 확정되었고, 실향민문화촌은 7대문화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를 보조받게 되었다.

하지만 박물관건립과 문화촌조성 사업추진부서의 이원화와 개별적으로 사업추진시 과도한 예산문제 그리고 향후 운영의 활성화를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속초시립박물관건립과 연계한 실향민문화촌 조성을 위한 추진부서를 문화공보과로 일원화하여 2001년 10월 기본설계, 2002년 실시설계와 함께 실향민문화촌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9월 30일 박물관과 문화촌의 모든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11월 4일 개관하게 되었다.

3. 박물관과 문화촌 소개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에 배치된 시설과 전시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관람순서는 우선 실향민문화촌을 관람하고 박물관을 관람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실향민문화촌은 이북5도가옥, 피난민가옥, 부속시설 등 모두 13채의 재현된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이북5도가옥

실향민문화촌의 이북5도가옥은 북한지역 별로 독특한 가옥구조를 갖고 있는 가옥을 재현하였는데, 개성집·평양집·평안도 쌍채집·함경도집·황해도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북한지역의 민속문화와 함께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며, 매일 오전·오후 속초시립풍물단의 공연 또한 실향민문화촌 놀이마당에서 관람할 수 있다.

1) 개성집



상류주택으로 口자형 평면에 기와지붕을 얹었다. 안채, 사랑채, 광채 등이 한 지붕 속에 연이어 건축되어 중앙에 마당, 곧 중정을 이룬 형태인데 口자 구조에는 도시주거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관련된 주거문화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개성집은 한옥 살림집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여주는데 북방에서 발전한 구들 드린 온돌방과 남방에서 비롯된 마루 칸 대청이 한 건물 내에 함께 있다. 폐쇄적인 온돌방과 개방적인 마루가 상반된 구조인데도 서로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생활공간인 안채로 통하는 중문과 남자 주인의 거주 공간인 사랑채로 통하는 문이 따로 있어 남녀유별의 유교 덕목을 반영한다.

2) 평양집

ㄱ자형 평면에 기와지붕을 얹은 중류주택이다. 평양집은 각 방의 아궁이가 부엌 한 곳에 집중되고 부엌을 중심으로 모든 방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한 곳에서 모든 방의 난방을 할 수 있다. 이는 북서풍의 영향을 받

는 평양의 기후 및 지형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중부지역의 일반적인 ㄱ자집과는 달리 대청이 없다.

평양집의 부엌은 한옥 부엌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부뚜막과 아궁이가 일체화되어 온돌난방과 음식조리에 겸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평양집의 부엌은 작업동선을 줄이기 위해 가옥의 꺾임 부분에 자리하고 중부지방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차지하여 겨울에도 내부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3) 평안도 쌍채집



二字형 평면에 기와지붕을 얹은 중류 가옥이다. 안채와 바깥채가 나란히 배치되어 쌍채 집이라고도 하는데 평안도에서 볼 수 있는 민가 구조로 건물의 좌우 끝은 담으로 이어지며 앞뒤채의 간살은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평안도 쌍채집은 기본적으로 평안도 一자 집에서 변형된 구조이다. 안채는 같은 추운 지방이면서도 함경도의 발전(田)자 집과는 달리 부엌과 다른 방들이 一자형으로 배치되었다. 또한 대청이 있는 남부지방의 一자집과는 달리 북서풍의 영향이 강한 평안도의 경우 대청 없이 부엌에서 안방, 옷방, 맏옷방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부엌에서 모든 방의 난방을 한다.

4) 함경도집



서민주택으로 정주간이 있는 田자형 겹집이다. 함경도 지방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철의 추위가 심하므로 방한과 보온을 위해 한 용마루 아래 모든 방들을 배열하는 겹

집 구조, 특히 방들을 앞뒤로 배치하는 발전(田)자 형태를 취한다. 격식을 갖춘 함경도집은 현재 속초를 비롯한 영동북부지방에도 여러 동 남아 있다.

정주간은 함경도집의 큰 특징인데 부엌과 방 사이에 위치한 온돌방으로 벽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주간은 난방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침실로, 평상시에는 식당이나 주부의 친구들을 접대하는 공간으로써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외양간과 방앗간이 정주간과 부엌 옆에 배치되어 추운 날씨에도 작업을 할 수 있고 가축을 돌보기가 쉽다.

5) 황해도집



서민주택으로 초가지붕을 얹은 겹집이다. 한 지붕아래 봉당을 중심으로 안방·사랑방·부엌·외양간 등이 놓이는데 대들보 아래에 모든 방들이 두 줄로 배치되는 양통집이다. 양통집은 재료가 많이 드는 폐쇄형으로 변방이나 두메에서 자기방어와 자영농의 주거형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특히 황해도집은 봉당이 있는 양통집인데 봉당은 주택 내부에

있으면서도 마루나 온돌을 놓지 않은 흙바닥으로 출입 공간 또는 작업공간으로 이용된다. 더욱이 봉당을 통해 외양간이 부엌과 연결되어 있어 가축을 추위와 맹수로부터 보호하며 봉당 앞에 대문간이 있어 환기와 채광을 담당한다. 황해도에는 이와 같은 양통집 이외에도 口자형의 따리집, 一자집, ㄱ자집, 二자집 등이 있다.

나. 피난민가옥



한국전쟁 이후 월남한 실항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초기생활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으로 가옥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작은 골목을 구성되었고 50년대 초반 피난민의 고단함이 그대로 배어있다.

공동주택 2동, 전상수·박송월가옥, 은서네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은 피난민이 한국전쟁 당시 청호동에 거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주거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단체생활을 하는 어민들을 위해 생겨난 살았던 작은 방만 나열된 형태의 판자집 형태를 갖추고 있어 피난민들의 애환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리고 청호동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전상수 가옥은 ‘하꼬방’ 집으로 불리는 가옥으로 그 때의 사정을 말해준다. 물자가 없어 판자, 깡통, 종이박스 등을 구해다가 만든 작은 부엌과 단칸방이 피난민에겐 전부였다. 그래도 중간에 함경도 가옥의 정주칸과 유사한 공간을 마련하여 고향의 전통을 이으려 했다. 박송월 가옥 역시 방의 수요에 따라 측면과 끝에 각각 부엌을 증축한 것으로 길게 연결된 각 방과 작은 부엌은 당시의 생활을 반영한다.

이밖에 한류열풍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가을동화”의 주요 촬영지였던 은서네집을 재현하여 구멍가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동우물과 공동화장실도 볼 수 있다.

다. 부속시설

속초역사와 속초문화원이 사용하게 될 관리사무실, 속초시립풍물단의 연습실 겸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풍물단 연습실이 있다. 이중 속초역사를 소개하면 속초시 동명동에 있었던 프랑스식 고갈형 건축물로 1978년 철거되기까지 37년간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운명을 함께 했다.

속초역사는 1941년 동해북부선(원산~양양)이 지나는 역사의 하나로 세워졌는데 동해북부선은 일제가 양양의 철광석을 군사기지였던 원산으로 수송하려는 제국주의적 수탈의 목적에서 건설한 철도로 종착역인 원산역까지 연결되었다.

해방 이후 속초역사는 38선 이북지역에 속해 북한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규모 폭격으로 철도가 파괴되어 역사의 기능이 중단되었으며, 국군이 북진할

때는 화장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속초 지역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속초역사는 미군항만사령부의 취사장과 댄스홀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56년 4월에 명신고등공민학교가 들어서 불우학생의 배움터가 되었다가 1957년부터는 벽돌공장인 고려산업사가 입주하였다. 이후 동해북부선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속초역사는 1978년 4월 10일에 철거되었다.

라.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1,257평으로 전시동과 관리동 그리고 전망탑으로 구성된다. 지하층은 수장고, 기계·전기실, 주차장으로 구성되며, 1층은 제2전시실, 기증유물실, 기획전시실, 강당과 카페테리아가 있으며, 2층은 제1전시실과 관리사무실, 3층은 학예연구실과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망탑은 5층 높이로 설악산과 함께 동해바다와 속초시를 전망할 수 있다.

1) 제1전시실



실향민문화촌을 관람하고 박물관으로 진입하면 제1전시실을 관람하게 된다. 이 전시실에는 속초의 역사전반과 설악산 관련 산악문화, 신흥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가 전시되어 있는 속초의 자연환경과 지정문화재를 나레이션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와 속초 역사를 비교하며 속초에서 발견된 간돌검, 화살촉, 투겁창, 교지, 지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적 제376호로 지정된 속초조양동선사유적의 발굴현장 모습과 발굴된 청동기시대 유물 그리고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원해본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기모형 퍼즐을 맞춰보며 청동기시대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느껴볼 수 있다.

산, 바다, 호수 등 속초의 자연환경과 사계절 민속을 소개한 터널을 지나면 설악산과 속초에 관련된 전설을 음향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설악산에 서식하는 주요 동·식물을 확인하고 영북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제례의식인 설악산신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이어서 설악산에서 산삼을 캐던 심메마니의 채삼모습과 산삼 그리고 심메마니들의 은어를 정보검색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농촌가옥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김종우가옥(도유형 85호)과 김근수가옥(문자 64호) 모형을 보고 신흥사 전경과 함께 신흥사 경관을 만져 볼 수 있으며 속초내 불교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볼 수 있다. 불교유적을 관람하면 속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속초8경 영상물을 관람하고 박물관내에서 보이는 농촌풍경과 설악산을 감상하면서 제2전시실로 이동한다.

2) 제2전시실



제2전시실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어민들의 다양한 어로기술을 소개하고 있으며, 많은 어구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어민들의 뱃소리와 함께 고기잡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어서 속초의 가장 대표적인 성황제인 외옹치 성황제와 고풀이 굿과 장승과 짐대를 살펴보고 청호동 아바이마을로 향하는 갯배에 오르게 되면, 실향민의 삶을 표현한 사진들과 초기 청호동의 모습을 재현한 디오라마를 보게 되면서 실향민문화촌에서 느꼈던 실향민의 애환을 다시금 느끼게 하고, 속초에서 처음으로 연희된 북청사자놀이(중요무형문화재 15호)과 사자탈 그리고 연희에 등장하는 탈을 관람하면 제2전시실 관람을 마치고 기증 유물실로 향한다.

3) 기증유물실

울곡학파의 마지막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한말 성리학자인 매곡 오윤환선생의 유품을 전시한 기증유물실로 매곡선생이 평생 동안 쓴

일기와 매곡의 사상세계 그리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학무정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고, 매화병풍과 울곡전서 그리고 후학 양성을 위해 서당에서 읽혀진 많은 고서들이 전시되어 있다.

4) 기획전시실

제1·제2상설전시실과 함께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작품발표회장과 박물관 주관 하에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다.

5) 전망탑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여 전망탑에 오르면 동쪽으로는 속초시가지와 동해바다가 내다보이며, 서쪽으로 울산바위·토왕성폭포 등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고, 남쪽으로 청대산과 함께 펼쳐진 농촌풍경이 보이며, 북쪽으로는 고성지역의 신선봉을 볼 수 있다.

4. 살아있는 박물관 운영

이상과 같이 실향민문화촌과 속초시립박물관의 시설물과 전시실을 소개하였는데 박물관과 문화촌은 전시물만 관람하는 박제형 박물관이 아닌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놀이 그리고 공연이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실향민문화촌의 이북5도가옥은 사계절 숙박이 가능하도록 건축되

었다. 그리고 가옥내 전시된 가구와 일부 생활도구 등은 만져도 보고 사용도 해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므로 북한지역의 전통가옥에 하루를 지내며 우리조상의 생활민속도 체험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립품물단을 활용하여 북청사자놀음과 같은 북한지역의 민속예술도 관람하거나 함께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민족은 철마다 다양한 민속을 갖고 있다. 세시풍속이 가장 대표적인 민속이라 할 수 있는데 박물관에서는 문화촌과 더불어 다양한 세시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설날(세배, 차례상차림)·입춘(입춘방 붙이기)·대보름(연날리기, 북청사자놀음)·단오(그네, 창포머리감기, 수리떡)·한가위(널뛰기, 송편 빚기)·동지(팥죽 나눠주기) 등 대표적인 명절과 절기에 전통민속을 체험하는 행사도 개최

될 것이다.

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실과 카페테리아 등에서는 속초의 옛사진, 오징어공예전시, 시화전, 각종 경연대회 작품전시를 통해 상설전시와 함께 다양한 전시행사도 병행되어 개최되어 속초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은 물론 향토문화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석봉도자기미술관 그리고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등 문화기반시설과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속초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서 속초의 향토문화와 민속을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이 속초의 역사·문화·민속·자연 환경에 흠뻑 빠져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을 운영할 것이다.





不感を 맞이한 雪嶽文化祭

속초문화원장
노 광 복

올해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설악문화제는 1966년 설악산을 금강산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금강산 사진작가로 활동하다가 월남하여 평생을 설악산 개발과 홍보에 몸 바친 당시 예총속초지부 최구현 지부장에 의해서 최초로 개최되게 된다.

최구현 지부장은 설악산 개발의 동반자인 이달영씨와 함께 관광호텔을 건립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상인들을 유치하여 관광상가를 개설하는 등 설악산의 관광개발에 앞장 섰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환경이 여의치 못해 관광객 확보에는 기대에 못 미치게 되고 이에 최구현 지부장은 설악산의 홍보를 위해 문화행사 위주의 설악제를 기획하게

된다. 제1회 설악제는 속초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총속초지부 주관, 예총강원도지부의 주최로 10월1일 그 서막이 오르게 된다.

제1회 설악제는 설악산과 설악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막식에서 최구현 지부장은 개막식 연설문에서 설악산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잠재력을 인지하고 있으며 설악산의 미래를 낙관하고 그 심경과 함께 설악산 개발의 10년을 기념하면서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서 개최하는 작은 잔치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최구현 지부장은 설악산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성장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으며 설악제가 설악산을 널리



알리는 문화예술행사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1회 설악제는 문화예술행사와 함께 산악인을 참여시켜 등반행사도 개최하고 있는데 이로써 40년 설악제 행사의 골격을 형성하게 된다. 산악행사는 이기섭 박사가 결성한 설악산악회가 참여하고 산악인의 무사고를 비는 제전행사와 전국규모의 등반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게 되는데 이러한 산악행사의 거대화는 설악제의 주도권이 예총에서 산악인들에게 넘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산악인의 등반행사 등 산악행사 위주의 설악제는 제5회부터 종합문화제 행사로 확대되지만 제7회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등산대회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게 된다. 제14회 때에는 소비절약과 자연훼손방지를 위해 중단되는 등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되며 결국 17회부터는 속초시 주관하에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개최되게 된다.

이러한 시민의 날 행사위주의 관주도형 설악제의 탈피를 위하여 제22회 설악제부터는 위원장을 속초시장에서 김용구 문화원장으로 바꾸고 백영일·최용문 부위원장 등 임원진 개편을 통해 민간주도의 설악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 이듬해 윤봉경 위원장은 지역문화행사의 자료화를 위해 준비과정, 세부내용과 행사성



과를 기록한 제22회 설악제 백서를 발간한다. 하지만 민간위주로 설악제위원회를 개편하며 설악제의 대도약을 계획하였으나 그동안 관주도의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로 1996년 제31회 설악제는 설악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며 금년으로 4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설악문화제를 이끌어간 위원장은 초창기 관주도하에서 속초시장이 당연시 되었다. 그러나 민간주도를 추구하면서 이기섭, 김용구, 윤봉경, 정태갑, 김종록, 김여수, 조동룡 등 민간위원장이 설악문화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으며 현재 조수용 위원장은 2003년 38회부터 설악문화제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로 불혹을 맞이한 설악문화제는 다시금 국제적인 향토문화축제로 발전을 시도하며 개최되었다. 그 실례로 사무국의 민간이양을 통해 행사의 질적향상과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등의 공연예술단 상호방문 공연과 같은 다양한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을 펼쳤다. 최초 최구현 지부장이 소신을 갖고 의도한 설악산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한 당시는 작았지만 현재는 작지 않은 다채로운 향토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멀리 있는 듯 가까운 러시아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마련해준 우수문화원 해외문화교류사업 일환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와 성페테르부르크(일명 레닌그라드)를 다녀오게 되었다.

생애 처음 러시아를 만나면서 한번쯤은 접해 보고 싶었던 터라 가슴 벅찬 기대와 함께 조금 더 긴 여정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모스크바와 성페테르부르크를 다녀와서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한 정 규

5. 27

09:30 - 인천공항 10출구 H카운터 도착(한빛관광 강창호씨와 일행 만남)

13:00 - 수속 후 인천국제공항 출발

17:15 - 모스크바(2공항) 도착(가이드 김상태)

19:30 - 석식(현지 한식당)

20:30 - IZMOILOVE ALPA 호텔

5월 27일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 10번 H카운터에 도착하여 같이 출발할 일행(3차로 출발될 문화원장, 간사 등)들과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출국준비를 하고 러시아 항공에 몸을 실었다.

긴 시간을 날아 현지시간 17시 15분경 모스크바 제 2공항에 도착했다. 대륙이 넓은 곳이

기에 공항도 크겠다 생각에 공항을 접했지만 그다지 크지 않고 오래된 듯 어둡고 음침하였다. 입국절차 시스템이 낙후되어 유럽과 아시아계 등지에서 찾은 관광객들은 입국이 지연되는 것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었으나 아랑곳 하지 않음에 조금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서둘러 공항 밖으로 나가 구름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보며 러시아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음에 흐뭇해했다. 모스크바 공항을 떠나 호텔로 가는 도로 좌우측에는 자작나무들이 한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러시아의 문호 푸쉬킨을 비롯해 많은 문인 작가들이 자작나무 꺾질에 시를 쓰고 글을 썼다고 한다.

금요일 오후라 한쪽 차선은 심하게 정체되고 있었으며, 일찍부터 러시아는 5일제를 실시한 나라로 과거 공산주의 시절 국가에서 준

땅으로 '다차' 라는 개인농장을 운영하면서 주말에는 모두가 가족휴가를 즐긴다고 하였다.

건물구성은 아파트 형태로 3,5,7,9~21층 등 홀수로 지어졌고, 높은 건물이 그다지 없었으나 현재 롯데백화점 40층이 건설 중에 있어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 비슷한 유럽형 양식의 건물로서 외곽은 허름하였고 정부에서 보수이외의 증축을 허가하지 않기에 실내만 화려하게 가꾸었다고 하였다.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주택인 주상복합형 건물이었다고, 거리에는 삼성과 엘지 기업의 대형광고 간판이 눈에 많이 띄었다. 현대와 기아, 대우자동차 등 국산차가 많이 다니고 있음에 국력이 드높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이곳에 사는 교포나 유학생들도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또한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도 높다고 했다. 또한 벤츠, 아우디 등 외제차가 눈에 많이 보였고 허름한 차도 많이 있음에 빈부의 차가 심함을 알 수 있는 점도 있었다.

러시아는 한반도 116배로, 넓은 대륙의 수도 모스크바는 대로가 직선으로 조성되어졌고 도로의 중앙에는 차로보다 항상 넓은 공원을 조성하여 숲을 조성하고 있어 도시개발과 자연을 배려한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다.



시내에는 '미뚜루' 라는 전기버스와 '뜨랄레이' 전차가 운행되며, 모든 차보다 우선하여 다니지만 전력문제로 고장이 나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여름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점차 감소되는 추세라고 하였다.

러시아인들은 슬라브 민족이 85%정도로 대체적 얼굴이 작으며 피부가 하얗고 다리가 늘씬한 미인형이며, 15%는 고려인을 비롯해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현지 고려인(까레이쓰끼)들은 근면하고 성실하여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며 이 때문에 머리가 얼지 않게 하기 위한 털모자와 강추위를 막는 밉크코트, 무스탕 등을 많이 입는다.

밤10시가 되어도 날은 흰해 이것이 백야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6월 20일경부터는 밤이 4시간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날 새벽1시정도에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며 잠이 들게 되었다.

5. 28

09:10 IZMOILOVE ALPA 호텔출발

10:00 붉은광장, 레닌묘(밀납), 성바실리사원, 궁백화점 견학

12:10 동양박물관

13:00 크레몰린궁(트로이츠키야탑, 12사도원, 대포의 왕, 우스펜스키사원, 종의왕, 이반대제의종주 등 견학)

15:50~16:20 아르바뜨 거리(예술의거리)

17:00 모스크바 대학

17:35 레닌언덕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은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로 드넓은 숲으로 조성된 공원이 한눈에 들어와 감탄을 하게 했다.

일행들과 함께 바삐 움직이면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붉은광장(러시아어로 붉다는 아름답다의 최상급)이었다. 세계 여러 인종의 관광객이 있었으며, 넓은 광장의 오른쪽은 레닌묘, 왼쪽은 최고의 브랜드가 있다는 궁백화점, 정면은 양파와 아이스크림 같은 지붕이 있는 성바실리 사원이 있었다. 이반대제시절 다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원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 건축가를 암살하려 했으나 지시를 받은 자객은 차마 건축가를 죽이지 못하고는 눈을 빼 버렸다고 한다.



레닌묘는 승전기념일(5월 1일)이 아니면 현지인들도 쉽게 볼 수 없다고 했으나 우리가 도착한 날 임시 개방함으로 밀납 된 레닌묘를 볼 수 있었다. 이 일대를 견학하면서 200년이 넘는 옛 전성기 시대의 제국 모습을 보는 것같아 가슴이 벅찼다.

동양박물관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미술, 도자기, 의복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국전시관에는 우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북한에서 기증한



도자기가 많았다. 박물관장과 관계자 그리고 우리일행은 준비한 선물교환과 간단한 대화로 문화교류의 장을 열기도 하였다.

이어 크레믈린궁으로 이동하였다. 간단한 검문을 통과하고 들어서자 공산당 서기장을 선출한 인민대회 궁전이 우측에, 좌측은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하여 있었으며, 상시 관람이 개방된 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건물마다 쌍독수리상이 있었는데 힘의 균형을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18세기 이반대제가 자국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청동 큰 대포와, 200톤이 넘는 큰 종도 자리하고 있었다.



아랑게스 러시아 정교 사원을 들어서자 간단한 예배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카펠라로 성가를 불러 종교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 예배시에는 좌측에 평민인 볼셰비키, 우측은 황권인 빌셰비키가 예배를 보았다던 사원이다. 이반그로즈는 36kg나 되던 옷을 입었으며, 아들의 관자노리를 때려 죽게 한 왕으로 그의 무덤이 사원내에 있었다.

이어, 일행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거리음악을 선보이고, 프랑스의 마로니에 공원을 연상케 하는 이름 없는 화가들이 스케치하는 풍경이 있는 거리, 아르바뜨(예술)거리를 관광했다.



다음은 로마노소프가 설립했다는 세계 20위 내 있는 모스크바대학을 방문했다. 25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으로 180여개 전세계 대학들과 교류를 하고 교수 1인당 학생 8명 정도로 수업을 받으며, 현재 200여명 정도 한국유학생도 재학 중에 있다. 러시아는 기초물리학, 화학, 의학이 우위 학문이며, 중과수기술이 고수라고 한다. 모스크바대학 캠퍼스는 사과나무가 많았고, 시민들이 가을이면 모두 걷어가기도 한다고 했다.

5.29

09:30 IZMOILOVE ALPA 호텔

12:00 모스크바 뿔코바 공항

13:20 성페테르부르크

(구. 레닌그라드)도착

17:30 에르미타췌 박물관(겨울궁전)

18:00 로스트랄 등대, 네바강, 오로라호

20:30 PULKOVSKAYA HOTEL

흐린 날씨속에 모스크바를 떠나 성페테르부르크로 이동을 하였다. 2시간여 비행기로 이동, 레닌그라드로 알려진 도시를 만남에 사뭇 기대가 벅찼다.

네바강이 펼쳐져 있는 곳에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에르미타췌 박물관을 만나게 되



었다. 사진기와 가방휴대가 불가하여 짐을 맡기고는 역대 황제들이 거쳐하였다는 겨울궁전을 관람할 수 있었다. 네 개의 건물로 연결된 박물관은 수많은 문화유산으로 전시해 감탄사만 내뿜게 하였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은 1분씩만 감상해도 5년이 걸린다고 한다. 러시아 황제가 거쳐한 궁의 내부에는 금으로도 장하는 등 사치와 화려한 생활로 권력을 과시하여 쇠퇴를 예감했었다는 것이다. 피터대제로부터 니콜라이까지의 벽화, 10월 혁명의 종결을 알리는 2시10분으로 정지되어 있는 시계, 나폴레옹 전쟁에 참가한 335명의 러시아 장군 초상화가 있는 전쟁 갤러리, 귀족이 되기 위해 바쳤다는 황금공작시계, 넓고 화려

한 연회장,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를 비롯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터파울 루벤스 등 고귀한 그림과 그리스 로마 석고상(원본), 이집트 유물과 미이라까지 전시되어 있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네바다 강 일대는 깨진 유리병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이곳에서는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이 이곳 부둣가에 와서 병을 깨뜨리는 풍습이 있다고 하였다.



러일전쟁 당시 한국까지 왔었다는 오로라호가 정박된 채 전시되어 있었고 현재는 중동해군사관학교 현장실습실로 사용 중에 있다고 한다. 600명이 탑승할 수 있고 길이는 130M, 1917년 10월 25일 저녁 9시경 오로라호의 155mm 공포탄이 발사되면서 혁명이 시작되었고 이로써 로마노프 왕가가 몰락하게 된 것이다.

5.30

09:30 PULKOVSKAYA HOTEL

10:00 피의성당, 주변시장

11:00 이삭성당, 청동기마상

12:30 여름궁전(분수공원)

14:00 스몰리니 성당(현. 대학 연수원)

16:40 피터플 요새

17:30 예술의광장, 푸쉬킨동상

22:30 PULKOVSKAYA HOTEL

이곳 날씨에 적응이 된 것인지 흐렸지만 쌀쌀함을 느낀다.

아침부터 피의성당을 관람 후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과일이나 과자, 옷, 술가게 등이 있었는데 이곳은 보통 10시정도에 가게 문을 연다고 하였고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도 술가게는 진열관계로 손님들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어 우리일행은 표트르대제의 여름궁전을 관람하게 되었다. 1704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1711년부터 4년간의 복원 공사에 아름다운 모습을 겸비한 곳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삼손(러시아)이 사자(스웨덴)의 입을 찢는 조각상 분수 외에 많은 조각상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뿜고 있어,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게 하였다. 정면 200여 미터의 운하를 따라 좌우 대칭하는 반듯하고 잘 정돈된 나무들이 숲을 이룬 정원이 아름다워 절로 명상에 젖을 수 있는 분위기다. 분수는 전기의 힘이 아니라 물에 큰 낙차를 이용하여 뿜는다고 하는데 하룻밤 사이 저수지 크기의 담수시설에 물을 담아 공급하는 분수라고 한다. 여름궁전 분수에서 직선 운하를 따라 정원을 벗어나면 멀리 핀란드만과 닿은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후 '토스트에프스키'의 '죄와벌'의 모형인 사도바야 도로,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로쉬'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알렉산드르 발레극장, 러시아 아버지와 이디오피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근대문학의 아버지 '푸쉬킨' 동상이 있는 예술의 광장(좌시들이 많음)을 관람했다.

여름정원과 항만청 주변을 지나 포트르와 파벨의 이름에서 딴 피터플 요새에 도착하였다. 늪지대에 건물을 짓고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이용하여 주민을 이주한 계획도시, 요새안에는 포트르대제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을 만지면 관절이 낫는다고 해서 손과 무릎이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었다. 한여름에는 현지인들이 요새 앞 강 주변에서 썬텐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대체적으로 비타민D 부족으로 인한 각기병 예방차원에서 썬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5.31

10:30 PULKOVSKAYA HOTEL

15:40 모스크바 도착

21:35 모스크바 공항 출발

10:00 서울도착

오늘은 한국으로 가는 날이다. 아침부터 버

스 고장으로 인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른 점심 후 성페테르부르크 공항으로 이동, 모스크바로 이동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전 쇼핑센터에 들러 일부 물건을 구입하고는 모스크바 공항에서 이동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번 문화탐방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성페테부르그는 어머니의 품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1990년 공산주의 붕괴 후 러시아는 급속도로 경제도약을 꿈꾸고 있었다. 그 속에 우리나라 경제가 일부 자리하고 있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였으며, 현지 고려인들 또한 강한 한민족의 근성으로 생활함에 가슴이 뿌듯했다. 가는 곳마다 펼쳐진 문화예술은 참으로 러시아의 잠재된 힘이 아닐까 판단해 본다. 도시 전체를 관광자원으로서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러시아인들의 생각에 부러움을 샀지만 국가경제가 앞선 우리나라의 모습에 위안을 삼는다.

우수문화원관계자 해외연수를 마련해 준 전국문화원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같이 동행하신 여러 원장님과 간사들께 잊지 못할 추억과 앞으로 더욱 발전된 문화원의 위상과 정립에 힘을 더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중국 내 조선민족의 통소 역사 검토

통소연구회 총무이사, 북청사자놀이음보존회 예능조교
동 선 본

차 례

1. 머리말 2. 인터뷰기록내용 3. 맺음말

1. 머리말

필자는 올해 2005년 한여름 7월10일부터 17(일주일)동안 중국 연길 지역 통소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이곳에는 중국 조선동포들의 문화예술의 보급과 전승에 공로가 크신 김남호 선생을 중심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녹취, 조사하고 이를 중점으로 기록하였다.

김남호 선생은 일찍이 이곳 연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곳 문화예술에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수많은 곡을 작곡 작사 하였고 그 후 문화예술 조사 작업에 많은 공로가 인정되는 유일한 중국 조선 동포 문화예술인이다. 이를 인정하는 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던 조선민족 문화 예술 활동의 유일한 산증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무더운 여름 선생을 수소문하여 만나는 그 순간에 김남호 선생 연길시 북가도 어는 건물 5층에서 30여 분의 통소연주인들을 모아 놓고 통소 연습을 하던 중이었다. 첫 만나는 순간에도 “통소음악을 살려서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찾아야 한다고”하는 열정에 어린 말씀에 본인은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날은 일주일에 1-2번 모여서 연습하는 날이므로 연습목적은 9월3일 진달래 광장에서

9.3절 공연이 있어서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며 연주원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30여분이 모여서 열심히 연습하는 중이었으므로 내일 다시 만나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다. 이 이튿 날 숙소에서 전화를 하여 만나기로 한 본인이 머무르고 있는 숙소 찾아오셔서 인터뷰를 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 하게 되었다.

중국연변지역의 통소 음악이나 분단이후 남북에서 불려지는 통소음악은 변하지 않고 고스란히 전승되면서 60수 이상이 작자미상의 곡으로 남아 면면히 전해지는 것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악곡에선 전해지는 선율과 박자는 전통음악에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음악에서도 감히 표현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그 시대에 통소 곡으로 연주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이는 오늘날의 음악적 이론으로 평가하기가 이해가 아니 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오랜 세월동안 통소는 조선의 역사가 시작 되면서 조선의 민중악기로 한 시대 대중음악 예술로서 그 중심을 이루며 어느 마을에서도 통소를 빼놓고는 대중에 오락을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시대 민

족의 애환과 오락적 기능을 대표하여 온 악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어느 시절부터 홀시 되어 오고 오늘에 이르러 앞으로는 우리통소음악을 발전시키고 대중화시키는데 있어서 중국조선 동포와 남, 북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우리민족의 공동된 역사문화를 통소소리에 엮어서 보전 전승해야 하고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 이유 단한가지로서 각기 중국조선동포와 남, 북이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음악예술분야가 나가는 방향이 달라 오늘에 이르러 그 색체가 분명하면서 서로가 이해를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통소”음악만큼은 50년이 지난 지금이나 50년 전에 지금이나 다르지 않고 면면히 흘러흘러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연주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우리순수 전통음악이고 그 가치는 무엇이라 평가할 수 없는 귀한 우리문화의 소산이다.

2. 인터뷰 기록 내용

* 아래 부분은 김남호 선생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필자가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다.

우리민족의 민속놀이에는 통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고려사 악지 당악기 편재 이조세종 때 조선반도에서 소가 계량되어 통소가 서역으로부터 중국을 통해 조선반도에 전해진다.

1) 조선족 민족문화에 통소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

통소가 우리민족의 정신문화에 지배와 희로애락과 민족적 오락에 중요한 악기이다. 통소는 사람들의 신세와 마음과 한을 통소가락에 실어 오늘날에까지 이어온 우리 민족의 민

중 악기이다. 물론 그전부터 통소는 대중적 민중악기라고 보여지나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곳 연변에서 보고 겪은 관점에서 통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통소는 조선민족의 유일한 악기이며 함경도에서 중국 땅에 발을 붙이면서 이곳에 통소는 시작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 민족놀이로는 1920년 중국조선민족 제1 농악대 등 길림지구에 대중 농악대가 한동안 활동했다. 이때 이 농악 놀이에는 농악 쇠납과 통소 놀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흑룡강성 모흥면 보흥촌 평성촌의 젊은이들의 통소 및 저대로 소악대를 조직하여 아리랑 도라지 양산도 등을 연주하며 다녔다.

2) 중국땅 밀강촌에 통소를 처음으로 전파한 한상권 노인

1930년대 함경북도에 한상권은 두만강을 건너 밀강에 북과 통소를 매고 통소 보급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증언하며, 연길에 평안구 유신평 마을에서는 야학당을 꾸리고 살고 있던 황용준은 광복 전부터 몇몇 사람들로부터 통소 해금 그리고 북장단에 능한 이창식 등과 함께 명절이나 마을에 경사가 있으면 마당에 모닥불을 지피고 농악 놀이 등 통소 놀이를 자주 한 것을 김남호 본인이 직접 목격 하였다고 한다.

이런 통소 놀이는 안도현 장항 신춘 농악대 연길에 팔도 농악대 등 농악대가 여기저기 생겨나서 통소놀이 또한 매우 번성하였으며 이러한 놀이는 해방전부터 매우 활성화 되면서 소그룹으로 조직된 농악대와 통소조는 해방 이전부터 활동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고. 특히 동북삼성에 퍼져 사는 조선 민족 대중문화 활동에 지대한 역할을 하여왔다고 한다.

3) 주은래 주석 앞에서 연주한 조선족의 통소

그 이후 통소는 민간에서부터 국가 행사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과시하였고 1955년 5월 안도현의 통소연주가 리홍개는 민간예인으로 뽑혀 북경 회인당에서 국가지도자 모택동 앞에서 통소가락(풍구타령, 애원성을) 불렀고, 그 해 12월에는 연변 전주 제 4차 가요 무대 콩쿨에서 1등 수상을 하였으며 1953년 8월 15일 황룡현 토대항 북산춘 맹경춘을 위시한 그는 1957년 연변 예술학교로 초청되어 통소교수로 있었다고 증언 한다.

1953년 11월에 있었던 전국 제1차 민간 예술 회복 공연에 참여하여 연길에서는 주용찬 윤용운 등 8명이 참가하여 농악 놀이대와 통소 합주는 표현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957년에는 강기범 등 10명으로 구성된 민간 기악 합주단이 수도 북경에서 통소를 연주하여 우수 종목으로 선정되었고 그 이후 주은래 주석등 중국 최고지도자 앞에서 통소 연주를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4) 민간 예인족의 조직

1951년 가을 연길에서는 민간 예인족이 조직되었으며, 김천성을 조직자로 문태봉 남선생 전아바이 허영갑(이름을 기억할 수 없어서 그 때는 주로 그렇게 칭호 하였다고 함. 양갑이란, 논물을 보는 사람을 칭함) 허득본 장생철 리용극 김일근 박지선 김창선 김석산 김덕선을 포함한 통소 애호가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명절이나 휴가일이면 연길 중앙에 오는 손님을 맞는 날과 시에서 하는 경축기념 일을 비롯한 마을 회갑잔치 및 대중이 모이는

자리이면 이 예인족들이 통소를 연주하며 민중과 같이 하는 놀이로 특히 이들은 각 시현에서 찾아오는 민간 통소 애호가들과 교류를 하며 활동을 자주 벌려 왔다고 하며 이들은 대중문화활동이나 민속놀이를 조직하여 주.성.현의 대중공연 문예에 참여하여 많은 명예증서를 수상하였다고 김남호 선생은 기억을 더듬어 증언한다.

이 민간 예인족들은 통소 합주 통소 이중주 독주 해금독주 피리독주 민간합주 주요 종목으로는 통소 곡의 길군악 성주푸리 애원성 새타령 농부가 싱아위 검무곡등 전통 통소 곡과 일부 민요 반주곡을 연주 하였으며 이들 연길시 민간 예인족은 문화대혁명 1965년부터 1975년 전까지 활동을 왕성하게 해왔다고 한다.

그 시기 문화예술이 대중성에 발을 붙혀 존재했던 통소는 전문 예술 단체까지 그 영향력을 과시 하였다. 1951년 연변 문공단 음악인들은 대중 속에 들어가 전통학습에 들어갔다. 한편 이들은 우제강 이태인 최지인 문봉남 유성태였다. 리일룡(통소 연주가이며 대부분 이 분의 제자들이라고 증언) 등은 민간 예인들을 초빙하여 전통 민요와 창법 그리고 판소리와 기악 연주법을 학습하여 무대에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 때 통소연주를 담당한 백문순 그의 고향인 조향처 삼봉돈에 있으면서 근처 마을에 풍수를 보며 통소를 잘 부는 전병록을 찾아갔다고 한다. 전병록은 연주뿐만 아니라, 제작에도 능했다고 한다. 자기를 찾아온 백문순을 보고, 젊은이가 통소를 배우겠다고 찾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쾌히 승낙하였다고 한다. 그 후 백문순은 전병록을 스승으로 모시고, 통소 연주법뿐만 아니라 제작법까지도

알뜰히 배웠다고 한다.

5) 악기의 개량과 통일

그 후 백문순은 통소 계량에 참여하여 그 기초를 닦았다. 1952년 하얼빈에 홍용강성 가무단 숙소에서 머물며 A조(음키) 연주되었던 일반적인 통소 B플렛으로 만들어 붙었던 통소의 계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증언 이 B플렛의 통소는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변각지에 보급 되었다고 한다.

1950년 연변 문공단내에서 연변 연극단으로 세간이 나고 이름이 연변 가무단으로 개칭 민악대로 꾸렸으며 통소놀이 합주도 공연을 하였다. 이미 연변에 연길현문공단을 비롯하여 각현, 시에 문공단이 민악대를 꾸려 민족의 전통음악을 되살리는 전기가 되었다고 전하며, 왕충현 문공단과 활룡현 문공단도 민악대를 조직했다고. 이와 같이 전문 민악대가 생겨나자 여러 중학교에서도 또는 지역에 60이 넘는 노인들도 이 통소 대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독보조마다 북,장구를 갖추고 통소 합주를 연주 하는데 이 때 주로 연주되었던 곡은 라질가를 제일 많이 연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주 모습은 어디를 가나 각 도청에서 주로 볼 수가 있었다. 한 시기에 이렇게 연변 가무단이 통소 합주곡 라질리의 보급과 함께 백문순 통소 연주를 백통소란 별칭을 갖게 하였다고한다.

6) 통소 문화의 현주소 밀강촌

(문화 대혁명이 끝난 후 민족이 전통 예술의 해방을 막고 속박에서 벗어난 훈춘시 밀강촌의 통소) 1992년 개혁 개방이 심화되면서 밀강현(당위화) 공산당을 칭함 당에서는 밀강촌의 통소 문화를 조선족의 전통문화라고

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더욱 많은 촌민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하였다고. 훈춘시 문화체육국 에서는 훈춘시 밀강이 통소문화를 단순한 지방 민속놀이로 볼 것이 아니라 연변 조선족 전통 문화에 발전 추세라고 인정하고 시 문화관과 시 예술단이 업무 지도자들을 밀강에 보내어 목적 있게 통소 연습 강습반을 조직하여 실질적 통소 문화마을로 성장하도록 이루게 하였다고 전한다.

시 문화관은 밀강 통소마을을 훈춘시 지정 관리 항목으로 정하고 당시 25,000원을 내어서 200개의 통소를 구입 할 정도로 지원을 하였다. 시 문화 관광 예술단에서는 소연극대를 파견하여 40여 차례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시작은 하였으나 시작은 반이라고 반을 이루었으나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 시기 도고리 농사(개인 땅 소유) 문화혁명 전에는 집체 농사를 지었으나 그 이후는 도고리 농사 땅은 정부소유지만 어느 기간 동안 개인이 경작하여 수확물을 개인이 소유하게 하니 집단의식 보다는 개인의식이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통소교육에 잘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향당서기관 간부들이 술선수범으로 강습에 참가하여 주민들을 이끌었다.

통소 음악은 듣기는 좋으나 배우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보기에는 간단한 대나무 통이지만 소리를 내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내기까지는 육체적 정신적 피곤이 많이 요구가 되었던 것이었다고 말하며, 밀강촌에 촌민들은 당정에서 내려온 가르침과 지도하에 100명의 연주원을 양성했다고 한다. 밀강촌은 300여호에 한 집씩 한사람 꼴로 통소를 불게 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밀강의 통소는 실로 남녀노소 최장 68세

최저 10세까지 그 층이 다양했다. 일찍이 20세기 1930년대부터 7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 시점이 밀강의 통소는 이미 국내외에 많이 보도된 바 있고 1993년 전국 변경 문화 주각 건설을 표현했고 95년 중국 연변 풍경관광 활동 개막식에 참가 국내외 손님들에게 선보여 97년 중앙 TV방송에 전대 종합 예술에 한국 포함 MBC TV에 방영 북경 북권TV에 방영 96년 훈춘 국제 관광 교역회 개막회에서 표현 2001년 새천년 새 시기 중국 대륙 소강 관광활동에 중앙 TV장기 편에 중국 땅에서 제일먼저 해가 뜨는 곳 국내외 정월에 각종 매체에서 통소의 고향이란 제목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고 97년 8.15연변 조선 자치족 문화국에서는 밀강 연변을 통소의 고향이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7) 경제와 문화

어떤 문화에 발전은 경제를 떠날 수 없고 경제에 의거 해야지만 그 경제 발전 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성립 되었다. 밀강은 새로운 경제 문화발전과 함께 밀강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통소 문화를 알려 찾아오는 밀강촌 관광객 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통소 소리로 봉사하고 있다고 전하며. 지금도 밀강촌 통소마을에서는 늘 통소 소리를 마을에 상징처럼 여기고 있다.

어떤 문화의 발전이 모두 경제를 떠날 수 없고 경제에 의거해야 하지만, 문화 또한 그 경제 발전에 복무해야 한다. 경제를 떠나 문화의발전은 운운 할 수 없으며 문화를 떠난 경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조선 민족의 민속 문화를 전목하면서 21세기는 우리 민족 문화를 알리고 우리 조선 민족의 문화를 찾아 보존하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아야한다. 그중 밀강촌은 조선 민족의 통소 소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8) 근대와 오늘날의 연변 통소

98년 연변 우수관자개 학교에서 음악 교육 사업에 종사하던 김래억과 김남호가 연변 통소 구락부를 조직하여 연길시 가도와 서도를 다니며 조사, 시내 가도 여러곳에서 70여명의 통소 애호가 들을 찾아보았다고 한다. 50년 또는 60년대에 연길민간 예인조에서 활약하던 민간 예인 김창수 83세 박지선등 노인 들을 이분들을 중심으로 15명으로 구성 되어 연길 통소 애호가 구락부를 세우고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증언한다. 주임 김남호는 처음에는 활동장소가 없어서 이른 새벽 천년호 연목가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이곳저곳 길림성 “산림조사 연구원”, “생일청사”, “연길시 천산복” 노인 활동 연길신시가 회의실을 옮겨 다니며 활동을 하였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지금도 활동장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활동 현재는 북상가도에서 꾸미는 통소와 각설이 민속놀이 대회 참가를 준비 하고 있다고 하며, 2002년 연변 창립 50돌에 여러 행사를 시내 시대광장 국제 무역 청사등 여러 거처에서 여러 차례에 공연활동을 하여 왔다고 한다. 그 후 두만강 국제 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연변 조선족의 이체로운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그 후 중앙 TV 취재를 여러 차례 방영한바 있다.

통소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김남호의 활성방안 첫째, 통소는 우리민족의 고유 악기인데 통소 놀이를 발전 시켜 우리 고유의 전통 놀이임을 밝히고 계속 전승하여야 한다. 통소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통소에 관한 인식을 바로 세워야한다. 통소는 우리 민족의 전통 악

기 인데, 통소 놀이를 발전 시켜 계승 하는 과정에 오락을 하며 후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의 기계와 정신을 떨쳐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유쾌히 놀며 나날을 유쾌히 보낼 것이다. 둘째는, 우리 통소 놀이를 통하여 자아오락이나 하며 손님 대접이나 하고 문화사업이 잘되었다는 소문이나 나게 할 것이다. 셋째로는 아니면 돈을 벌 목적으로 관광 사업으로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마지막 셋째가 돈을 벌 목적으로 민속문화를 발전시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모든 놀이가 이렇게 될 순 없지 않은가. 이미 광복 전 몇 십 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통소놀이 정황을 대략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대로 회상해 보았지만, 통소문화는 확실히 우리 문화의 회로애락을 반영한 우리 민족 문화로써 우리 기계와 멋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이어주는 대중이 즐기는 놀이 일뿐 아니라 중화민족이 대자연 속에 살아가는 여러 형제 민족들로 보고 즐기는 우리 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 북경에 통소 연주 8사람이 갔는데, 그 소수 민족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소가 올라가 불면 몽고족 사람들이 올라서서 거저 춤을 추고 전쟁이 난 시대와 같았다. 이내 우리 민족만 좋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통소를 불면 그 내들도 좋아했다. 지난날들도 오늘도 당과 정부 해당 부서에서도 지지를 받아왔다. 다음으로 통소 역사 문화를 잘 지키려면 지난 역사와 오늘 현실을 잘 총결 짓고 우세와 열세를 잘하고 방향을 묘하게 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목적에 도달하느냐는 말이다. 지난 역사 시기에 모든 활동을 돌이켜 보면 잘 되었다는 곳은 없다. 시장 경제 시대에 오늘 현재는 더욱 그렇다. 밀강촌이

통소 마을로 잘 꾸려져 나가는 데는 왕 정부와 시 정부에 사업 중심에 올려놓고 도와주고 지지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당당히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2002년에 본인이 통소 문화를 한층 높은 문화층으로 발전시킬 일념으로 통소 예술을 발전 시켜보고 연길 통소 활동 정황보고 민속성의 살아 숨쉬는 밀강촌 등 3문장을 써서 당시 주 문화부 국장과 토론하고 이 보고서를 주 당의 선전부와 주 정부에 돌려 연길에 조선족의 특색을 통해 통소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지와 성원을 요청 하였다. 토론 끝에 방용선 국장은 다 좋는데 구체사항을 할 수 있는 연길시 문춘부에 가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2002년 3월 연길시 문춘부에 가서 보고서를 올렸다. 당시 국장도 없고 여성 부국장이 있었는데 구체 사항을 김과장과 토론하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놓고 후에 통보를 하겠으니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4년이 지난 오늘에도 좋다 나쁘다 말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형국이다.

3. 맺음말

이상은 김남호 선생이 그동안의 메모와 기억을 더듬어 회상하며 통소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위 증언을 통해 중국 내 조선민족이 전승해온 통소 음악문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증언을 해주신 김남호 선생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마무리 하자고 한다.

제17회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들

제40회 설악문화제 개막식전

2005년도 문화상

3개 부문

문화예술 부문 / 전 태 극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 김 일 동

체육부문 / 박 상 호

수상자 공적사항

【 문화예술 】

수상 후보자	전 태 극(全泰極)	
생년월일	540806	
본적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767번지	
주소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421-6	
소속	한국민예총 속초지부	
직위(직급)	지부장	
추천 사유 (공적내용)	<p>1. 주요공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진가연합 속초지부를 결성하여 속초사진문화발전에 선도적 역할 ○ 찾아가는 사진학교 등 각종 교육.강좌를 통해 지역사진문화의 질적향상과 저변확대 및 대중화에 이바지 ○ 개인전 · 기획전 · 회원전등 창작활동을 통한 중견작가로 후학들에 모범 ○ “어린이날 가족무료 촬영”, 속초지역 저소득층 노인대상 “영정사진 무료 제작” 배포 사업 등 지역 예술인으로써 시민들에게 봉사 ○ 속초시 교류도시인 중국 훈춘시 조선족 노인일 대상으로 “영정사진무료 제작사업”, “재중국동포 청소년백일장” 개최를 통해 동포에게 새로운 조국관과 동포에 정립에 기여함. ○ 중국훈춘시 촬영가협회와 정기적이 사진교류전을 갖고 초청전시를 통해 한-중간 사진문화의 정립과 양국의 시민에게 불거리제공 및 사진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줌.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창립에 참여하여 속초지역 예술인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창작 및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부장으로서 지역 내 타 예술단체와 수평적 교류를 통해 단체 간 이해의 폭을 넓힘. <p>2. 주요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97 : 사)한국사진가연합 강원지부 사무국장 ○ `95~`01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사진위원회 위원장 ○ `96~`02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원지회 사진위원장 및 운영위원 ○ `00~`04 : 강원문화재단 문화지원기금 심사위원(사진전시분야) ○ `02~현재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지부장 <p>3. 수상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 강원도지사 표창 ○ `00년 : 속초시장 표창 ○ `01. `03 : 강원도지사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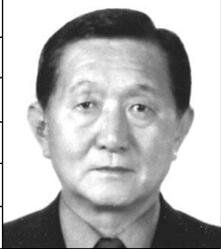
수상자 공적사항

【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

수상후보자	김 일 동 (金 - 東)	
생년월일	270806	
본적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132번지	
주소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삼성맨션 303호	
소속		
직위(직급)		
추천사유 (공적내용)	<p>1. 주요공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송 마을금고 창립, 장사동사무소 내에 출자금 146천원으로 시작, 1주 민 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 장학사업 실시 경영수지부문 자산대 적립비율 강원도 전체2위를 거두었고 IMF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는 등 이사장으로 19년 동안 재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고성군 소재 장천리와 사진리 행정구역 편입('73.7.1)을 기념하여 장사동민 화합 한마당 잔치를 1997.7.6 속초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 하여 현재 9회째 실시 하여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함. ○ 강원여객, 동해상사터미널 유치, 속초고등학교 유치위원으로 활동하여 1998년 장사동 속초고등학교 신축교사로 이전 완료하는 등 지역개발에 기여하였음. <p>2. 주요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4~'02.2 : 해송(장사)마을금고 이사장 ○ '89.4 : 속초시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 '92.4 : 장사동 개발위원장, 장사동 설악문화제위원장 ○ '93.5 : 설악문화제 운영위원 ○ '93.6 : 속초시시정 상담위원 <p>3. 수상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년 : 강원도지사 표창 ○ '87년 : 내무부장관 표창 ○ '88년 : 제 24회 서울 올림픽대회 참여증서 ○ '88년 : 체육부장관 올림픽 기장증(참여장) ○ '95년 : 새마을금고연합회 표창 	

수상자 공적사항

【 체 육 】

수상후보자	박 상 호 (朴相浩)	
생년월일	430503	
본적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6	
주소	속초시 교동 서울대명1차 아파트 1301호	
소속	속초시 씨름협회	
직위(직급)	수석 부회장	
추천사유 (공적내용)	<p>1. 주요공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9년부터 속초시 와 강원도 대표선수로 씨름.유도발전에 이바지함. ○ 속초시 씨름의 산 증인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 각종 씨름대회 유치(제 43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99년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 발대회등) ○ 제16회 강원도지사기 씨름왕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할수 있기까지 속초시의 씨름 발전과 저변 확대에 노력함. <p>2. 주요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 : 속초시 씨름협회 전무이사 ○ `82 : 속초시 씨름협회 부회장 ○ `88~ 현재 : 속초경찰서 보안지도위원 ○ `90~ 현재 : 속초시 씨름협회 수석 부회장 <p>3. 수상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년 : 강원도 경찰국장 감사패 ○ `90. `91 : 로타리 클럽 ○ `92년 : 속초상고 교장 감사패 ○ `95년 : 속초시장 감사패 ○ `97년 : 농협중앙회 회장 감사패 	



2005년 속초예총 주요사업

사단법인 한국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 제10회 설악눈꽃축제기념 속초사진협회 사진전

속초사진협회에서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속초시 설악동 매표소 입구에서 제10회 설악 눈꽃축제기념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협회회원 17명이 향토색 짙은 창작품을 출품하여 겨울 설악을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 락 페스티벌 D&G 공연

1월 24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700여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락 페스티벌 D&G 정기공연이 화려하게 개최되어 관객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시민을 위해 무료 공연으로 추진되었으며 락 그룹 D&G 는 연예협회 소속으로 현재 활동중이다.

▶ 속초예총 제16차 정기총회

속초예총 제16차 정기총회가 3월 5일 오후 3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 결산(안)승인 및 2005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승인이 결의되었다. 기타토의 안건에선 6월에 중국 훈춘시에서 개최되는 훈춘국제가요제를 범 예총차원에서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기존의 아동도서보내기 사업은 물론 연극공연, 백일장 및 미술우수출품작 시상 확대와 기간제 예술강사 사업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 훈춘시 인민정부 인사방문

훈춘시와의 교류의 일환으로 우수지 훈춘시 교육국 부국장 및 이채순 훈춘인민정부 인사가 3월 25일 속초예총을 방문하였다. 방문목적은 속초예총과의 문예교류 확대방안 및 훈춘시 교육국과 속초교육청의 자매결연 추진건 등이 논의되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제1회 화랑영랑 축제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가 4월 16일 오후7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예총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속초시립합창단, 설악엔젤스콰이어, 소프라노 박상영, 바리톤 변승욱 및 대중가수 녹색지대, 편승엽, 정수라 등이 출연하였으며 600여명이 입장하였다. 사회는 임주연씨가 보았다.

▶ 제22회 강원연극제

제22회 강원연극제가 강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개최되었다. 속초에서는 극단 굴렁쇠가 작품명『늙은 도둑이야기』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 강원연극제 4년연속 입상이란 기념비적인 업적을 달성하였다.

▶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5월 5일 오후12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금강 장애인 주간보호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작은음악회가 연예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사회는 연극인 김귀선씨가 진행한 가운데 연예협회가 준비한 음악연주와 장기자랑 및 경품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 제6회 중국 훈춘시 국제가요제 예심

제6회 훈춘시 가요제 예심이 연변 조선족자치주 훈춘시에서 5월 14일 개최되었다. 한기학 예총회장, 장규호 명예회장, 강종철 연예협회 지부장이 심사에 참석하였으며 본선 진출자 26명을 선발하였다. 5월 13일 속초를 출발하여 15일 동춘향운 편으로 속초에 도착하였다.

▶ 제16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

제16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 행사가 5월 22일 저녁6시 30분 속초예총(회장: 한기학)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로비에서 개최되었다. 개막식 연계사업으로 제30회째 생일을 맞는 미협전 테이프 커팅을 개최 미협전에 남다른 의미가 부여되었다. 속초예총 7개협회 지부는 문인협회(지부장: 김춘만), 미술협회(지부장: 정봉재), 연극협회(지부장: 신오일), 연예협회(지부장: 강종철), 음악협회(지부장: 임수철) 국악협회(지부장: 권종식), 사진협회(회장: 이왕선)가 앞으로 20여일에 걸쳐 15개 단일사업을 추진하였다.



▶ 제30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영북지역 최고 연륜과 창작발표회의 상징인 제30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제16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 5월 20일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 연극협회 정기공연

제16회 속초종합예술제를 기념하여 연극협회 속초지부 정기공연이 5월 23일 19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지난 4월 18일 강릉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22회 강원연극제 최우수 수상작이며 개인상(석경환) 수상작인 『늙은 도둑이야기』이며 극단 굴렁쇠가 시민을 위해 무료 공연을 하였다.

▶ 제11회 설악 주부 백일장

제11회 설악 주부 백일장이 문인협회 주관으로 5월 21일(토) 10시에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시제는 시부와 산문부 동시에 “그릇”, “시댁” 이 주어졌고 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 주부 100여명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 제16회 설악 학생 백일장

제16회 설악 학생 백일장이 주부 백일장과 같이 5월 21일 엑스포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설악 학생백일장으로는 영북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대회로 자리잡은 대회로 지역 청소년 1,500여명이 시 산문 부문에 참가 성황리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시제는 시부 및 산문부에 꽃, 산불, 계단 등이 주어졌고 심사는 속초문인협회 회원 10명의 심사위원을 구성 속초문화원 사랑방에서 대회 직후 심사가 이뤄졌다.

▶ 제6회 설악 주부미술 한마당

5월 21일 오전10시에 엑스포광장 상징탑 및 주재관 지하 세미나실에서 제6회 설악주부미술 한마당 사업이 미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향토미술 저변확대와 미술발전을 도모코자 마련한 본 대회에 수채화, 사군자부문 등에 영북 지역 자모, 주부 등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 제16회 설악 학생미술 실기대회

지역 아동미술 발전과 현장예술 실기능력을 배양코자 마련한 제16회 설악 학생 미술 실기대회가 5월 21일(토) 엑스포 상징탑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유치부, 초등부 저 고학년, 중 고등부에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부분으로 나뉘어 주위의 아름다운 풍광 그리기에 지역 청소년 1,800여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수상자는 상장 및 미술용품이 상품으로 지급되었으며 (주) 신한화구에서 시상품의 일부를 협찬하였다.

▶ 제1회 가훈 고사성어 무료회호

제16회 속초종합예술제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가훈무료회호 써주기가 5월 21일 오전 10시에 관광엑스포 행사장에서 백일장 및 미술실기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 제5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사진협회 주관으로 5월 22일 10시에 속초시 수복탑 광장에서 제5회 설악청소년 사진촬영대회가 개최되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진예술의 기초지식과 사진예술의 이해도 증진을 꾀하고자 마련한 대회로서 사협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하나이다.

▶ 국악협회 정기공연

국악협회 정기공연이 “춤, 소리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6월 11일 오후7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 창립공연에 이어 금번이 2번째 정기공연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농악분과에서 준비한 북소리(모듬북), 두 번째는 고구려 관현악단의



천지소리(국악관현악), 세 번째는 무용분과가 준비한 마중, 검무등으로 춤의 소리로의 소리로, 네 번째는 도문메나리농요, 마지막으로는 농악분과 무용분과 연합으로 준비한 소리날려 흠어 지고(상모판굿)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 제22회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이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협회 연중 가장 커다란 핵심사업이다. 출품회원으로는 동문성, 이왕선, 박민효, 허인순, 최상후, 홍인복, 김성호, 최홍영, 최이권, 최용철, 김형관, 고장윤, 강영진, 최종화, 장무식, 김진용, 이상동 등이 40점의 작품을 출품 전시하였으며 제5회 설악청소년 사진촬영대회 입상자 시상식 및 전시회도 함께 진행하였다.

▶ 제13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예/ 본심

5월 28일 오전10시에 문화회관 대극장 및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강원도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13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행사가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피아노부문 및 관현악 성악은 예 / 본심이 연속하여 진행되었다.

▶ 제16회 설악 청소년 건전가요제 및 댄스경연대회 본심

연예협회 주관으로 제16회 설악 청소년 가요제 및 댄스경연대회가 5월 29일 13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5월 14일 예심을 거친 18개 팀이 열띤 노래 및 댄스경연을 벌였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 제14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5월 30부터 6월 4일까지 연극협회 주관으로 제14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그래! 우리들의 꿈을 펼치자”란 주제로 치러진 본 대회에 심사위원으로는 극작가 노경식, 극단 화동연우회 대표 유용환, 노종팔 한국연극협회 감사가 맡았다. 도내 11개 교고가 참가한 금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속초여자고교는 10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제8회 전국청소년연극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는 출전권 및 한국연극협회에서 지원하는 대회참가비 200만원이 수여된다.

▶ 제10회 국제아동 미술교류전

제10회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미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전시회에는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우수수상작 250점, 일본 요나고시 60점, 일본 사카이미나도시 35점, 중국 훈춘시 30점, 대만 대동현 50점, 미국그레삼시 20점, 등 총 445점이 전시되었다.

▶ 제8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

제8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가 6월 9일 오후7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5월 28일 제13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에서 금상 이상 수상 학생들로 출연자가 구성된 연주회로서 평소의 기량을 발표회 형식으로 공연하였다.

▶ 제6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제6회 훈춘시 국제가요제가 7월 5일 중국 길림성 훈춘시 구락부에서 예총이 주최하고 연예협회 주관으로 성대히 개최되었다. 5월 14일 예심을 통과한 26명의 출연자와 1,500여명의 훈춘시 관람객이 입장한 가운데 훈춘시장 및 훈춘시 각급인사는 물론 속초시의회의원, 배동욱 강원도예총회장, 한기학 속초예총회장, 강종철 연합지부장 등등의 국내인사가 참가하였다. 연극인 김귀선씨의 사회로 치러진 본 대회에 영예의 대상은 꼬마인형을 부른 신안가에 사는 라금화 동포에게 돌아갔고 부상으로 대형TV와 강원도지사 상장이 수여되었다.

▶ 신원하 모노드라마 공연

극단 청봉 정기공연으로 신원하 모노드라마 “노교사의 마지막 수업”이 2005년 7월 20-21일 오후 7시30분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되었다.

금번 공연은 원로연극인 신원하 정년퇴임 기념공연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들에 걸친 공연에 제자를 비롯한 선후배 예술인들 다수가 무대를 찾아서 많은 호응과 박수를 보내어 정열적인 무대를 빛나게 하였다.

▶ 2005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지역을 찾은 피서철 관광객과 속초시민의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문화축제인 『2005 한여름밤의 문화축제』가 7월 21일부터 시작하여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14일까지 예총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전반 4회는 대한민국 음악제의 홍보무대를 겸했으며 음악축제 종료 후 5회를 합해 총9회 사업을 실시하였다.



▶ 극단 굴렁쇠 민방위 연극공연

극단 굴렁쇠는 이제까지 지루하기 만한 민방위 교육을 재미와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속초시청 민방위과와 손잡고 계도연극을 개발하였다

극작가 오태영씨가 대본을 쓰고 김귀선씨의 연출로 전후반기에 민방위 연극공연을 개최한 바, 의외로 좋은 평가가 이어져 민방위 교육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7월부터 올 연말까지 공연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모범사례로 꼽혀 타 시군에서도 내년 부터 민방위 연극을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신주꾸 양산박 초청공연

2005년도 연극협회의 가장 커다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천막극장으로 세계적인 명성의 일본 신주꾸 양산박 초청공연이 9월 6일 - 7일 엑스포 광장의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초청공연은 한일우정의 해 2005기념사업으로 신주꾸 양산박 순회공연(한국 7개 도시) 중 속초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였다.

제일교포 2세인 김수진 연출의 공연작 “바람의 아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연극작가 가라주로의 작품으로 행방불명인 애인을 찾는 한여자와 바람의 소년을 동경하는 청년 과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엽고 슬픈 현대판 “오르페오와 유리디체” 라고할 수 있는 매우 서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서문일초 수채화로 보는 속초 풍경 개인전

미협 속초지부 회원으로 활동중인 여류작가 서문일초씨가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8월 17-23일까지 서울 라메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이후의 속초순회전 이었으며 총34점 작품을 출품하였다.

▶ 찾아가는 문화활동 - 연극공연

2005 찾아가는 문화활동 연극공연이 극단 굴렁쇠 주관으로 10월 9일 고성군 오봉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직접 문예사업을 공연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마련한 취지로 굴렁쇠는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을 마련하였다.

▶ 2005 시민과 함께하는 속초합창대축제

속초합창대축제가 10월 9일(일) 오후7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속초예총 주관으로 700여명의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현재 속초시내에서 활동하는 주요합창단원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대표합창단인 한국남성합창단이 초청합창단 자격으로 메인 프로그램으로 공연하였다. 출연합창단은 속초시립합창단, 영동극동방송여성합창단, YMCA 여성합창단, 설악엔젤스유스콰이어, 영동극동방송여성합창단, 한국남성합창단 등이었다.

▶ 김동하 서예개인전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김동하 개인전이 개최되었다.

1997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개인전으로 김동하씨는 현천 조달순 선생의 사사로 그간 수많은 단체전 및 초대전에 출품하였으며 대한민국서예대전, 강원서예대전 등에서의 다수의 수상경력과 대한민국서가협 초대작가, 강원서예대전추천작가 등으로 현재 활동하면서 지역 서예부흥에 많은 기여를 하고있다.

▶ 제4회 갈피 독자 초청 시낭송회

제40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제4회 갈피독자 초청 시낭송회가 문협과 설악문우회 공동 주관으로 10월 15일(토요일) 오후 5시30분 아남프라자 20층 스카이 라운지 커피숍에서 개최되었다. 낭송에는 속초평생교육정보관, 문예창작반, 주문진문학회원, 강릉재능시낭송회원 소속의 독자 19명이 낭송회를 가졌다.

▶ 제8회 속초문인협회 거리 시낭송회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문협 주관으로 제8회 거리 시화전이 개최되었다. 협회소속 작가의 詩작 40점을 전시하였으며 몽골형 텐트내에 액자에 작품을 제작, 이젤을 이용하여 전시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설악문화제 기념 속초사진협회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40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사협 주관으로 속초사진협회 회원전이 문화제 행사장에서 개최되었다. 협회소속 작가의 작품 50점이 몽골형 텐트내에 이젤를 이용하여 작품을 전시하였다.

▶ 설악문화제 40주년 회고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40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지난 40년간 설악문화제 및 속초시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사진전이 사진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40여점의 출품작 대부분은 지역최고 원로 사진인 최구현씨의 작품으로 40주년을 맞이하는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특별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 2005 설악아동화 거리전

제40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2005 아동화 거리전이 미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설악문화제에 지난해에 이어 선보인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이들이 화이트펜으로 그림그리기, (문)흙으로 만들기 (동물, 컵, 사람), 케릭터 그리기, 풍선에 그림그리기, 수수깡으로 꾸미기, 케릭터 그리기, 성냥으로 꾸미기, 스텐실 판화, 호일에 매직으로 그림그리기, 흙 그림 곡식으로 꾸미기 등 수백점을 전시하였으며 작품출품은 임광미술학원 이었다.

▶ 중국 훈춘시 해당화예술단 초청공연

제40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중국 훈춘시 조선족 해당화예술단 공연이 예총 주관으로 10월 15일(오후7시), 16일(오후8시30)에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출연작품으로는 무용(고양의 장고소리), 사랑이샘솟는집, 날리리아, 무용(햇님아래서), 전자풍금 독주(목민의 노래), 산딸기, 욕심이 하늘갈데, 무용(물동이 춤), 가져가, 무용(조개춤), 화개장터, 무용(우리 명절이 좋아요)의 프로그램으로 공연소요시간은 매회 60여분이었다. 금번 훈춘시 해당화예술단 방문단 단장은 김옥 훈춘시 제1실험소 학교 교장이었고, 최화, 김홍매 음악무용 지도교사와 인솔교사 5명 학생17명 등 총27명이 예술단으로 참가하였다.



▶ 2005 설악가요제 왕중왕전



속초 연예협회 주관으로 2005 설악가요제 왕중왕전 행사가 10월 15일 오후 8시에 제40회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설악문화제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설악문화제 등에서 상위 수상자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왕중왕전”을 개최함으로써 40주년의 의미를 부여하고자하며 지역 최고의 노래실력가를 선발하며, 시민에게 흥겨운 노래잔치를 마련코자 주관협회에서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 사업을 전개하였다.

▶ 제9회 설악서예 백일장

10월 15일 오후2시 제40회 설악문화제 기념 제9회 설악서예백일장이 속초중학교 체육관에 서 개최되었다. 160여명이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학생부 및 일반부 한문, 한글, 사군자 부분으로 나뉘어 사업이 전개되었다.

▶ 제9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

2005년10월26-11월3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린 제9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한 속초여자고등학교 누에고치 팀이 단체우수상과 개인우수연기상(송지나)을 수상하였다. 속초여고는 제16회 속초종합예술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14회 강원도청소년 연극제 대상 수상학교로 강원도를 대표하여 전국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속여고로서는 금번전국대회에 6년만의 출전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

▶ 제8회 속초교사 리코더 앙상블 정기연주회 공연

11월 11일 19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제8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정기공연이 예충주최로 개최되었다. 리코더 앙상블 멤버는 소프라노 - 이은영, 장선영, 알토 이수미, 김신혜, 박현정, 이영화, 이은경 테너 - 권미진, 박 경우, 김영지, 이종경, 최미영, 정준교, 베이스 - 최슬, 김창호, 김재운, CB-최종길, 지휘-이병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 제10회 속초서우회전

제10회 속초서우회전이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예총 후원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개막 테이프 컷팅은 22일 오후2시에 개최되었고 22명의 회원이 34점의 작품을 출품 전시하였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인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가 중앙인준을 11월 24일 득하여 정식협회로 등록되었다. 1995년 지부인준을 목적으로 속초예총 정기총회에서 회원협회로 인정하여 그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지만, 중앙인준이 없는 상태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10여년만에 정식지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회원19명으로 정회원 10명 준회원 9명으로 지부인준 받았으며 이로서 속초예총은 7개 정식 회원협회 지부를 확보하게 이르며 초대지부장으로서 김성학씨가 선임되었다.

▶ 2005 극단 오름 공연

2005년도 연극의 피날레를 장식할 무대는 극단 오름에서 준비한 오태영 원작 “통일익스프레스”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매일 저녁7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통일을 갈망하는 자와 통일이 되지 말아야 기득권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밀도 있고 심층적으로 묘사된 작품이다. 연출 유택민을 비롯해 석경환, 황헌중, 정경숙, 김설희, 임상호, 홍명관, 스텝 이지혜, 김일태, 박희식, 정병근, 김민혁 오영식, 등이 맡았다.

▶ 2005 설악팍스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설악 팍스오케스트라 공연이 12월 7일 오후7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05 설악팍스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이 공연장을 가득 매운 관객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설악 팍스는 2003년 10월 속초음악 Studio & ACadeemy로 설립, 사회 각종 봉사활동과 지역 대중문화 예술인 조기발굴 및 육성 예술문화교류사업 및 지역의 문화발전 기여하고 자 설립취지를 두고 활동중이다.

▶ 갈피 35집 발간 및 문학축제

강원 최고의 연륜을 자랑하는 문학지 갈피 35집 발간을 기념한 문학축제가 12월 17일 오후 5시30분 아리랑카페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갈피지에는 시에 박명자, 김춘만, 이충희, 이화국, 이구재, 장승진, 채재순, 지영희, 김영섭, 권정남, 김종현, 서귀옥, 최월순, 김향숙, 최숙자, 조인화, 최명선, 장은선 이선자, 박대성, 신민걸 회원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소설에는 윤홍렬, 강호삼, 수필 이은자, 서미숙 동화 이희갑 등의 작품으로 4*6배판 335쪽으로 꾸며졌다.

▶ 2005 송년 미술전

2005 송년미술전이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의 일정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의 문인화 장르에 미협 회원작품 전시되었다. 출품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한국화 - 백종숙, 윤재복, 옥명준, 이지숙, 이해경,
- 서양화 - 공재숙, 김영복, 김종학, 박동국, 박종철, 박홍기, 서문일초, 안치홍, 이동수, 이선미, 이준열, 정광섭, 최금란, 최낙민, 허인순, 조정남
- 조 소 - 김문석, 도창록, 박영근, 신동진, 장국보, 장승복, 정봉재
- 공 예 - 고주리, 오희원, 정경연
- 서 예 - 김광희, 김동하, 김송금, 김은숙, 조성익, 최홍영, 함연호, 윤춘복, 이덕우
- 문인화 - 김길자,

▶ 속초예술지 6호발간

속초예술 제6호가 12월 31일 발간되었다. 전문예술지를 지향하며 속초예총 7개 협회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글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술, 사진협회의 지상갤러리, 백일장 우수작 소개, 국제교류 사업소개, 문학평론, 국악이야기의 다양한 예술기고문과 2005년도 속초예총 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수록하였다. 배부처는 전국예총 및 향토예술인, 유관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005년 속초민예총 주요사업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 2005 예술축전

'2005예술축전'은 '제1회 영랑화랑축제'와 함께 영랑호 일대 및 화랑도 체험관광지, 범바위 주변 등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문학위원회의 '재중국 동포시화초대전'과 사진위원회의 '사진으로 보는 우리이야기'는 호수주변과 속초시중앙가로(서독약국-KT한국통신)에 가로수를 이용하여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선보였다.

- 문학: 거리전시회 - **재중국동포 시화초대전**

2005. 4. 23~27 속초시 영랑호 호수주변 및 중앙가로

- 사진: 거리 전시회 및 무료촬영 - **사진으로 보는 우리이야기**

2005. 4. 23~27 속초시 영랑호 호수주변 및 중앙가로

- 미술: -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교실**

2005. 4. 23~4. 27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범바위 잔디광장

-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 우수작품 시상식 및 전시회

- 공예: -꽃누르미 및 체험

2005. 4. 16~17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문화회관 전시실

▶ 어린이를 위한 초청 인형극

마법의 손가락/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알

2005. 5. 12~13 문화회관 대강당

▶ 2005년 제5회 속초민예총 한중 해외문화교류사업

-얼기설기 영켜보자-

□ 재중국동포 인상사진 증정사진사업

2005. 6. 8~6. 10 길림성 훈춘시 정화가, 신안가, 춘화향등 약 200명

□ 한중사진교류전

2005. 6. 8~6. 10(훈춘시문화관)

□ 한중세미나

2005. 6. 8 "기록사진의 가치"(훈춘제2고중 강당)

재중국동포 초대 시집 발간증정

2004년 “백두산에 가서는”에 이어 두 번째 시집 “백두대간의 겨울바람” 증정함
□ 재중국 동포청소년백일장
2005. 6. 8 훈춘 제2고중 대강당
훈춘시내거주 중·고 3개교 동포학교의 선발생 150명 대상, 우수학생 시상

▶ 제5회 한여름밤의 영화제

2005. 7. 21~ 8. 14 청초호유원지 엑스포 상징탑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총10편 상영
더위를 피해나온 가족단위 시민에게 시원함과 흥미를 더해주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사진강좌

2005. 8. 20~21 문화회관 영랑호 리조트
내용: 토론회-사진 아카이브
특강- 풍경사진의 정체성(강사:엄상빈)
포토폴리오(김택미, 남기란)

▶ 통일문화제

-얼기설기 영켜보자-

2005년 8월15일
속초민예총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9회통일문화제가 속초청초유원지 엑스포 상징탑 광장에
서 있었다.

북한의 조선화 수예화 도자기등을 전시한 ‘북한미술기획전’으로 시작된 이번행사는 1부 통일문학상 공모 수상작 시낭송과 이번 행사를 위해 초청된 중국 길림성 훈춘시 동포시인의 시낭송, 그리고 지부 문학위원회 회원의 시낭송이 있었다.

이어서 2부에는 새터민(탈북자)으로 이루어진 예술단 “평양연극 예술단”의 공연을 가져 그 의미를 더한 행사가 되었다.

▶ 설악문화제 초청 사진전

2005. 10.15~16
제40회 설악문화제 행사장(엑스포장)에서 사진위원회가 초청한 중국길림성 훈춘시 촬영가 협회회원 4명과 작품40여점의 전시회가 있었다.

▶ 제17회 속초시문화상 전태극 지부장 수상

제17회 속초시민 문화상 문화예술부분에 선정되어 40회 설악문화제 개막식에서 수상 하였다.

▶ 제20회 속초민족예술제

11월 25일 공예위원회의 회원전 “영원을 꿈꾸는 들꽃전”의 개막을 시작으로 문학의 환경시화전 ‘깨끗한 도시를 위한 시화전’이 11.29~12.2에 사진위원회의 속초, 그리고 사진이야기 12.3~6가 있었으며, 기간 중 11월 26일에 미술위원회의 “작품속이야기”가 11월25과 11월 28일 양일은 영화위원회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영화제 “나는 행복하다Ⅰ”, “나는 행복하다Ⅱ”가 강원장애인 복지회 속초시지부 보호작업장에서 있었다.

▶ 장애인과 함께하는 미술교실

속초민예총 미술위원회에서는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속초시 노학동 소재 ‘금강 장애인 주간보호소’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지난 일년간 시행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미술교실’의 결실로 12월 16~18일간 장애우들이 직접 년중 작업한 49점의 작품 전시와 함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교류시간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는 뜻있는 시간이 되었다.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자 택	핸 드 폰	
원 장	노광복	속초 중앙동 468-142	632-8907	010-7320-8907	청구문화장학재단총무이사
부원장	오윤근	교동 656-5 13/2	633-8817		청운독서실 대표
	최현식	조양동 부영APT 303-604	633-2632	011-363-2632	강원도문화재단전문위원
이 사	고석철	노학동 삼환APT 107-602	632-0811	011-366-0811	동해용역(주) 전무이사
	고재양	교동 780-60 15/3	633-4931		교사(전)
	김길정	조양동 721-1 13/2	633-4756	011-376-1218	강원도의회 의원
	김병학	중앙동 503-44	632-6400	016-9346-6400	속초요리학원 원장
	김상복	교동 동부APT 107-701	633-8512	016-757-8512	(주)금강케이블넷 대표
	박상열	영랑동 동진오피스텔 1329호	637-5080	011-366-3339	풍원기업사 대표
	박영남	동명동 산 60-1	637-4040	010-8228-4040	(주)사공수산 대표
	어재석	중앙동 468-67	633-2069	011-9886-2069	속초시의회과장(전)
	엄시용	교동 654-3	637-0337	010-7677-9655	성우산업 대표
	오상현	청학동 483	631-2156	018-208-4550	갤럭시 대표
	유문승	동명동 466-56 중원한의원	631-9946	632-0994	중원한의원 원장
	윤광훈	교동692-2 이정종합광고	631-5704	011-375-5740	이정종합광고 대표
	윤숙자	교동 627-42 19/5	633-4014	019-541-4014	설악유치원 원장(전)
	이병길	중앙동 479-1	632-5782	017-370-5050	예림건축사
	이병선	교동 동부APT 107-1906	638-6386	011-9028-3419	강원도의회 의원
	임호성	조양동 부영APT 310-1505	633-2178	011-375-3656	속초시의회 의장(전)
	전복식	교동 삼환APT 108-1004	631-7130	011-373-4847	대우파크(설악산) 회장
	허춘권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631-5767	010-3955-5078	두산교육센터 원장
	박정은	금호동 484-7 동제약국	633-2211	011-9939-2212	동제약국
	감 사	박정기	조양동 230 연회동	636-7667	011-9791-7025
양재호		교동 627-32 21/6	633-4661	011-362-4661	교육행정공무원(전)
사무국	한정규	교동 966-12	635-5933	011-362-1224	사무국장,국편사료조사위원
	장은선	교동 늘푸른@ 105-1201	636-4344	019-9151-4344	사무과장
	김은중	동명동 44번지	632-0687	011-9373-2633	사무주임
	최봉하	금호동 설악연립 다-201	631-5298	017-373-5298	향토사료전시관 기사
	최택수	영랑동 200번지 동현@ 101- 802	632-9217	011-9879-6250	설악문화제 사무간사

화진을 만나면서 성공의 감미로움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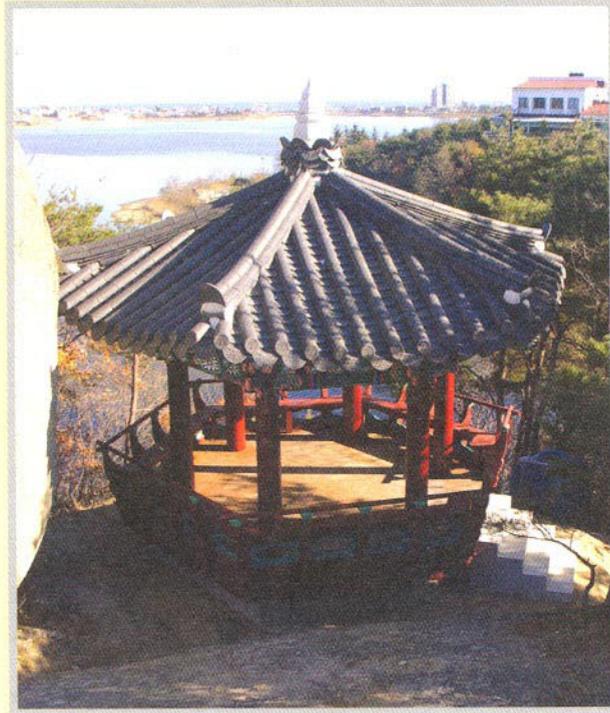


그녀의 성공 뒤에는 늘 화진화장품이 있습니다

품질 지상주의로 만든 최고의 제품이 자신감을 심어드립니다.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화진만의 사원 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세일즈 매니저 마인드 교육이 이 땅의 모든 아내를 당당한 여자로 되돌려드립니다. 잠재된 여성의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여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는 화진화장품. 이제 화진화장품이 그녀의 성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 상담 및 문의 ■매직몰 서비스 1577-8877 ■고객홍보센터 : 080-343-8800 ■홈페이지 : www.ihwajin.co.kr

속초지점 안내 : 033-635-4925 박 난 영 지점장
011-362-2303



영랑호 범바위에 복원된 영랑정(永郎亭)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45 간성 산천조에 의하면
 在郡南五十里周三十餘里汀回渚曲巖石奇怪湖東小峯半入湖心有古亭基是
 永郎仙徒遊賞之地

“고을 남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30여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정자터가 있다. 여기가 영랑(永郎)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 (영랑동 570-5)

전화 033)632-1231, 639-2439 전송 033)632-1241

홈페이지 : sokcho-culture.com E-mail : sc2439@sokcho.org

■ 속초문화원에서는 여러분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속초문화원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에 뜻을 같이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
 는 직접 문화원 사무국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